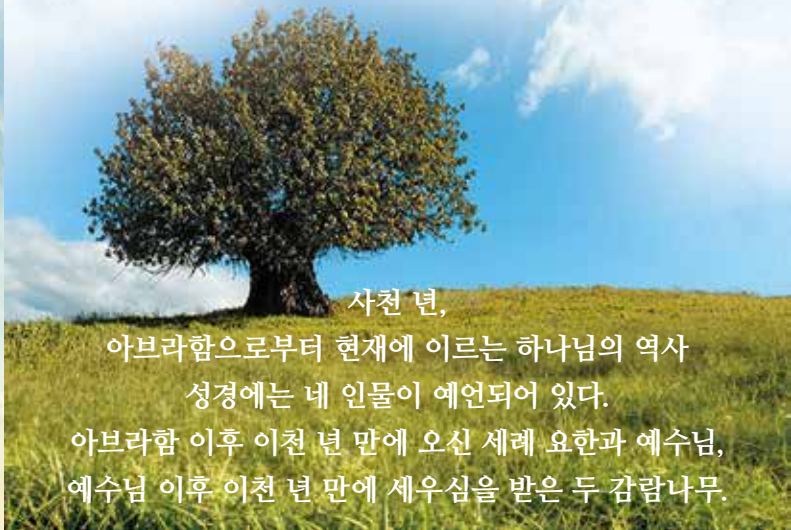


이영수 설교전집

에덴의 메아리

14



사천 년,

아브라함으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는 네 인물이 예언되어 있다.

아브라함 이후 이천 년 만에 오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
예수님 이후 이천 년 만에 세우심을 받은 두 감람나무.



(재)한국기독교에덴성회선교재단

에덴의 메아리

발행일 | 2012년 6월 7일 초판인쇄

지은이 | 이영수

펴낸이 | 한국기독교에덴성회

펴낸곳 | 에덴성회

주소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에덴벚꽃길 189

홈페이지 | ieden.kr

이메일 | info@ieden.kr

※ 문의 한국기독교에덴성회 총무부 031-582-7273

※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ISBN 978-89-6449-391-5

ISBN 978-89-6449-223-9 (세트)

에덴의
메아리 14



저자 (2001년 당시)



상천에덴플라자. 경춘국도변 상천 에덴유스호텔 뒤에 있으며 병원이 없어 불편했던 지역 주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천신경과. 상천에덴플라자에 자리한 상천신경과에서는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통증의학과를 개설하고 있으며, 건강검진 서비스도 하고 있다.

Prologue

“머리말”

오늘날 기독교는 큰 시련에 봉착해 있다. 믿으면 된다는 안이한 구원관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해이하여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것이다. 한편 인지가 눈부시게 발달하여, 인류의 일상생활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나, 그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 사람들의 이목을 온통 땅에 쏠리게 하여 주님이 예비한 영혼의 영원한 본향에 대하여 까맣게 잊어버리기가 일쑤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록한 성경을 인간의 생각대로 가감 내지 왜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주의 차원으로 끌어내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한다.

이런 시점에서 성경에 예언된 두 감람나무의 출현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을 다시금 생생하게 입증하여 방향 감각을 잃은 인류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으나, 귀를 기울이는 양떼가 얼마 되지 않아, 지상에

서 고전했던 주님 당시를 연상케 한다. 앞선 주인공이 말엽에 아담처럼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를 재건하려는 나중 주인공까지도 못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에 이처럼 제동이 걸려 차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종종 보여준다. 예컨대 모세나 사울의 사례가 그것이다.(신34:9, 삼상 16:13)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계자로 하여금 기어코 뜻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오늘날 이 땅에서 두 감람나무가 역사했고 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감람나무는 인간의 인격이나 학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 곧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속 4:6) 그러므로 그 역사에는 명실상부한 증거가 뒤따라야 한다. 이들은 한결같이 양떼에게 안찰을 하여 성령을 부어주고,(행2:17, 19:6)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생수, 계21:7)로 성도들의 심령을 깨끗이 씻어주며, 시퍼렇게 멎은 시체가 순교자처럼 아름답게 변모하게 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들이 단상에 섰을 때 머리 위에 원광이 돌리고, 이슬 같은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게 된다. 이들에게서 향취가 풍기고, 이들의 사진을 보고 이른바 ‘귀신들린 자’들이 무서워 도망치기도 한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이단으로 단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나중 감람나무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새로운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오늘날까지 14권의 설교집에 담겨 있다. 그리하여 인간이 겪어야 하는 고뇌의 근원과 그 진정한 해결책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하나님을 줄곧 대적해 온 사단을 완전히

진멸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것이며, 구원은 이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단은 자고로 하나님의 대적인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는 초비상수단을 취한 것은 이 대적을 멸하여 인류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하나님에게 아들의 피권세가 필요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피권세로 순교자를 배출시켜 하늘 군병을 길러 오셨다. 인간은 사단을 소탕하는 역군으로 지으심을 받았으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사단이 침투하여 세상을 장악하게 되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단이 완강히 도전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단을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가 타락한 존재로 본 것(유1:6)은 피상적인 견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것처럼 끈질기게 도전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은 요컨대 사단을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정한 수의 하늘의 군병을 배출시키기 위해서이다. 안찰과 생수, 또한 새로운 복음은 이를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감람나무 역사는 세상이 외면하는 가운데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앞날에는 승리가 있을 뿐이다.

이 설교집의 교정을 보아주신 김윤성 목사님과 장승렬 장로님, 윤상학 박사님, 컴퓨터 작업을 해 준 최선아 양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2000년 4월 최 현

Prologue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1973년 11월 17일의 첫 예배 이후로, 이영수 총회장의 설교를 모은 설교집이 1, 2년에 한 권씩 엮여 나왔다. 그의 설교는 4천 년간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비밀의 책이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비밀은 왜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 마귀 때문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알려 주셨다. 그 섭리란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는 과정이다.(요일3:8) 따라서 당연히 마귀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마귀는 성경을 인용하여 질문을 던졌다.(눅44:10-11) 만약 마귀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

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일이 원만히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하나님은 마귀가 알지 못하도록 성경에 당신의 섭리를 비밀스럽게 감추어 두셨다. 그런데 마귀도 알지 못하도록 하신 그 비밀을 과연 인간이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시대의 일화로 알 수 있다.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자들조차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알아볼 수 없는 내용을 굳이 기록하게 하신 것일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것은 그 비밀을 이루어야 할 당사자가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다.(요5:39, 눅24:44) 즉,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일을 하심으로써 당신이 성경에 기록된 그 주인공임을 밝히신 것이다. 그래서 자주 “때가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하시며 당신이 하셔야 할 일정이 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요2:4, 7:8, 30, 8:20, 13:1)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 승천까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움직이다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것이다.(요19:30)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예수님 이후에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남아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 십자가를 지신 대가로 하나님의 우

편 보좌에 앉는 권세를 받으셨다.(행7:55, 시110:1)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던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받으셨다.(계5:1, 7) 그 책은 누구도 볼 수 없었던 비밀의 책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다.(계5:3)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책을 예수님에게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 주시기 위함이다. 즉, 그 계획을 이루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 내용을 보시고 당신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수정해야 할 필요를 느끼셨다. 예수님은 육으로 계실 때, 사도들이 있던 당대에 재림하실 것으로 알고 계셨다.(마24:34)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마지막 때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 예수님은 당신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신 것이다.(계1:1)

성경에는 예언된 인물이 네 분 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그리고 두 감람나무가 그들이다. 앞의 두 분은 아브라함으로부터 2천 년 만에 그리고 나머지 두 존재는 4천 년 만에 등장하였다. 계시록은 감람나무를 위한 책이다. 그가 예수님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마무리 지어야 할 존재이기 때문이다. 감람나무를 예언한 인물이 사도 요한이라는 점에서 감람나무는 사도들보다 중요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을 때 감람나무에 대해 알지 못하셨다. 두 감람나무는 이미 주전 520년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예

언하신 존재로, (속4:14) 예수님은 하나님의 책을 보시고 나서 그들이 당신의 보혈로 역사할 존재인 것을 알게 되셨으며,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다. (계11:3-4) 그리고 이기는 자가 나오면 감람나무에게 해당하는 언약들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속3, 4장, 계2:7, 11, 17, 26-28, 3:5, 12, 21)

하나님께서서는 이긴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주시고 아들로 삼겠다고 약속하셨다. (계21:6-7) 그것은 이긴자가 받아서 역사할 생명수 샘물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룬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이긴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대행자이므로 아들로 대우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른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긴자가 유업으로 받은 생명수 샘물인 것이다. (요7:38)

생명수 샘물이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진, 죄를 씻는 생수다. (속13:1, 12:10) 그렇다면 이긴자는 이 생수로 무엇을 하는가?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일을 한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롬3:23)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들조차도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에 음부에 가 있어야 했다. 생명수 샘물이 마련되면서, 주께서 그들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계5:9, 마27:52-53) 그들은 하늘에 있는 제단 아래 있으며,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자신들이 억울하게 순교당한 원수를 갚게 되느냐고 여쭙었다. (계6:9-10)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와 같은 자들의 정해진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다. (계6:11)

그렇다면 그 수란 몇인가? 이 수는 바로 14만 4천이다.(계14:1) 14만 4천에는 구약시대 인물들과 신약시대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이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또 어떤 이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것이다. 각자 배출된 시대에 따라 그 시대를 주관하신 분의 이름을 받은 것이다. 이들이 바로 하늘 군병이다.(계19:14) 이들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쟁에 참여하게 된다. 그 수는 아직 차지 않았다. 그 수가 찼다면 이미 세상은 종말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럼 이 수가 언제 차는가? 바로 감람나무가 나타날 때이다.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 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받아 그 수를 채우는 사명을 받았다. 그는 하늘 군병을 배출시켜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친다.(계7:2-3) 그리고 낮으로 이들을 추수하여 하늘 공간에 들인다.(계14:16)

마귀를 멸망시키고 난 후에는 하늘 군병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된다.(계20:4) 이들은 마귀가 다스리던 음부에 갇힌 모든 자들을 끌어내어 심판을 한다.(계20:13) 심판의 결과, 천국에 들어갈 자들과 지옥으로 보내어질 자들이 구분된다.(마25:32) 그리고 하늘 군병들은 세세토록 천국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계21:3-5) 즉, 천국은 14만 4천 개의 국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영수 총회장은 세상적으로는 배운 것이 없다. 그러나 그는 하

나님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성경에 가려진 부분들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영화를 본 사람이 그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상 중에 가르침을 주시면서, 때가 되기 전에는 입을 봉하라고 하셨다. 그것은 전해 봤자 듣는 사람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밝힐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한 군대를 완성하시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이다. 조만간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이 세상을 멸하실 것이다. 따라서 지금 보는 하늘과 땅은 사라지게 된다.(계 21:1) 모든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지 26세기 만에, 그리고 예수님이 예언하신 지 20세기 만에 감람나무가 등장하였기에, 기독교인들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몇백 년, 또는 천 몇백 년 전에 있었기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섭리라면 누구라도 그 결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나머지 사람들 중 누가 그것이 자신들의 멸망을 가져올 줄 알았겠는가? 노아가 사명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죄악에 빠진 인류를 멸하셨던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후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영수 총회장은 이미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 아무쪼록 흘려듣지 말고, 베뢰아 사람들처럼, (행17:11) 이영수 총회장의 말과 성경을 비교 검토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구원의 방주로 나아오길 기대한다.

설교전집을 준비하면서 이미 발간된 설교집 내용을 재검토하여 개정된 국문법을 적용하고,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첨삭을 하였다. 또 첫 설교집이 나온 지 40년 가까이 되므로, 그동안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함에 따라 말씀도 발전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일관성 있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 과정에서 신창기 성회장님의 도움이 컸다.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편저자에게 있음을 밝히며, 독자의 질책을 바란다.

2011년 교육학박사 윤상학

차례



Prologue 머리말 ... 06
설교전집을 발간하며 ... 09

Part 01.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 01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20
- 02 주님은 왜 길인가? 30
- 03 오늘의 섭리 35
- 04 피의 은총에 대하여(1) 45
- 05 피의 은총에 대하여(2) 54
- 06 사후의 두 가지 유형 60
- 07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69

Part 02.

진리의 성령에 인도되어

- 08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78
- 09 하나님의 초토화 작전 88
- 10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가? 97
- 11 기독교의 진수 119
- 12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가? 128
- 13 하나님께 왜 비밀이 있어야 하는가(1) 137
- 14 하나님께 왜 비밀이 있어야 하는가(2) 148

Part 03.

성령의 말씀을 따라

- 15 성도가 누리는 자유 156
- 16 언약과 축복 162
- 17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1) 169
- 18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2) 177
- 19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192
- 20 기독교의 문제점 200



Part 04.

생수의 은혜 안에서

- 21 지상에서 주님이 가야 하는 노선(1) 218
- 22 지상에서 주님이 가야 하는 노선(2) 224
- 23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다 230
- 24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쓰셨는가? 253
- 25 신과 신의 대결 구도 271
- 26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280

Part 01.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1.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 2. 주님은 왜 길인가? · 3. 오늘의 섭리
4. 피의 은총에 대하여(1) · 5. 피의 은총에 대하여(2) · 6. 사후의 두 가지 유형 · 7.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Chapter 01.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은 우리가 2000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흔히들 “세월이 유수같이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영적인 것을 모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한 해가 바뀔 때마다 행운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미약하기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단단히 해도 현실에 부딪치면 약해져서 쓰러지기가 일쑤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이제 내 앞에는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딤후 4:8)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해가 바뀔 때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생활을 더욱 아쉬워하게 됩니다.

이미 작년이 되어 버린 1999년도에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마

음으로 정성껏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 오셨습니다. 각자 고달픈 생활 속에서도 원망 한마디 하지 않고, 묵묵히 목자가 이끄는 양 떼처럼 따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애로와 고통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처럼 고달픈 역사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2천 년 동안 각 민족을 상대하여 역사하신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기독교 역사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께서 2천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 국적을 초월하여 수많은 민족들과 교류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역사가 불과 몇 십 년 전에 일어나 주님은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한 민족을 집중적으로 상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생수라는 독특한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주님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셨던 겁니다.

그러한 관심 속에서 출발한 제2의 감람나무 역사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받고’,(슌4:10) 눈여겨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비참한 가운데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목자나 따르는 양떼들이나 어느 하나도 떼뺏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무너진 곳을 수보해야 되고, 쓰러진 것을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

는 양에 있지 않고 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예루살렘 도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중에 “한 사람이라도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으면 그 한 사람을 보고 온 예루살렘 성중에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렘5:1)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가 떨어져서 큰 환란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특이하게 내려져,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 남편이라는 명칭만 빌려 달라.”고 애걸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사4:1) 무수한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어 비참하게 죽일 것을 예언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아모스 선지자 시대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 혹은 에스겔 선지자 시대 등 파란만장한 시대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언약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나 세월은 흘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에 의해 민족을 초월하여 세계적으로 복음의 불길이 번져 나갔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2천 년 동안 각 민족을 상대로 직접 역사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날 여러분을 인도해 오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또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자신이 미약하다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눈만 뜨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중심으로 행동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일인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목이 곤아 여호와를 원망하다가, 믿음이 독실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민족을 고소하는 사례가 한국인이 으뜸입니다. 부끄러운 얘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 해 동안 따라오셨습니다. 영의 세계가 눈앞에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는 성서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계17:14)** 그 말씀에 해당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영광스러운 세마포 **(계19:6)**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헛되게 산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혹한 현실이 우리를 몹시 괴롭힙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각자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이 감람나무 역사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은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의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때의 열의를 되찾아야 합니다.

세대가 변하고, 지도자는 바뀌었을지라도, 섭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람나무 역사는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제 어

느 정도 우리 역사가 진전되어 그 깊은 뜻을 여러분에게 개봉할 때가 되었습니다. 즉, 2천 년 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어떻게 왔으며,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밝히는 때가 온 겁니다. 기독교는 그 성령의 역사로 일단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가지고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는가? 저는 이에 대해 대충 해명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영의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여 때로는 부딪치고, 때로는 마음에 꺾끄러움을 느끼시면서 따르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저 자신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도 많은 놀라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런 사정이 있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신의 입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신은 어디까지나 신이고,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고, 신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신과 교류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교역자들은 믿는 자들이 죽어서 썩어가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전도를 하고, 큰 업적을 남기고,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죽으면 세 시간도 못 가서 냄새가 나서 다른 사람이 옆에 있지 못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살면서도 인간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영의 문제를 모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몸에 이상을 느끼게 되면, 성령이 왔으니 자기는 두려울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악령이 장난질한

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땅에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거두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라.”(계14:18)고 했습니다. 포도나무는 주님을 상징하고, 포도송이는 믿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포도송이가 익었으니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어라 이겁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어둠의 신의 열매가 맺혔으니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 빛을 심어야 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이 실제로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일한 가운데서는 결코 실현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모가 무슨 일을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칩시다.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냐 하고 나는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문제를 잘 모르는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누구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비참하게 죽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 자가 어디 있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쟁입니다.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겁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건 전쟁이 아닙니다. 수백만이 모여서 구원 운운하고 떠들어야 소용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게 된다.”(요6:39)고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 날이 와야만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인간이 뭐가 대단하다고 인간 위주로 생각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마귀 사이에 끼어 우왕좌왕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령과 악령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시작할 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한테 설명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할 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신 겁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여러분에게 알려 드립니다. 여러분은 살고자 저를 따라오신 분들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를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유명한 종교 지도자가 세상을 떠날 때 한 번 가 보십시오. 그럼 알 겁니다. 시신의 부패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면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정성껏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나머지 일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믿어도 안 믿어도, 떨어져도 따라와도, 그건 여러분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보태지도 빼지도 않고 사실을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계시록을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아 있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라.’”(계14:14-15)

전에도 말씀했지만, 낫은 곡식을 거두는 도구입니다. 낫을 휘두른다는 것은 영적인 추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통해 만들어진 생수를 가지고 가서 시체에 바르면 그 검푸르게 멎은 시체가 아름답게 바뀝니다. 그것은 순교자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시체의 모습입니다. 순교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세마포로 된 옷을 입게 됩니다. 시체가 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람나무를 통하여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축복을 내려 주신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 드리는 심부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 속에 오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한테서 인간적으로 나온 뭔가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드릴 만한 아무것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믿고 지키십시오. 그 나머지는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나면 저는 조용

히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내년이면 60이 됩니다. 저도 저 갈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저를 통하여 많이 배우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전하면 그만입니다. 이래라저래라 간섭하지 않습니다. 금년 2000년은 지혜를 발휘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저를 보고 여러분이 알아차려야 합니다. 저분이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사시겠지, 이것쯤은 여러분이 헤아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비와 사랑과 온유로 거듭나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형제를 질투하고, 모략중상하고, 형제가 잘되는 것을 못 참고, 형제가 안 되는 것을 좋아하면 주 앞에 서지 못합니다. 남을 매장시키려고 하면 자기가 매장되는 겁니다. 지난날의 모든 잘못은 금년부터는 고쳐야 합니다. ‘적당히 따라가면 되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버리십시오. 익지 않은 밤은 주의 종이 거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전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도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전하지 않아서, 여러분이 듣지 못해 뉘우치지 않으면, 그 책임이 저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대신 전하는 겁니다.(눅4:14)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함수관계로 현재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영원히 함께합니다. 우리는 영의 세계에 가면 다시 만납니다. 이 얼마나 깊은 인연입니까? 우리는 오늘날 획기적인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섭리

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용하게 살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교통순경 한 명도 저를 무서워하지 않지만, 마귀들은 이영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니다. 그 어떤 악령도 이 손길 속에서는 녹아 나갑니다. 저는 마귀를 처치해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역사는 남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용히 하나님의 역사를 해 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단계에 올라서면 영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눈으로 볼 날이 옵니다.

Chapter 02.

주님은 왜 길인가?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는가? 이것을 깊이 알아야겠습니다.

빌립이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 “주님, 하나님을 좀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더니, 주님께서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뭘 새삼스럽게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요14:9)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네 생물 중의 하나인 가브리엘 천사장이 목수인 요셉과 정혼한 한 처녀에게 와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입니다.” 하고 상대방에게

말했습니다. 천사장은 여간해서는 상대방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 처녀 자신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인물이기 때문에 천사장까지도 정중히 대했던 겁니다.

천사장이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들을 낳게 되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이때 마리아가 하는 말이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그 능력이 당신을 덮어 잉태하게 됩니다.” (눅1:35) 하고 천사장이 대답했습니다. 상대는 슯처녀입니다. 수태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설명을 해 줘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설명을 들은 후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에 적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신(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여 남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가까이하셨습니다. 아기는 여자 혼자서는 낳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왔으되,” (요1:14)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말씀의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세상에 왔다고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가 아기를 뱉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입고 지상에 태어나게 된 겁니다. 주님이 직접 오시면 여러분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와 같은

아들에게 육신을 입혀서 지상에 내려보내려니까 사람을 필요로 하셨던 겁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신이 하나가 되어서 임마누엘이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는데, 부활은 그걸 환원시킨 겁니다. 주님의 육신은 마리아의 인성(人性)을 입은 겁니다. 이걸 분리시켜 놓은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물위에서도 걸어 다니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성령이 함께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같이했다 이겁니다. 지상의 그분은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반은 육신이고, 반은 신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분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에 의해 지음을 받았지만, 주님은 사람과 신에 의해 지음을 받은 겁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창에 찢리고, 못에 박히고, 그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이분 속에 있는 존재는 지상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입니다. 즉, 그것은 하늘의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늘에 자유롭게 오르내립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의 영은 하늘의 것이고, 육신은 세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시조 아담, 하와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너희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라.”(창3:19) 하고 말입니다. 주님을 낳은 마리아도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죽으셨을 때 주님의 육신은 그대로 있어야 합

니까? 흠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부활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의 영은 지상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생선도 잡수시고 문을 잠근 방에도 자유롭게 나타나셨습니다. 생선을 잡수실 때는 육신의 조건을 입으신 거고, 문을 잠갔는데도 딱하니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입니다. 도마가 동료에게, 주님을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보기 전에는 절대로 부활을 못 믿겠다고 말하자, 느닷없이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야!” 하고 불렀습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은 문도 열지 않고 나타나신 겁니다. “손을 만져 봐라. 그런데 내가 분명히 네게 말하지만, 만져 보고 믿는 자보다 그냥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요20:27) 신앙의 척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 마리아 축의 육과 하나님 축의 영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놀라운 현상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라면, 그리스도인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고전15:19)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기 전에 길 예비자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길 예비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입니다.(말4:5)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일하는 과정에서 파란곡절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세례 요한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그 증거해

줘야 할 사람과 부딪친 겁니다.(마11:3)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뭐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 버리는 당시의 권력이면 예수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여간해서는 죽일 수 없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를 죽이는 사례를 남겼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가 한결 쉬웠다 이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져야 할 분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신 겁니다.(사53:6) 그는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만인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의 각본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여건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오신 겁니다.(히2:9) 그러므로 주님은 사람들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느냐?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죽을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갈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따라 영원히 다시 살게 됩니다.

Chapter 03.

오늘의 섭리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으면 바로 심판을 받아 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악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역사를 깊이 알게 되면, 신들의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신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선악이 묘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신과 빛의 신의 대결에서, 빛의 신이 이길 경우의 잘잘못과 어둠의 신이 이길 경우의 잘잘못의 판단이 다릅니다. 빛의 세계에서는 아군을 많이 죽인 적장을 원수로 여기지만, 반대로 어둠의 세계에서는 그 사람이 엄청난 공로자가 됩니다. 적군을 제압하고 승리한 맥아더 사령관 같은 사람은 추앙을 받게 되지만, 연합군에 잡힌 일본의 도조 히데키는 전범자로 처형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전쟁

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빛을 삼키는 날에는, 빛에 속해 있던 모든 무리들은 어둠의 세력에게 엄청난 피해를 맞보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훌륭한 인물일수록 어둠의 세력 쪽에서는 큰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기독교의 우두머리하고 다른 종교의 우두머리들을 등장시킵니다. 이렇게 우두머리끼리 나서는 전쟁을 제3차 영의 전쟁(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제2차 전쟁 중으로, 빛과 어둠이 여러분의 육체 속에 있는 혼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혼은 성령이 차지하지 않으면 악령이 차지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군병이 이방인들하고 치열한 접전을 벌인 아마겟돈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지명입니다. 앞으로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영의 전쟁의 비유로 요한 계시록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3차 영의 전쟁이 일어나면 마귀가 총동원됩니다. 이때 최고의 권세를 잡은 짐승이라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의 괴수가 나가서 싸우라고 권세를 준 겁니다.(계13:2) 하나님께 속한 빛의 영들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선두에서 전쟁을 하는 자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감람나무입니다.(계11:7) 그러나 이때 짐승의 권한이 크기 때문에 감람나무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각본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도망을 다니다가 나중에 회복하게 됩니

다. 그 패하는 기간을 육적으로 한 때, 두 때, 반 때다, 3년 반이다, 1,260일이다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 측에서는 일반인을 데리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다른 신의 앞잡이였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짐승과 더불어서 등장합니다. 빛의 아들 측에서는 감람나무라는 존재를 앞세우고 의로운 무리 14만 4천이 동참합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입니다.(계13:8, 21:27)

이들은 짐승과 전쟁을 하다가 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의 권세가 깨집니다. 그 기간은 어둠의 세력이 승리하는 기간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피할 곳을 마련해 줍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권세자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나가 어둠의 세력을 꺾게 됩니다. 이때 악령들이 총 동원됩니다. 그 수가 너무도 많은 고로 요한은 바다 모래와 같더라, 이렇게 표시했습니다.(계20:8) 이 대접전에서 하나님이 마귀를 완전히 멸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 누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공을 세웠느냐, 혹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훼방했느냐를 가리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부모님 또는 자식, 친척이 계시고,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생수의 축복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전쟁을 할 때 생수의 축복을 받은 영들이라

해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음부에 가 있을 경우는 전부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성령과 악령은 불가불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사람 가운데서 남편이나 형은 음부로 가고, (계6:8) 아내나 동생은 지성소로 갔다면 (계6:9) 결국은 언젠가 싸우게 됩니다. 이때 남편과 아내, 형과 아우가 싸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빛과 어둠이 싸운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빛에 속한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사람은 어둠의 자녀로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잘했느냐, 혹은 잘못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서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죄의 가짓수가 많지만 크게 나누면 그렇다는 겁니다.

지성소에는 순교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둠의 세력하고 크게 싸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이 전쟁을 할 때 주님도 같이 출전합니다. (계19:11, 16) 처음에는 감람나무라는 존재가 나서서 싸우지만, 이들이 고난을 당했다가 다시 회복된 후 주님이 선두에 서게 됩니다. (계19:11) 이 전쟁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결전이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어둠이 지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마귀의 괴수는 부하가 싸움에서 지면 자신도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엄청난 전쟁이 눈앞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제일로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일 잘했다고 칭찬하실 거냐 하는 겁니다. 군

대가 국가를 위해 적하고 싸울 때 모든 백성들이 바라는 것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영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을 이겨야 잘하는 거지, 전쟁터에 나가서 지고 돌아온다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득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잘했다 칭찬 받는 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악과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은 차이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수도에 힘써 성인군자가 되어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으면 뭘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건 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둠의 세력이 득세했다면, 그 앞잡이들은 엄청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빛과 어둠이 싸울 때 적당하게 싸우겠습니까? 사생결단을 합니다. 자기가 지는 날에는 엄청난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생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영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때고, 지금도 적대 세력이 증가하는 것을 피차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혼을 놓고 두 번째 전쟁을 하는 오늘날에도 서로 빼앗으려고 싸웁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죽느냐 사느냐가 중요하지, 그밖에 뭐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걸 그 다음입니다. 권세를 빼앗긴 다음에 그런 걸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따지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 60억 인구 중에 우리가 하

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재료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영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소원은 에덴을 회복하는 것이고, **(행3:21)** 주님은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시110:1, 히10:13)** 주님은 잡수실 것을 요구하시는 분도 아니고, 마실 것을 원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의 요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마귀를 발등상 시킬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시110:1, 3)**

그런데 60억 인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어도, 말로만 마귀 운운하지, 마귀가 뭔지를 잘 모릅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킨다는 것은 감히 생각지도 못합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죽으면 주 앞에 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 기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지 못해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날 첫 감람나무 역사가 일어났다가 얼마 못 가서 폭 꺼져 버렸으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믿노라 하는 숫자야 많습니다. 많으면 뭘 합니까? 그건 지상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얘깁니다. 전쟁에는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지, 중간은 없습니다. 점령을 당하면 점령한 자의 손에 들어가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에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

다.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졌으면 어둠이 빛을 삼킨 겁니다.

그 뒤를 이은 우리 역사도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옥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안 되었지만, 대다수가 어둠으로 짙어졌습니다.

앞선 역사가 망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갈 길을 못 찾아 애쓰는 저들을.” 갈 길을 못 찾아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있습니까? 빛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눈에 선하지만, 이상 중에 악령이 해일 같이 몰려옵니다. 누구나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끌려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갑니까? 그 세력이 그냥 말아 버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입으로 기운을 불라!” 하고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획획’ 하고 기운을 부니까, 그 엄청난 세력이 뒤로 밀려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 뒤에 있는 양떼들은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그 앞에 있으면 그냥 말려 들어갑니다.

무너진 앞선 역사를 수보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싶어도 그렇게 안 됩니다.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기 위해 주님이 오늘날 저를 무기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그 짐을 어깨에 지고 있으므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이 알곡성전을 지으려는 저에게 주님은, “절대로 협조를 강요하지 마라. 스스로 하게 놔둬라.” 하고 당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상에서 실제로 일하는 건 주님이 아닙니다. 제가 가만

히 있으면 일이 안 되겠습니까? 일은 제가 해야 합니다. 고생문이
흰한 걸 저는 잘 압니다. 뭐 하나라도 여건이 되어 있길 합니까?
여러분의 처지가 뻥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지시하신 대로
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되어 가니 저도 신기합니다. 그러
나 실로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저도 육을 입고 있으므로 걱정스러운 일이 있으면 잠을 설치고,
잠을 설치면 몸이 고달픕니다. 언제 한 번 편안하게 쉴 새가 없습
니다. 안과 밖으로 들어오는 시련은 말도 못하는 겁니다. 아마 일
반 사람 같으면 벌써 쓰러졌을 겁니다. 성령이 지켜 주시니까 이만
큼 버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이걸 해 줘.” 하고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다
행한 일입니까? 그때 저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사55:6)는 말씀을 상기하게 됩니다.

유명한 교회에서 열심히 믿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들이 열 명, 스무 명 와서 찬송을 불러도 그 시체는 숫덩이처럼 되
어 꼬여 갑니다. 도리가 없는 겁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다 와서 예
배를 드린다고 그 썩은 시체가 아름답게 변합니까? 이것은 이 시
대의 비극입니다.

저는 주님께 그 설명을 듣고 아찔했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
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신 주님을 생각하
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

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았습니다. “꼭 제가 해야 합니까? 다른 교회에 신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는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소연도 했던 겁니다.

청량리에서 처음 우리 역사를 시작했을 때, 전에도 말했지만 하늘에서 조그만 단상으로 광채가 내려오면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것은 바로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갈 때 비행기 창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어쩌다가 한국에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났는가? 앞선 역사는 그렇게 망가지고, 그 뒤를 내가 맡아서 하다니.’ 하고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물론 말할 수 없이 감사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두려운 겁니다.

뉴욕에 가니 추운 밤에 교인들이 나와서 기다립니다. “이 추운데 뭐하러 나오셨습니까?” 하고 내가 말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오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눈물이 글썽한 그들을 보니 ‘내가 피곤해도 잘 왔구나.’ 싶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렇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멀어도 와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역사는 모든 걸 차근차근 이루어 나갑니다. 나는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뭐 이렇게 건축만 하나? 부흥도 잘 안 되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사실 그대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역지로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정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 자

신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세마포를 입고 주 앞에 가야 합니다. 이거 꿈같은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거기 가 보십시오.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과 뜻을 묶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을 이뤄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과 호흡을 같이하실 때 이 시대를 아름답게 장식할 수 있는 겁니다.

Chapter 04.

피의 은총에 대하여(1)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 과학은 눈부시게 발달하여 지구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이 이 시간에도 화성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1초에 30리를 갑니다. 총알은 1초에 10리도 못 갑니다. 그러니까 총알보다 3배나 빠른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여덟 달을 가야 화성에 도착합니다. 달나라는 총알보다 빠른 속도로 사흘 반이면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천지, 즉 태양계는 과학에 의해 우리의 눈으로 볼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일 멀리 떨어진 명왕성을(2000년 설교 당시 상황, 명왕성은 2006년에 태양계에서 퇴출되었음) 향해서도 지금 위성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위성이 태양계를 사진으로 찍어 지상에 보내오면,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우주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위성은 워낙 거리가 머니까 수년째 지금도 날아가

고 있습니다.

우리 인체에 관한 과학 역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체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얼마나 세밀하게 되어 있는가를 과학은 날이 갈수록 입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컴퓨터가 희한해도 전기가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체가 아무리 복잡하고 세밀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피가 없으면 활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피의 작용은 참으로 신비하지만 아직 완전히 밝혀내지 못합니다. 이것보다 몇 십 배, 몇 백 배 세밀한 것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지구상에서 빛의 속도가 최고로 빠르다고 해도 성령의 속도와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차 말하지만, 주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요6:5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우리가 떡이나 포도주로 비유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는가? 그 내용에 따라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경하고 믿는 것이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입각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피의 영적인 의미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 깊이를 모르면 신앙은 수박 겉핥기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안찰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찰을 하는 당사자입니다. 성령은 물론 제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지만,(계5:6) 28년 동

안 저를 통해서 나가니까 심부름꾼인 저는 경험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든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피를 흘리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조상의 혈통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했습니다.(시51:5) 그래서 우리는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게 마련입니다. 죽으면 음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계6:8)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펼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요6:41) 하늘에 있던 존재가 지상에 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요14:6)는 겁니다. 그래서 당대에 주님의 가르침은 이단과 사이비로 몰렸던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제가 그 어떤 사명을 띠고 있어도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사이비요,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말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오늘날 그 말씀에 준해서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찰이 그겁니다.

제가 안찰을 할 때 눈에 손을 댑니다. 안찰은 뭐 눈에만 합니까? 머리카락, 가슴, 아무 데나 주의 종이 손을 대면 그게 다 안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눈에다 안찰을 하는가? 눈에는 우리의 신경이 가장 많이 모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눈에 내가 손을 대면 오장육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뇌신경을 심하게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체의 모든 기능을 조종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내보내면 이 피는 우리 몸의 곳곳을 누비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 조종하는 데가 바로 뇌입니다.

우리가 이가 아파 치료를 받을 때 신경을 마취해 버리면 아프지 않습니다. 아픔이 뇌에 전달되어야 아픔을 느끼는데 뇌에 전달이 안 되니까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마취입니다. 이 모든 아프다, 안 아프다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피가 돌면서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레 17:11) 인간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요즘 제가 말랑말랑한 노란 고구마를 보고 연유를 물었더니, 그게 호박에 접붙인 고구마라고 합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인류가 식물도 변화를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외부로부터 다른 생명의 요소가 들어가서 변화를 준 겁니다. 이런 변화는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유전인자의 조화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피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변화가 옵니다.

그럼 인간에게 주님의 피가 연결되면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이 안 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피의 원리입니다. 피에 의해서 인간의 생명체가 변합니다.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요6:53)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께서 축복의 원리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상 중에 안찰을 하는 제 손의 핏줄이 말갭게 들여다보이는데, 이 핏줄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주의 피가 나가는 게 보입니다. 주님이 이상 중에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하여 상대방에게 주입되는 것입니다. 이때 주의 종의 손에서 나간 것이 상대방의 그 많은 핏줄을 통해서 온몸에 퍼지는 겁니다. 그 느낌이 받는 사람의 심장으로 옵니다. 이것이 미약하게 올 때는 별 게 아닌데, 아주 강하게 오게 되면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울렁울렁한다든가, 메스껍다든가, 어지럽다든가 하는 증상을 느끼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일종의 스파크(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초창기에 안찰을 할 때, 여러분 중에는 의심도 하고, 불안을 느끼는 분도 계셨을 겁니다. 주의 종이 열 명만 안찰하여도 저녁때 집에 가면 몸이 막 쭈시고 아파 옵니다. 그것을 저는 수십 년 동안 체험해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씻기고 씻겨서 지금은 정지작업이 어지간히 되어, 따르는 사람과 주의 종 사이에 영적으로 유무상통이 되어 별로 부딪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눈에는 안 보여도 영적인 전쟁이 없습니까? 전쟁이 있는 겁니다.

주의 종한테 성령이 옵니다. 설교할 때도 오고, 안찰할 때도 오고, 일평생 같이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긴자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긴자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서 받아 가는 생수가 시체를 아름답고 부드럽게 변하게 하는 겁니다.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요7:39)

이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피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내용을 아셔야 합니다. 그야말로 구원의 핵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주님의 진액이 그 사람에게 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영의 생명의 모습은 판이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님이 저한테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감람나무의 소임에 대해 설명하실 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시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안찰을 하라 해서 안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손을 그냥 눈에만 댔습니다. 그런데 그 안찰을 받는 사람이 까무러치기도 합니다. 그에게 안찰을 받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까무러치니까 안찰을 하다가 놀랐습니다. 오해를 받아, 관계 기관에서 오라 가라 할 수도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여러분하고 호흡을 맞추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여러분은 남들에게 별소리도 다 듣고, 이렇게 부딪치고, 저렇게 시달리고, 때로는 잠도 못 주무시고 했을 겁니다. 상식을 벗어난 일은 어떤 말로도 정당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납득이 안 가는 얘기들입

니다. 하나님의 생명체가 실제로 인간에게 결합되어야만 합니다. 이때 유전인자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핏니다. 인간의 생명체는 ‘피’이기 때문입니다.(레17:11) 어머니의 피와 아버지의 피가 섞여서 만들어지는 생명체가 2세대입니다.

그럼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는 말씀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가 안찰할 때 누가 됐든, 주님의 피가 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성령으로 전달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상에서 하는 당사자가 아닙니까? 주께서 저에게 일을 하라고 맡겨 주신 겁니다. 그러니 저를 만나는 분은 누구의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 가는 생수가 귀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무엇 하러 나한테 물통을 가져옵니까?

여러분의 생명체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받은 겁니다. 지상의 것입니다. 그럼 지상의 것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늘의 것을 전달해 주는 종을 만나서 하늘의 것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이 부모에게서 받은 생명체가 그대로 있게 됩니까? 변화가 옵니다. 하늘에서 보내 주신 재료로 주님을 닮아 가는 변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상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

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주님은 “나보다 먼저 왔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방치할 것이냐? 방치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벰전4:6)라는 말씀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주님을 거쳐야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누가 또 입 증시켰느냐? 마태가 이상 중에 보니까, 주께서 부활하자 무덤이 열려, 하나님께 충성하던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광경을 보았습니다.(마27:52) 이걸 어디까지나 마태가 이상 중에 본 겁니다. 어떻게 구약 시대에 죽은 선지자의 영들이 그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주께서 부활 후에 음부에서 구해 내신 장면을 마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내가 훗날 독생자를 통하여 이리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 너희들은 나한테 오게 된다.”는 것을 이상 중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음부에 버림받지 않도록 내 영혼을 건져 주십시오.”(시16:10) 하고 간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이때를 보고자 했으나 못 봤고, 이 말을 듣고자 했으나 못 들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때를 보기 때문에 눈이 복이 있고, 이 말을 듣기 때문에 귀가 복이 있다.”(눅10:23)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보배로운 승리의 피를 흘리신 연고로 선지자의 영들을 하늘나라에 데려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흘린 피공로에 의해 하나님께서 생명체들을 거두어 갈 때,

마귀는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의 친지가 죽었을 때에도 여러분이 생수를 바르면 굳어 버린 시체가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빛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을 실제로 제압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도 받지 못하는 혜택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생수를 통해서 받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내 말이 의아하게 들리면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생수를 바른 시체가 그대로 있나, 변하나. 변한다면 그 생수가 상대방에게 혜택을 안 준 겁니까? 준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축복한 물질(생수)이 혜택을 준다면 직접 주의 종의 손길이 닿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주의 종의 귀증성을 아시기 바랍니다.

Chapter 05.

피의 은총에 대하여(2)



세상의 진리도 처음에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유전법칙을 발견한 멘델(오스트리아의 신부, 생물학자, 1822-1884)같은 사람도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억압을 받고 비난을 받기가 일쑤였습니다. 영적인 진리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요16:12)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들이게 된다.”(요 16:13) 그럼 이때 그 진리가 잘 먹히느냐? 안 먹힌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주의 종으로서는 대단히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의 영적인 의미를 논하기 위해 육적인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야만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종교적인 차원에서, 즉 신앙적인 차원에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논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자니까 엄청 힘이 드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얘기해야 하는가? 바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라야 영생한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을 신으로, 육을 육으로 설명한다면 간단한데, 신과 육이 결부되는 겁니다. 즉, 영생시키는 존재와 죽는 존재가 결부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령 미꾸라지를 유전공학에 의해서 변형시키면 뱀장어만 한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걱정도 합니다. 인간에게 변화를 주면 괴물도 만들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의 인간을 유전공학에 의해서 엄청 큰 사람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면서도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러한 존재가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 인간으로 있다가 신으로 돌아갔듯이 우리도 인간이지만 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생명체가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단지 막연하게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한다고 말할 때는 믿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명이 길다고 했습니다. 체격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신이 같이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이 같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같이할 때 육적으로 변화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이 육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육이 아니라 영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면 이로 말미암아 변하는 건 육체입니까, 영입니까? 영이 변하게 됩니다. 왜냐? 육체를 중요시하던 하나님이 이제는 영을 중요시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부딪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하고 논란이 일어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육에 관한 것이 아니다. 육은 무익하니라.”(요6:63) 그러면 주의 살과 피는 영의 생명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는 생명체에 그런 변화를 줄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 그 피와 살은 어떻게 만들어졌기에 인간에게 영생으로 연결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된 경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근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조상 아담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

리스도는 그렇게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훌륭한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중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세밀하게 지시를 받은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증거한 대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메시아가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말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된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동서고금을 통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는 기묘자요, 모사라.” (사9:6) 그 아들은 기묘한 존재요, 기적의 인물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언도 하고 기록도 했습니다.

다음에 미가는 그런 존재가 태어나는 지역을 말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는데(미5:2)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서는 메시아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은 바로 나를 가리키는 이야기다.” (요5:39) 메시아는 실제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 되는 그리스도

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길 예비자 세레 요한을 마지막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모든 성경에 기록된 강령과 율법은 세레 요한 때까지로 끝났다.”(마11:13, 22:40)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신은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이분이 신이요’ 하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현상으로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드러나야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신을 어떻게 압니까? 오늘날 심령과학도 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손에 잡혀야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비행접시 하나 가지고도 세계가 들끓고 있습니다. 있다는 둥, 없다는 둥, 거짓말이다, 진짜다, 뭐 별소리가 다 나옵니다. 사진에 찍히는 것 가지고도 있다 없다 난리인데, 보이지 않는 신을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받는 자밖에는 모른다는 겁니다.(요14:17)

여러분, 하나님이 처녀가 잉태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누구와 결혼해서 어떤 사람이 태어날 거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다, 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처녀가 아기를 낳게 되는데, 그 아기는 일반 아기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천사가 전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마1:20) 처녀는 신입니까? 사

람입니다. 그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못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말합니다. “엘리사벳이라는 친척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못 낳는 분이데, 지금 임신한 지 6개월이 됩니다.”(눅1:35) 이런 얘기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가브리엘이 통고한 대로 어느 날 처녀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는 누구 때문에 아기를 낳았습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신이 마리아와 함께하는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살과 피가 됩니까? 하나님의 신, 곧 생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실제로 임하는 것입니다.(요7:38-39) 이긴자인 주의 종은 바로 이것을 전해 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계21:6-7) 그리하여 여러분은 이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Chapter 06.

사후의 두 가지 유형



기독교는 인간의 근본 문제, 즉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죽음은 인간에게는 최대의 공포가 되지만, 또 최대의 평안도 됩니다.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평안을 주는 것이 곧 죽음입니다. 이 죽음 뒤에 오는 것이 무엇이나? 영의 세계입니다. 이 영의 세계를 너 나 할 것 없이 깨달아 알기 전에는 귀하게 보지 않고, 따라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다음의 세계, 즉 사후 세계에 대해 여러 가지 이론을 제기해도 그것은 한갓 꿈같은 얘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중에 연세가 많든지, 아니면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 왕왕 생깁니다. 그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아마 주의 종이란 얘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둠의 신에 속한 영들과 빛의 신에 속한 영들이 있습니다. 빛의 신에 의해 영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빛의 세계로 가고, 어둠의 신에 의해 영의 생명체가 만들어진 사람들은 어둠의 세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어둠의 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음부라고 합니다.(계20:13)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셨는데, 먼저 가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따라가겠다고 말하자,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하고 너희를 부르겠다.”(요14:2-3)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돌아가셨어도 생소한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전에 계셨던 곳으로 다시 가신 것뿐입니다. 주님은 본래 그곳에 계셨던 분입니다. 하늘의 존재였던 분이 이 땅에 오셨다가 되돌아가신 것뿐입니다.

주님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곳에 있다가 지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래 지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고, 우리는 지상에서 태어난 생명체입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태어난 생명체가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빛의 신이 됐든, 어둠의 신이 됐든 그 생명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이 80% 충만한 사람은 영의 세계에서 성령이 80%인 생

명체가 되고, 악령이 80% 충만한 사람이 죽으면 나이가 몇 살이든 악령이 80%인 생명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생명체는 나이가 별로 비중을 갖지 못합니다. 그 생명체에 무슨 신이 얼마나 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귀한 형상을 입으려면, 즉 주님을 많이 닮으려면 빛의 신, 곧 성령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어둠의 신인 악령을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형상은 어둠의 신에 가까워집니다. 인간의 영적 생명체는 이처럼 어느 신과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느냐에 따라서 형성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교통사고로 어머니와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 죽었다고 합시다.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어둠의 신을 많이 받고, 두 살 먹은 아이는 빛의 신을 좀 더 많이 받았다면, 그 나라에서 생명체로 태어날 때 아기는 빛에 가까운 영체가 만들어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반대로 어둠의 신을 많이 닮은 영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형상이 이처럼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지니 서로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영의 모습이 다르므로 가족이 자동적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살 먹은 꼬마하고 마흔 살 먹은 어떤 사람이 지닌 영의 비율이 엇비슷한 영체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두 살 먹은 아이나 마흔 살 먹은 영의 형체가 같아집니다. 이때는 두 살과 마흔 살의 구별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에서는 지상에서의 두 살짜리와 마흔 살짜리가 비슷한 형상을 지

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나이를 초월하여, 무슨 신이 그 사람에게 거하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 세계는 영이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오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낸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받게 되면 영원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여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있다.” 여건이 조성되어야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 주님이 떠나야만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어머니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수를 써서 그 혜택을 10% 받았다면 90%는 어둠의 신이 지배하고 10%는 빛의 신이 지배합니다. 이때 그 어머니는 90%가 어둠의 신의 형상을 갖게 되고, 10%는 빛의 신의 형상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 사람이 심판대 앞에 서면 90%는 어둠에 속하고 10%는 빛에 속한 것이 금방 드러납니다. 그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은 또 뭐냐?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육체는 피 때문에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곧 피라고 말합니다. (레17:11) 그리하여 빛의 신이 됐든, 어둠의 신이 됐든, 신은 인간의 핏속에 거합니다. 핏속에 들어가야만 뇌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리하여 뇌에 어둠의 신이 깃들면 어둠의 생각을 하고, 빛의 신이 깃들면 빛의 생각을 하게끔 그 신이 조종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신은 이런 작용을 합니다.

원자핵을 이용하여 폭발할 수 있는 힘을 만든 폭탄을 소위 원자탄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1980년대부터 연구한 폭탄이 있습니다. 중성자탄이 그것입니다. 원자에서 중성자를 빼냅니다. 중성자는 침투력이 강합니다. 그리하여 중성자가 뚫고 들어가는 힘이 더욱 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도 뚫고 들어가고, 탱크도 뚫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탱크에 중성자탄을 명중시키면 탱크는 가만히 있고 그 속에 탄 사람만 죽어 버립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원자는 이렇게 미세한 작용을 하는데 성령은 우리의 인체에 그보다 몇 백만 배도 더 미세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인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체가 다시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생명체냐? 소위 말해서 영의 생명체를 입는 겁니다.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시다. 그리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닮게 됩니다. 그런데 살아 있는 동안에 성령을 조금씩 받게 되면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전인자에 변화가 일어나지만 우리는 모르고 지냅니다. 그러나 무더기로 침투할 때에는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니까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이 365일 동안에 성령을 조금씩 받을 때에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모르는데, 3초나 4초 동안 한꺼번에 받으면 그 양이 워낙 많으니까 속에서 급속도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느

낌이 옵니다. 고통도 느끼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육체에 오는 겁니다. 이것이 안찰입니다. 이걸 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이해가 가는 거지, 제 삼자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덜컥 죽었다고 칩시다. 평상시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사람이 생수를 발라서 피어났다면, 그는 빛의 신을 많이 받아 빛의 신에 가까운 형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빛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이 빛의 세계로 가는 사람을 성서에는 세마포를 입었다고 합니다.(계19:8, 14) 빛을 소유하여 주의 형상을 많이 닮은 겁니다.

세마포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천사들이 입는 옷입니다.(단10:5, 12:6-7) 또 옛날 대제사장이 이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세마포로 된 옷은 영의 세계에서 제사장이 되는 자들, 즉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계19:8)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반대로 시커멓게 썩어 간다면 이 사람은 어둠 쪽으로 가게 됩니다. 빛으로 가라고 해도 못 갑니다. 그런데 가령 빛도 반, 어둠도 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생명체가 쪼개져서 갈 수는 없습니다. 빛은 완전하지 않으면 데려가지 않기 때문에 50%의 빛이 있다고 해도 자동적으로 어둠이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곧 나중에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고전15:13, 계20:15) 그러니까 장

차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둠이 없고 빛뿐인 사람은 어둠이 데려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사자들이 맞으러 오게 됩니다. 이게 신의 룰(규례)입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계에 가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빛의 세계로 가는 사람은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빛의 나라로 들어오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료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할 때, “너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이 시대에 나한테 올 수가 없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현재 저만 안찰하는 겁니다.

옛날 애굽에서 바로(왕)가 죽으면 육체가 다시 산다 해서 내장을 다 빼 버리고 바싹 마른 육신만 썩지 않게 약을 뿌려서 썩썩 묵어 놓은 게 미라 아닙니까? 그 미라가 살아나면 뭐할 겁니까? 영의 세계는 영이 가는 거지, 육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요6:63)

그렇다면 어둠이 80% 차지한 사람이 죽어서 음부로 갔을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의 20%는 어둠에 잘 적응을 못하지만, 나머지 80%는 어둠에 잘 적응합니다. 100% 어둠이 차지한 사람은 100% 어둠에 잘 적응하고 빛을 싫어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 잘살고, 잘 지낸다면 그들은 그 세계가 망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바라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데 왜 망하길 바라겠습니까? 이때 빛이 와서 어둠을 부수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한테는 빛이 원수입니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여서 빛에 대항하게 됩니다.

반대로 빛 가운데서 살아야 만족하는 사람은 빛을 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빛과 어둠은 싸웁니다. 엄청난 수의 어둠의 자녀들과 적은 수의 빛의 자녀가 싸우는 것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인 자기 친척이나 친구와도 싸워야 하는 생명체가 된 겁니다. 영의 세계는 그렇게 갈라집니다.

여러분, 빛의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군병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14만 4천 명이라고 못 박아 놓았습니다.(계14:1) 오늘날 여러분은 그 멤버에 들어가고자, 소위 십자가의 군병이 되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둠의 신이 주관하여 시체가 뿔뿔이 굳어 버립니다. 목도 굳어 버리고 팔도 굳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어 버린 시체는 어둠이 주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생수를 발라서 퍼졌다면, 그 사람이 영의 세계에 갔을 때 빛은 몇 %, 어둠은 몇 %의 생명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은 80%, 빛은 20%밖에 없다면 거기에 알맞은 세계에 살게 됩니다. 신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빛을 가진 사람은 그야말로 영광의 세계에 살지만, 그 사람이 50%는 빛을 가졌고 50%는 어둠을 가졌다면, 50%의 빛과 50%의 어둠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늘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영들이 사는 세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단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신에게 지배를 받던 사람들을 혼내는 것은 빛의 신인 하나님이지, 어둠의 신인 마귀가 아닙니다. 마귀가 자기편에게 왜 형벌을 줍니까? 일반 사람은 죽어서 바로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을 거쳐 벌을 내릴 때의 일입니다.

이상 중에 주의 종이 음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음부는 우리가 말하는 지옥이 아니고, 바로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이 음부를 지나서 천국, 소위 하나님의 세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세계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아니면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신의 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만났기 때문에, 살아 있으면서 사후의 세계를 다소나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생수를 발라 놓고 10분쯤 기다리면 시체가 변합니다. 왜 변합니까? 생수가 변화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 못하는 송장이 것처럼 변하는데, 살아서 열심히 믿는 여러분에게 안찰을 하여 주의 종의 손길이 닿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조건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그건 여러분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누차 말했지만 제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성령)으로 되는 겁니다.(속4:6)

Chapter 07.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셔서 탄생되는 생명체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태어나는 생명체는 크게 다릅니다. 양자 사이에는 격차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칩니다. 창세기를 지금 우리만 읽습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신자들이 다 읽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대해 깊이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재와 사람의 딸들이라는 존재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창6:2-3)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창6: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가까이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과 함께하시지 않고 떠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태어나는 자식을 용사들, 즉 장수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장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만 명이 사는데 그 백만 명이 다 장수라면 용사라는 말이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누가 힘이 월등히 세어야 그 사람을 용사라고 합니다. 누구나 똑같다면 용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끌어가는 사람이 용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이 그 역할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다 용사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가까이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냐? 성경에 기록된 969세까지도 살았던 므두셀라와 같은 사람들, 이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들의 족보만 나와 있지, 생활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후손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는 인간의 후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성령)이 다시는 함께하지 않겠다 해서 떠난 다음에 태어난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떠나기 전에 살던 사람하고 우리가 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신의 섭리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들은 메소포타미아(수메르-이라크) 문명 시대, 상형문자를 사용할 때의 인간에 대해서입니다. 그 지역을 시발로 해서 사람들은 지구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의 시작이 6천 년 전이라면, 6천 년 이전에는 인류의 흔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출토되는 유물들은 2만 년 전, 3만 년 전의 것들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답변할 거냐 이겁니다. 이 정도로 밝혀내는 시대가 됐으니, 성서도 과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작정 따르라는 것은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게 안 통합니다. 거부반응만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사실을 상세히 밝혀 성서의 기사가 옳다는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걸 주의 종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에덴동산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최초로 교류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리하여 성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인류 문명의 역사와 대조해 보면 성경의 시기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과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해석을 올바르게 하게 되면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인류의 생활과 성서 문명의 기원이 다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

니다. 성서 문명은 6천 년 전에 시작되고, 인류의 생활은 수만 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어떻게 교류하기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내려왔으며, 현재는 왜 이렇게 교류하시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시대에 어떻게 했든, 그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당면한 과제인데, 모세가 아무리 위대했으면 뭐하고, 엘리야가 아무리 신령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지금 우리를 살려줄 겁니까? 그들이 여러분한테 안찰하러 올 겁니까?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보자, 구원받아 보자, 막연하게 이런다고 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그 이유를 따져 봅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붙였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떠나셨느냐 하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였기 때문입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이나 하나님이 가까이 지내다가 땅에서 죽게 하지 않고 데려가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창5:23) 이렇게 같은 인간인데 우리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은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사람은 물위로 걷지 못했는데 주님은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

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입김이 있었습니다. 성서에는 인류의 시작부터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에는 우리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러저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긴자라는 말은 간단하게 아닙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기는 자에 대한 일곱 가지 특례를 열거할 때, 반드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단서가 뒤따릅니다.(계2:7 등) 주께서 할 일이 없어서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줄 압니까? 이긴자는 그만큼 어려운 사명을 지니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호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가까이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그럼 떠나셨던 하나님의 신이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누구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하나님의 신이 오시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고 칭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계14:14, 21:7) 누구의 신이 같이하겠다고 겁니까?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의 섭리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재주를 부려도, 신의 세계에 당장은 갈 수도 없고,

그 세계를 추측도 못 합니다. 우리는 신의 손에 이끌려서 가게 되면 다행이고, 버림을 받으면 그만입니다. 발버둥 친다고 됩니까? 문제는 신의 섭리가 어떤 것이고, 나 자신이 신의 섭리에 어떻게 관련되고 어떻게 유대를 갖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관이 없이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고 주님이 정해 놓으신 겁니다. 왜 주님의 살과 피와 연관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는가?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축복하여 그야말로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신이 같이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장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하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의 교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육으로 돌아갔으니, 떠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창 6:3)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이제 육체적인 여자들하고 향락을 누리니까 나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를 받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 그 자식들이 용사들이었고, 이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죄악에 빠지게 되었습니다.(창6:4) 이렇게 되니,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교류가 잘 됩니까? 안됩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을 되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사람을 놓고 교류하시던 하나님인데 사람에게서 떠났

으니, 다른 사람이 있어야 교류를 다시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이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의 신(성령)이 교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메시아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과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였습니다. 이제 메시아가 옛날의 그들처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만 교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신은 사람과 영원히 함께할 수 없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하실 수는 없습니다. 다시 함께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다시 함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하고 교류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내는데 필요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요14:6)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교류를 무엇으로 하시는가? 주님의 살과 피로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하리라.”(요6:56)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나와 하나가 되리라.”(요17:11)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Part 02.

진리의 성령에 인도되어



8.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 · 9. 하나님의 초토화 작전 · 10.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가? · 11. 기독교의 진수 · 12.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가? · 13. 하나님께 왜 비밀이 있어야 하는가(1) · 14. 하나님께 왜 비밀이 있어야 하는가(2)

Chapter 08.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역사



인간은 성경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 2:24) 하고 말씀하신 대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갑니다.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부부가 가장 가깝고, 가족이 한 울타리를 형성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도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드님인 예수님과 혼인 기약이 이르러 구속을 얻은 14만 4천 명의 며느리와, 심판 받아 구원 얻은 많은 무리가 모여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계14:1, 20:12)

지구상에서도 가족들이 호적에 오릅니다. 한 집안이 아니면 같은 호적에 오르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비유의 말씀이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들이라는 말씀(계 20:15)이 맥을 같이하는 겁니다. 생명책에 녹명됐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호적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가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은 한 지붕 밑에 살면서 수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 곧 왕이 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리니”(시 17:15, 계22:4) 하고 기록했습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녹명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수시로 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아내들이 예비하였으니”(계19:7)라고, 요한 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비한 풍경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계21:2) 그 새 예루살렘 성은 기초석이 열두 제자들로 이루어지고,(계21:14) 열두 지파가 형성되어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편성된다고 하였습니다.(계7:4, 21:12)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히8:13) 야곱의 열두 아들로 구성된 열두 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올리던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말하고, 그 국가는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뭐냐? 야곱이 압박 강가에서 천사와 환도뼈가 휘도록 대결하여 항복을 받아낸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신 명칭입니다. 이상 중에 천사가 야곱에게 “네가 이겼기 때문에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주겠다.”(창32:28)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리를 뜻합니다. 그의 본명은 야곱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지파로 형성되므로, 야곱이 죽을 때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열두 지파에 속하는 아들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창49:1 이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축복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려 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전에도 말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원주민을 다 멸하고, 이들이 섬기는 바알의 신당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최고로 적수가 되는 신을 작살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 열두 지파로 형성되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육적으로 인간들을 통하여 영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광경을 그림자로 나타낸 겁니다.

이와 같이 첫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입니다. 첫 언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 피가 있었고, 새 언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 피가 있습니다. 첫 언약의 피는 짐승의 것이고, 새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피는 영의 생명체이든 육의 생명체이든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어느 정도 사함을 받았고,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사함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비유합니다. 어린 양

은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습니다.(히9:22)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기에 인간의 허물을 피로써 용서를 해 주시는가를 알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양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가인은 곡식을 제물로 드려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보다 아벨의 제사를 기꺼이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이것을 알고 시기하여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 쪽과 제사를 받지 않으신 쪽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리하여 제사가 상달되는 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제사가 상달되지 않는 쪽은 하나님께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가인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살인이 빚어졌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때 죽는 쪽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이고, 죽이는 쪽은 제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사가 상달되는 측은 상달되지 않는 측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것으로 끝났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집니다.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산제사로 상달 되었습니다. 즉,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력이 강했던 겁니다.(창 4:10, 히12:24 참고) 가인도 정성껏 제사를 드린 겁니다. 아벨도 물론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쪽 제사를 다 받으시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한쪽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상달되지 못한 쪽은 화가 나서 상달된 쪽을 죽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마10:34) 검은 싸울 때 쓰는 무기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득을 위해서는 인간에게 어떤 손실이 일어나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유리하면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되든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의 귀에 거슬릴 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될 겁니다.

하나님 측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말 상대로 지으셨다면 당신의 형상대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실 때에는 계산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계산 아래 인간을 지으신 것을 ‘만세 전에 정하신 뜻’(고전2:7)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성경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조건 없이 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언제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계산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안 지은 것만 못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람을 지었던고,” (창6:6) 하고 한탄하셨다면 하나님께 이득이 온 겁니까, 손해가 온 겁니까? 뻔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은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계산이 있었다는 것, 즉 뭔가를 계획하셨다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홍수로 멸하기 전에는 인간을 지으신 것에 만족하셨습니다. 첫째 날이 어땠고, 둘째 날이 어땠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1:31) 하나님은 처음에 만족하셨는데, 나중에는 한탄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손길을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쟁취하고자 하셨다면, 하나님은 한탄하신 일을 만회하시려고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적당히 들을 얘기가 못됩니다.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필요로 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맞지 않아서, “에잇, 모르겠다.” 하고 인간을 동댕이쳤다면 벌을 받든,

어떻게 되든, 그것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나 한탄하셨던 상황을 복귀하시려고, 다시 인간을 상대하여 곁에 두려고 하신다면, 그 곁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 드려야 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끌려가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택하려 하시고, 대화를 하려고 하실 때에는 인간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이 아쉬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하나님의 깊은 뜻이 반영될 수가 없는 겁니다. 10억이 모여도 전부 하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이 필요로 하는 여건을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인간을 요구하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자기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여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씀이 내려오는 이유는, 누구에게 유리한 여건을 만들자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유리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전들 그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명을 맡아 지시를 받았고, 일을 시키시려고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면 모세 때 애굽 땅에서 그런 대로 먹고사는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광야로 끌어냅니까? 하란에서 유지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 거

기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따른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이득을 위해 아브라함을 쓰시는 겁니다.

제가 감람나무 역사를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 자기 생각대로 목회를 한다면 저는 감람나무 운운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교회처럼 선교 활동을 할 겁니다. 왜? 감람나무는 인기가 없으니까. 훌륭한 말을 백만 마디 해 봤자 감람나무 기치 아래서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잘 압니다. 인기 없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장사가 안 되는데. 힘들고 피곤한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역대의 어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가 요나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거절했습니다. 험악한 도성이라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애굽 바로에게 가라니까, 자기가 살인하고 도망친 처지라 가면 붙들려서 살인범으로 죽게 될지 모르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핑계를 대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가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청년 시절에 소위 예수쟁이 사냥을 위해 칼자루를 휘두르던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거꾸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만날 굶고, 감옥에나 끌려가 얻어맞았습니다. 신을 만나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제가 청량리에서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지금으로부터 2천 5백 년 전에 내 젊은 종 스가랴에게 한 말이 네 시대에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누차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수천 년간 바뀌었지만 신은 그 신이다 그 겁니다.

감람나무에 대해서는 2천 5백 년 전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했습니다.(슥4:3-14)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감람나무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비로소 감람나무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 이는 주 앞에서 있는 두 감람나무니라.”(계11:3-4) 하고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질 때에는 하나님께 뜻이 따로 있는 겁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군병을 단시일에 배출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이런 요구를 하시는지 당사자인 저는 압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종은 심부름꾼입니다. 주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 종입니다. 지시 받지 않은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주인이 “이거 하게.” 하고 지시를 내리면 그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은 그 주인과 가까워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지시를 받는 사람이라야 주인의 의중을 알게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중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선지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밝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종 선지자들에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는다.”(암 3:7) 이 경우에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지시의 내용을 감당할 수 있게 적당한 재료를 주셔야 됩니다. 재료를 주시지 않으면 지시를 이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갖고 일을 마치면 이러저러한 것을 상으로 주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에 의해 전개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을 때 피로 맺었습니다. 남자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자를 때 피가 나옵니다. 그 피로 언약을 맺자 이겁니다.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레17:11) 주님은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6:55)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다.”(계5:9)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피의 형제입니다. 안찰을 받으면 주의 피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주의 피는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겁니다.

Chapter 09.

하나님의 초토화 작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인간을 통하여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에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지시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모세가 미리 다녀 보던 땅이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잠깐 거쳐 간 곳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민족을 모조리 죽이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신20:16)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해야 할 일은 가나안 민족을 몰살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인정사정을 두지 말고 씨를 말려라, 초토화시켜라 이겁니다.(신13:15-16)

월남 전쟁 때 미국 사람들이 전쟁하는 중에 가장 어려웠던 것이 초토화 작전이었습니다. 6.25동란 때도 미군들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산악전, 그러니까 산을 타고 다니는

전쟁을 잘 못합니다. 산을 넘나들면서 싸우는 것은 재래식 무기가 유리하지, 신형 무기는 별로 맥을 못 씁니다. 탱크 같은 것은 산을 넘나들기가 어렵습니다. 6.25동란 때 미군들이 빨치산한테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강원도 철원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빨치산들이 전쟁하는 광경을 어린 나이에 보았습니다. 미군들이 총을 들고 다가오면 인민군이 숲 속에 엎드려 있다가 일제히 사격합니다. 미군은 당시에 기관단총을 사용했는데, 빨치산은 ‘따따따따’ 하는 소련제 따발총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인민군이 풀숲에 숨어 있으면 미군들이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덩치가 커서 얼마나 쏘아 맞추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저들은 미군을 쏘아 죽인 다음에 손목시계도 빼앗아 가고, 신분증도 가져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전쟁을 겪어본 미군이 월남 전쟁을 했습니다. 월남은 아시다시피 밀림 지대입니다. 베트남들이 땅속에서 언제 불쑥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많은 미군을 침투시켜도 베트남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군들이 생각해 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초토화 작전입니다. 가령 어느 한 지역을 반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하면 적군이든 양민이든 가리지 말고 전부 멸망시켜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지역이 작전 구역으로 정해지면, 거기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쥐새끼 한 마리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것을 초토화 작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전쟁처럼 어느 한 민족을 아주 없애 버리는 전쟁은 인류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전쟁을 비참하게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민족 자체를 없애 버려라, 씨를 말려라 이겁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왜 그렇게 지시하시는가를 모릅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할 일이 못됩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얻어맞습니다.(삿2:21) 일반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겠느냐 이겁니다. 이해 못 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만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가나안 민족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보다 생활 수준이 앞서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바알을 섬기면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쳐들어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라는 남의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들에게는 자기 나라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유목민입니다. 이 민족이 번성하니 애굽 왕 바로가 경계합니다. 그리하여 애굽을 탈출합니다. 목표가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각본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 당시에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바알 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 땅에는 바알 신이 그 주

민들의 영광을 혼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알 신을 작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라는 이름의 창조주가 지상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알 신을 멸하기로 결심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동기가 그겁니다. 그리하여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길러, 뜻을 이루고자 모세를 세우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민족을 멸하시려는 의도를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셨습니다.(창15:13-16) 이때 그들을 멸하시려는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기 위해 가나안 민족을 벌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한 민족으로 택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한 민족의 죄를 책망하시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죄의 근원인 마귀를 멸망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영의 세계에서 있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시겠다는 것입니다.(계16:16) 가나안 전쟁은 그 아마겟돈 전쟁의 그림자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씨를 말리라는 것도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 세력을 전멸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계19:21, 20:9)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한 대로, 가나안 민족을 멸하기 위해 너를 들어 쓰겠다.”(출3:10) 그러나 모세는 자세한 내막을 몰랐습니다. 당시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를 드러내실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민족을 향해 쳐들어갑니다. 그 중간에 거추장스러운 소수 민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족들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쳐들어가면서 그 중간에 노략한 곡식을 먹고, 여자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도 하나님은 묵인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원주민의 씨를 말려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뜻을 거기에 두셨으니까.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강조하신 겁니다. “모세야, 너희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쥐새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신20:16-18) 이걸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프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를 내세워 버림을 받았습니다.(민20:10-12)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배턴이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강조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내가 모세에게 함께했듯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세가 하던 일을 그대로 해야 해.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을 한 사람도 살리면 안 돼.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너는 그걸 실천해야 해.” 이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임금들을 정복합니다. 그때는 부족사회니까 임금이라야 군데군데 서 있는 성

주들입니다. 어쨌든 이들을 다 정복하고 노략한 물질도 갖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이때 가장 견고한 보루가 그 유명한 여리고성입니다. 이 성은 워낙 견고하니까 여호와께서 직접 관여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한 주일 만에 맨손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생활 터전을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만나가 딱 끊겼습니다.(수5:12) 이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속아서,(수9:15-16) 또 요셉 족속은 그 땅의 정보를 얻는 대가로 한 가족을 살려 주었습니다.(삿1:22-26) 또한 그들이 강해서 다 쫓아내지 못했으며(삿1:19) 므낫세도 그 땅 거민이 강하여 다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삿1:27-36)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고 보니,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모조리 죽이고 없애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수백 년 동안 자식처럼 길렀는데, 이제 와서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들의 형편에 맞도록 일을 처리했어.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한 이상 나도 너희 민족을 괴롭히도록 그들을 남겨 두겠다.”(삿2:2-3, 2:21 참조) 해서 오늘날까지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부터 바알을 제거해야겠다고 계

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궁극적인 목적은 밤낮으로 대적하는 어둠의 신을 완전히 소탕하여 새 나라와 새 땅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지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오늘 날 하나님의 우편에서 사단이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단을 발등상 시키려면 14만 4천 명의 십자가의 군병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그 정지작업을 지상에서 조속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를 모신 이긴자 감람나무를 필요로 하신 겁니다. 그 두 감람나무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앞선 감람나무가 무참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쓰러진 앞선 역사를 다시 세우라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역사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이어받아라.” 이처럼 감람나무 역사는 하늘의 섭리 안에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모세야,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을 네가 시행해야 돼. 알았느냐?”, “예,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안 하려고 발버둥을 쳐도 소용없습니다. 모세는 처음에 꿈무니를 뺐습니다.

“전 못합니다. 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네 이놈, 입을 누가 지었느냐?”

“바로가 두려워서 어떻게 갑니까?”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던져 봐.” 해서 던지니, 뱀이 되었습니다.

“다시 잡아 봐.” 해서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능력이 너와 함께할 거야. 가 봐.” 하신 겁니다.

“그 생수를 썩은 송장에게 발라 봐. 시체가 변할 테니까.” 하고 하나님 이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시체가 변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산속에다 제가 건축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께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은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거나, 인격이 고귀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권위 있는 자들이 모이는 교회라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안에서 해 나가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섭리에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이걸로 되는 거지 사람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도 끌려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고 싶어 하고,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속된 말로 팔자소관입니다. 요나의 경우를 보십시오. “요나야, 너 니스웨 성으로 가서 이렇게 해.” 요나는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변을 일으켜 니스웨 성으로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 신의 섭리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너는 이곳을 상대로 이렇게 해.” 하

시면 그대로 합니다. 애들 소꿉장난 같습니다. 하다가 힘이 들어 피를 부리려고 하면,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감동도 주시고, 때로는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끌려갑니다.

‘네 직분 배반하면 망할 줄 알라.’ 하고 찬송가에도 나오지만, 이것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배반 못하게 하는 겁니다. 나와 여러분은 이 섭리 안에 꼼짝없이 끌려든 겁니다. “해.”, “알았습니다.” 하다가 싫어서 그만두려고 하면 “좋아, 뒤통수를 쳐 버릴 테야.”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추운 감옥에서 쪼그리고 잠자는 저한테, 이상 중에 “앞으로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건축해야 돼.” 하신 겁니다.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 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고생주머니가 터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순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자체가 선이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Chapter 10.

아담은 인류의 조상인가?



오늘날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 성서의 말씀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학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문제의 하나는 창조와 진화 사이의 논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지어졌다는 주장에 반하여, 인간은 아메바가 진화하여 되었다는 주장이 그것입니다. 그리하여 신앙적인 측면과 과학적인 측면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다른 데로 유리방황하게 됩니다. 이때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다른 데 가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창4:14) 하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는 자는 7배나 강한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가

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표를 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창4:15)

지구상에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모두 합쳐서 네 명밖에 없었을 텐데, 가인은 다른데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까 봐 무서워했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인을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맞아 죽지 않도록 표를 해 주시며, 만일 가인을 해치는 자가 있으면 일곱 배나 보복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를 지었다고 했는데, 그 우주는 과학이 발달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낮과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은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태초부터 태양계를 지었다고 하지 않고 우주를 지었다고 하셨는가? 인지가 발달하지 못하여 방대한 우주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한 지 2년 내지 3년 되는 무렵에, 아현동 교회에서 지금부터 6천 년 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하나님은 당신과 교류하는 아담을 인간의 조상으로 삼아 성경에 기록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교회에서 들으면 성경에 없는 얘기라고 반박할지 모르기 때문에 반증을 제기하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은 지구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0년 전에 인간을 달나라에 내려놓는 광경을 텔레

비전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정도의 과학이면 대단한 겁니다. 천문학자가 망원경을 가지고 혜성들이 목성에 부딪히는 광경을 포착하여 시간이 얼마 지나면 부딪친다는 것을 지구에서 정확하게 측량해 냈습니다. 그것이 2초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혜성이 폭발하는 광경을 사진으로 찍고, 지구 하나가 들어가기도 남을 분화구가 생기는 것을 텔레비전에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정도로 발달한 과학이라면 불과 6천 년 전에 있었던 성서의 역사는 오늘날 밝혀내고도 남습니다.

창세기는 지금부터 약 6천 년 전에 하나님과 인간이 교류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가 등장한 것이 오래 되었어도, 인지가 발달한 것은 얼마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은 인간과 그렇게 일찍 교류한 것이 아닙니다. 6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인물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이 아담은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아담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 하나님이 교류하신 최초의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당시 지상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의 자손으로, 즉 하나님이 기억하고 함께하는 백성입니다.

가인, 아벨의 부모, 아담과 하와는 6천 년 전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시초가 6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연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 후손들이 쪽 나옵니다. 이들의 나이를 계산해 보자 이겁니

다. 그 시대에 성서에 등장한 인물들은 대다수가 9백 살을 더 살았습니다. 지금은 3만 년 전, 심지어는 10만 년 전에 살았던 인간의 뼈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분석해 보면 몇 살에 죽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의 과학입니다.

그런데 성서에 6천 년 전에 9백 살도 살고, 8백 살도 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학에 의하면 2만 년 전에도 백 살을 넘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즉 과학적인 것을 구분 짓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주관부터 실제 우주와 다릅니다. 성경에는 우주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태양계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우주 안에서 태양계는 사람 몸에 비하면 눈곱에 불과한 겁니다. 우주는 상상이 안 되는 크기입니다. 과학이 지금 그것을 밝혀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인공위성이 명왕성에 가고 있는 중입니다. 1초에 30리의 속도니까 딸깍할 때 30리를 갑니다.

우리가 “여보십시오.” 하면 우리 소리는 1초에 340미터밖에 못 갑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1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도 8분 20초 걸려서 태양의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따듯하다고 느낄 때 8분 20초 전에 태양열을 발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8분 20초 후에 우리에게 닿기 때문에 우리가 따듯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과학이 이만큼 발달하여 지구의 나이를 대충 밝혀내고 있는 시대

에 인간의 기원을 밝혀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9백 살 이상 산 사람들은 누구까요? 2만 년 전 사람을 계산해 봐도 120세 살면 많이 산 건데, 어떻게 9백 살을 살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과학과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왜 안 맞는가? 하나님은 인간의 기원을 6천 년으로 잡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시대에 살았던 인간들도 6천 년 전으로 앞당겨서 언급하신 겁니다.

아담, 하와가 가인을 낳았습니다. 가인을 낳은 어머니인 하와는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인을 얻었다.” (창4:1)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혜택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인만 하나님의 혜택을 입었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의 특명에 의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천사가 늙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리라고 미리 말했더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지 않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니 당사자들이 웃었던 겁니다. 그래도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가 없는 시대에 일어난 일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일일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쓸아 둘 곳이 없을 거다.” (요21:25) 주님의 3년간의 행적도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좀 보태서 한 얘기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은 오직 하나님과 교류한 내용입니다. 아

담이 살던 시대는 아담의 시대이고, 그 후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어 이삭의 시대가 오고, 이삭이 죽은 다음에는 야곱의 시대가 옵니다. 야곱이 죽은 다음에 요셉의 시대가 오고, 요셉이 죽은 후에 모세 시대가 옵니다. 메시아 시대가 있고 세례 요한 시대가 있고, 사도 시대가 있고 감람나무 시대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때그때의 인물 위주로 이렇게 시대가 구분됩니다.

성경에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농사를 짓게 된 것은 첫 사람 아담, 하와처럼 열매를 따먹고 살던 시대로부터 엄청난 세월이 흐르고 문명이 발달해야 가능합니다. 또 양을 칠 정도면 가축을 기르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으니 가인, 아벨의 부모, 아담, 하와는 인간이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시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무렵부터 성경에 당신의 행적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 무렵부터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에는 인간이 미개하여 하나님이 상대하지 않은 겁니다. 가인이 동생을 때려죽이고 하나님이 문책하자, “저는 모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하여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시치미를 떼느냐?” 아벨을 때려죽인 가인이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는, “나는 이제 여기서 못 살고 방랑자의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때려죽일 겁니다.”(창4:14)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이 방랑할 때 생활한 곳은 어디냐 이겁니다. 그리

고 가인이 방랑자로 생활하는 곳으로 갔을 때, 가인을 때려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지구상에는 아담, 하와, 가인, 아벨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의 시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여러 시대를 거쳐, 지금은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분이십니다. 아담이 살던 시대나, 노아가 살던 시대, 그리고 모세가 살던 시대에 지구상에 다른 민족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거나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건 200년쯤 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백성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입니다. 2천 년 전에 지상에 온 예수를 한국은 불과 200년 전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할 때, 다른 사람들이 뭘 알았겠습니까? 그 교류를 위주로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하나님과 교류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교류는 약 6천 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모세 시대로 내려가 살펴봅시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어낼 때, 사흘 동안 먹을 양식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아무 준비도 없었습니다. 옷도 입은 그대로였습니다. 급하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 옷이 평생 낡거나 해지지 않습니

다.(신29:5) 오늘의 나일론보다 더 질긴 겁니다. 한 벌을 가지고 평생을 입었습니다. 음식은 또 어떠냐? 하늘에서 매일 음식(만나)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먹여 살리셨습니다. 40년 간 농사를 안 짓고도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전도가 많이 되어서 천만의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훌륭한 말씀을 전하기 위해 4부제, 5부제까지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는 이 마당에, 많지도 않은 수를 모아 놓고 사이비다, 이단이다 하는 말을 듣는 처지에 있는 우리 역사에서 성경의 깊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기독교계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가운데 바울의 신학에 의해 체계가 심어져서 오늘날까지 자리를 잡은 이 마당에, 엉뚱한 곳에서 예기치 않던 얘기가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귀에 거슬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얘기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서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성서를 떠난 진리란 있을 수 없고, 성서를 왜곡한 진리도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해도 그 이면의 깊은 사정을 모르는 분들의 귀에는 좀처럼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에 기록된 얘기를 읽어 드렸

습니다. 그건 혹시라도 이다음에 내 설교를 테이프를 듣거나 설교 집을 읽는 분에게 성경 구절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설교를 하면 허황된 얘기로 들리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나는 앞에서 우주관이 태양계에 국한되어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의 얘기를 하려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우주를 태양계로 국한시켜 기록했는가? 태양계는 성경이 기록될 무렵에는 이해시키기에 너무나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되어 우주 안에 있는 태양계에 대해 이해가 가지만, 옛날 예수님 시대만 해도 지구는 넓어서 끝에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하늘은 지구를 덮고 있는 천장과 같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 의해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이 오늘날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여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는 마당에는 그 차이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에덴동산이 있다는 장소를 찾아다녔으나 못 찾았습니다. 성경에 에덴동산의 강 이름까지 나와 있으니, 그 강이 흐르고 있는 나라를 찾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저 메소포타미아의 이라크라는 나라에 가서 아무리 찾아도 에덴동산의 흔적은 없습니다. 모세가 걸어간 발자취는 찾으려 나오는데,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은 없습니다. 모세 때하고 아담, 하와

때는 차이가 얼마나? 약 2천 몇 백 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못 찾습니다.

과학은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의 일까지도 알아냅니다. 그런데 모세 때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과학이, 그보다 2천여 년 앞섰다고 해서 아담, 하와가 살던 곳을 찾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찾아내지 못합니다. 왜냐? 성서는 인류가 6천 년 전에 나타났다고 했고, 과학은 수백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독교와 과학이 부딪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을 주장하고 과학은 진화론을 주장합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원숭이나 고릴라에서부터 변모되었다고 하지만, 창조론은 하나님이 현재 우리와 같은 아담, 하와를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인간의 조상은 아담, 하와가 맞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아담, 하와는 창세기 4장에 나온 아담, 하와가 아니고, 오랜 옛날에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는 엄청난 내용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도 그 깊은 차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담,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 하나님이 하와를 도와주었다고 했습니다.(창4:1)

오늘날 과학이 크게 발달했는데도 아기를 낳을 때 무서워합니

다. 우리 어머니는 일곱 명의 아들딸을 낳았습니다. 나를 두 번째로 낳았는데, 형을 낳을 때보다는 겁이 덜 났을 겁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막내를 낳을 때는 안심하고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서 얘기대로라면, 하와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기를 낳은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겪도록 저주를 내리셨는데, 하와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인을 낳았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여자가 아기를 낳을 때 남편의 머리를 잡고 놓지 않아 남편의 머리가 다 빠져 버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금방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 후유증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산모는 한동안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너는 앞으로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세계와, 가인이 유리방황하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살던 세계하고, 가인이 쫓겨나서 유리방황하는 세계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겁니다. 누구나 알아보십시오. 세상에는 유명한 선교사들도 많고, 저명한 신학자들이 쓴 책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답을 가져와 보십시오. 성경에는 ‘흰 돌’을 받은 자밖에는 그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을 모른다고 했습니다.(계2:17) 이긴자의 증거가 이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경우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인도하는 백성들, 즉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힘으로 식량을 구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 양식을 ‘만나’라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번도 아닙니다. 만나로 백만이 넘는 수를 40년 동안 먹여 살렸습니다. 이건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즉 공짜 양식을 하늘에서 얻어먹고 있을 때,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살아왔느냐? 땀 흘리고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힘들게 농사를 지어 그 곡식으로 살아갑니다. 같은 인간인데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는 방법하고, 다른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다스리는 시대와 다른 인간들이 사는 시대가 구분됩니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삼을 파서 목을 축이지도 않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솟어나게 했고,(출17:6) 쓴 물을 달게 만들어서 마시게 했습니다.(출15:25) 단벌옷을 평생 낚지 않게 보호해 주신 하나님입니다.(신29:5)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하고 같습니까? 전혀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이 경우에 이 사실을 당사자들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감람나무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나 감람나무를 알지, 세상 사람들이 압니까? 하나님은 아무하고나 교류를 하시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하고 교류하셨지, 수많은 인간들과 교류하신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곳에 사는 자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께 말하자, “아니야, 너를 해치는 놈은 내가 일곱 배나 혼내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창 4:15)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걸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거기 의문이 가지만,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목사님들도 ‘어떻게 사람들이 또 있다고 했나?’ 하고 이상하게 여겨도 건드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목사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종들을 선지자라고 하는데, 성서에서 최초의 선지자는 누가 됩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의 아내는 하와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해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교류를 시작할 적에 최초의 인물이 누구냐?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은 그 아내 되는 하와를 직접 도와서 순산하게 했습니다. 이때 다른 곳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네 식구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네 식구를 통해 태어나는 사람들은 천 년 가까이 삽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사람들은 살아 봤자 100년이 지나면 죽습니다. 사는 방법이 같습니까? 지구상에는 전혀 다른 두 세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그걸 입증시켜야 합니다. 성경에 하와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인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에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이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과일을 따먹고 영생말까 봐 못 들어오게 화염검으로 지켰습니다.(창3:24) 아담, 하와가 범 죄하여 쫓겨나서 태어난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어찌고 하실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것을 설명하자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것은 감춰진 섭리에서 빙산의 일각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 하와가 생존한 것은 6천년 전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과학적으로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성서에 나와 있는 아담, 하와라는 인물은 하나님이 당시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최초의 종입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의 종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때 다 죽었습니다.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계속 인간과 교류하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 때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는데 가인 말고 사람이 없었습니까? 분명히 인간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아담, 하와가 인간의 조상으로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중간을 생략하고 앞뒤를

연결하여 말씀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아담, 하와의 이름을 붙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들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맞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가인 당시에 다른 곳에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여 함께하셨던 인물에게 아담, 하와라는 이름을 붙여 주신 겁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이 그 아담, 하와는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엔 우주를 우주로 표시하지 못하고 태양계로 표시했다고. 성경에 인간이 알기 쉽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는 그렇게 표현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인간이 알 수 있게 요약해서 성경에 기록했다 그 말씀입니다. 인지가 어느 정도 발달했을 때에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 있었던 일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축소하고 뺀 것도 없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태초에는 미개한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경 필자를 통해서 그대로 기록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알더라 하고 기록했습니다.(창4:26) 그 후손들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 외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을 때 한국이나 일

본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
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백성들과 하나님의 신과 무관한 인
간들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는 남
자들이 하나님의 신이 같이하지 않는 여자들을 보고 좋아해서 정
신이 팔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900년씩 살던
것을 수명을 줄여 버렸습니다. 120년 이상 못 살게 하신 겁니다.(창
6:3)

“당신은 어떻게 가인의 부모인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인간과 교류하기
시작한 6천 년 전의 인물로 단정하느냐?” 하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975
년도 7월 13일 주일날, 하나님이 이상 중에 가인에게 주신 그 표
를 보여주셨는데, 전면에는 하나님의 사자인 네 생물들이 그려져
있고, 후면에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생명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상형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의 시대를 알게 되
었습니다. ‘인간의 조상은 수만 년 전에 생존했지만 성서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움직이던 시대는
6천 년 전이었구나.’ 하고 저는 상형문자 시대를 살펴봤습니다.

상형문자가 세계적으로 처음 쓰인 곳이 메소포타미아(수메르-
이라크)입니다. 인류의 문명이 시작된 메소포타미아에서 주 전
4,000년경부터 상형문자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의 한쪽에 상형문자로 가인의 생명을 지켜 주셨던 겁니다. 이러
게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가인이 어디 가든지 맞아 죽지 않습니

다. 사람들은 가인의 그 표를 보고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인물이구나.’ 해서 가인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암행어사가 갖고 다닌 마패라는 게 있습니다. 마패는 임금이 내려 주는 암행어사의 표시입니다. 이 마패가 없으면 누가 어사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거지 옷을 입었든, 다 떨어진 갓을 썼든, 마패를 꺼내 보이면 누구나 그 앞에 굴복합니다. 왜? 임금이 직권을 보장해 주는 어사기 때문입니다. 마패는 동그란 동판에 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걸 내보이면 고을 원님이든, 누구이든 찢쩍 맵니다. 임금의 특명을 받은 인물이라 해서 아무도 감히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벌벌 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아무도 너에게 손을 못 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이 표를 보여라.” 해서 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표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기독교 역사상 제가 처음 밝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인에게 그 표를 주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 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합니다.

가인이 그 표를 갖고 다닐 때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가인을 죽이지 않은 것은 표에 쓰여 있는 문자를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상형문자를 쓰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이 문자를 사용한 연도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지금으로부터 약 6천 년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담, 하와가 6천 년 전의 인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아담, 하와는 이름뿐이지, 실제 인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 하와가 살다가 쫓겨난 시대는 원시 시대입니다. 원시 시대에 무슨 글이 있었겠느냐 이겁니다.

아담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원시생활을 하던 장면을 여호와께서 이상 중에 보여주셨는데 그들은 글은커녕, 지금과 같은 말도 없어서 짐승과 같이 ‘워’, ‘어’ 이런 신호로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문명이 어느 정도 발달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과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로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4:25-26) 따라서 이 아담은 인류 최초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닙니다. 인류의 조상은 성서에 나타난 대로 에덴동산에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원 아담, 하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종으로 택한 사람과 결부시킨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조로 삼았던 겁니다. 그 이전 사람은 원시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리하여 아담, 하와의 후손들은 보통 7, 8백 살을 살았습니다. 일반 사람과 같습니까? 다르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도와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

나 도와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후손만 도우신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가인이 맞아 죽을까 봐 하나님이 표도 해 주셨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상 중에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전들 어떻게 압니까? 날짜까지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1975년도 7월 13일, 그날이 주일입니다.

창세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5:1-2) 이걸 태초의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하였고,” (창5:3) 여기 셋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가인은 하나님의 슬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는 세계로 나갔기 때문에 아담의 슬하에 있는 셋이 바로 아담의 족보에 오르는 겁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그 다음에 나옵니다.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창5:4-5) 이렇게 족보가 나옵니다. 여기에 가인은 족보에 못 들어갑니다.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창5:1) 하였는데 가인은 빠졌습니다. 아벨은 죽었고, 셋을 낳은 다음에 이 셋이 아담의 후손으로 직계가 되어서 계속 족보가 이어지기 시

작한 것이 오늘날 인류의 역사입니다. 이 계보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 후 바울이 이방 사도의 역할을 하면서 한국에도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최초의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성서에 기록된 감람나무는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최후의 종이라야 최초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덴동산은 무슨 강, 무슨 강이 흐르는 지역이다 해서 오늘날 성서학자들이 찾아가 봤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아담,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생활한 것이 6천 년 전이니, 6천 년 전의 사적을 알아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 만 년 전, 몇 십만 년 전의 일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이 현대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의 행적은 6천 년 전이 아니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라고 쓰여 있지만, 그 외의 사람이 있는 시대입니다. 상형문자를 쓰는 시대입니다. 이때 아담, 하와의 존재가 성경에 최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아담, 하와라는 인류의 조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6천 년으로 당겨서 정하였는가? 이때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6천 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천년 안식이 온다고 말합니다.

아담의 직계로 셋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그 셋의 후손들이

퍼지면서 족보가 계속 내려오다가 노아 때 와서 개벽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여덟 식구만 남기고 다 죽였습니다. 그 후 노아가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하여 인류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창9:27) 함의 자손은 노아의 저주를 받아 오늘의 아프리카인이 되고, 야벳은 노아가 축복한 대로 지구상에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인들이 아무리 권세를 잡고 세계를 다스리는 육적인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셈의 슬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셈족은 누구냐? 아시아 민족입니다.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민족입니다.(창9:27)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멸하기 위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했을 때 무슨 나무로 지으라고 하신 줄 압니까? 잣나무입니다.(창6:14) 노아는 잣나무가 있는 산으로 가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저에게 “서울에서 한 시간 남짓 떨어진 거리에 내 성전을 지어라.” 하고 말씀하여 지금의 알곡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잣나무가 울창한 곳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영적인 방주가 세워졌습니다. 그 성전을 지었을 때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여러 차례 간증했습니다.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얘깁니다.

주님이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덩이로 5천 명을 먹이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을 전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역사에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그것으로 신의 살아 계심을 보여

주시는 겁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기독교 자체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시대의 역사를 재조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마24:35)고. 나도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Chapter 11.

기독교의 진수



우리가 방금 부른 ‘기다리던 성도 만나 얼마나 기쁠 건가. 만나자 천성문에서, 아 즐거운 그 모임’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는 불과 같은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영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기록했기 때문에, 영의 세계의 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기독교가 지금까지 주장한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리던 성도 만나 얼마나 기쁠 건가’라는 가사는 사람이 죽게 되면 바로 영의 세계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형제자매가 곧 서로 만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의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신의 섭리를 아는 시대를 맞이하는 바람에,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

라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던 성도가 천국에서 만나는 것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떤 만남의 장소가 따로 있어서 곧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마지막 영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 주어진 여건에 따라 모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인들은 서로 보려야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 보자. 만나 보자. 저 건너 보이는 천성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누구나 서로 만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점차 시간이 흐르면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들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후에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당시의 하나님의 종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성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세워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유랑민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요셉이 국무총리로 출세하여 애굽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당시는 사람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신도 섬기고, 저런 신도 섬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다신교 시대입니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공경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느 한 지역에 심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 계획을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켜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당시에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신들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얘기만 있지, 다른 신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니, 나를 섬겨라.” 하고 통고를 받은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은 비로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킵니다. 성경에 보면 갈대아 우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이 지역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으로 이주했다가, 애굽을 거쳐 다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후손들이 애굽에 갔다가 나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유지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죄악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 산에 가서 고사를 드려서 어떤 신을 받았으면, 그 신은 또 다른 신입니다. 무당들이 받는 신도 똑같은 신이 아닙니다. 마귀의 수는 엄청납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계급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마귀도 인간을 쉽게 지배합니다. 인간은 신에게 도저히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누차 말했지만, 하나님과 마귀는 인

간을 사이에 두고 서로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와 사단이 싸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유1:9) 모세는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신 인물입니다.(출4:16) 그런 모세가 죽었을 때 사단이 모세를 데려가려고 천사와 싸운다면, 일반인들이 죽었을 때 마귀가 데려가는 것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그의 시체를 놓고 사단과 천사가 싸웠다면, 마귀의 세력이 어느 정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호수아는 살아 있을 때 얘기고, 모세는 죽었을 때 얘기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선지자 스가랴 시대에 살던 대제사장입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천사와 겨루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마귀가 더럽혀서 새까맣게 숯덩이처럼 되게 했다면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심각한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초비상수단을 강구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누가 더럽혔습니까? 마귀가 더럽혔습니다.(눅3:5) 그때에 여호수아를 지켜 주는 천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천사가 지켜 주는데도 마귀가 새까맣게 더럽혔다면, 천사가 지켜 주지도 않는 일반인들이 하나님을 불러도 더럽히기가 힘들겠습니까? 대단히 쉽습니다. 백억이 있어도 사로잡기가 누워 떡 먹기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힘으로 물리치지 못하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 가지고도 안 되고, 학식을 가지고도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은 육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과 교류했다고 해서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악령이 됐든, 성령이 됐든, 이 두 존재는 신입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빛의 신뿐만 아니라 어둠의 신도 인간에게 전지전능하다 이겁니다. 왜? 우리는 육을 지닌 약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대적할 때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끼리 겨루기 때문입니다. 빛의 신은 빛을 숭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이 크지만, 어둠이 가로막는 순간부터 그 빛의 영향력은 약화됩니다.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하고, 할 수 없어 못하는 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우리가 IMF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힘드니까 돈을 빌려 쓴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므로 남의 힘을 잠시 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 주겠어.” 했을 때는 도와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나한테 이렇게 해 줘.” 할 때는 도와 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2:10) 충성이 뭐니까? 날 좀 도와줘, 이겁니다. 그러면 대가를 주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해 달라는 요구를 해 드렸을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신격화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반대 세력은 모세를 신격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나 신격화하지, 마귀가 모세를 왜 신격화합니까? 축소시키고 매장시키려고 합니다. 전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쉽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여 하늘나라에 가시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주님을 찌른 자도 주님이 곧 강림하는 것을 볼 때가 됐다.”(계1:7) 하고 요한 계시록 서두에 적었습니다. 영의 세계를 잘 모른 겁니다.

받아서 기록했다고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단12:8) 그들은 전해 주는 사람이지만, 그 내용을 이루는 자가 아닙니다. 이루는 자가 아닌데 하늘에서 내용을 알려 줄 필요 있습니까? 밝혀 주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찌른 자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곧 보게 된다고 일곱 교회에 편지를 띄웠는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찌른 로마인들이 죽은 지가 벌써 언제입니까? 2천년이 되어도 주님은 오시지 못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한 말은 부도가 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목 베임을 받은 수많은 선지 성인의 영들이 주의 피권세로 무덤이 갈라지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마27:53) 그래서 지금 지성소에 가 있습니다. 음부에 있던 영들

을 마귀가 내주었던 겁니다. 그게 신의 조건(물)입니다. 심판 받을 영들은 사단이 다 지배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들은 내주어서 지성소로 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계 1:18)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음부에 있던 영들을 주님이 다 끌어올린 겁니다.

다윗도, 아브라함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으면 음부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계6:8) 주님이 그들을 지성소라는 곳에 데려다 놓은 겁니다.(계5:10) 하기가 성경에는 지성소라고 하지 않고 ‘제단 아래’라고 했습니다.(계6:9) ‘지성소’라는 말은 알아듣기 쉽게 말한 겁니다. 지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불러올린 성도들은 대제사장급이니까 영적으로 지성소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대면하여 “대주재시여, 우리는 지상에 있을 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습니까?”(계6:10) 하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알았어. 내가 갚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차야 원수를 갚을 수 있어. 그러니 그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계6:11)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못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만을 상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측에 어떤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기다려. 너희와 같은 자격자의 수가 차야 해.” 하셨지만, 채우는 일은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그 주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그들과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려 달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그 순교자와 같은 숫자를 배출시키는 방법이 마련된 겁니다.

주님은 천국에 가 계시므로 직접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수는 지상에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그 내용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 주는 사람이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이긴자입니다. ‘이긴자가 나오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소식을 전해 주었듯이, 이긴자가 내 소식을 전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왜 그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느냐? 이긴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의 설교집 ‘에덴의 메아리’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기독교 전체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중심 과제는 하늘의 지성소에 있는 영들과 같은 자격자의 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소용없습니다. 하늘에서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되어야만 끝 날도 되고, 구원에 대한 주님의 약속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영생(구원)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6:39, 11:24)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수가 차지 않으면 그 약속은 그림의 떡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를 알면 해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와 태초부터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 내막에 대

해 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서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성취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므로 어느 정도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전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포로들 중에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살려서 피난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원주민은 말할 것도 없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쥐새끼 한 마리도 살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납득이 갑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못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납득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셔야 하는 사연이 있다면 강력한 적이 없습니까?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역사는 이 하나님의 적을 발등상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Chapter 12.

하나님은 어떻게 마귀를 완전히 멸하는가?



나라가 평화로울 때에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고, 전쟁할 때에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신도 전쟁을 합니다. 사람이 싸우는 전쟁은 사람끼리 해결할 수 있지만, 신과 신이 싸우는 전쟁은 신끼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전쟁은 신이 조종할 수 있어도, 신의 전쟁은 사람이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을 취급한 것이 아니라, 인류 배후에 있는 빛과 어둠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인간을 중간에 놓고 서로 뺏고 뺏기는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에 대비하여 하나님의 신과 사단의 신이 서로

가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을 세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마귀가 인간을 상대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인간이 교류하는 내용만 알려 주시는 거지, 인간이 어둠과 교류하는 내용을 알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인간의 교류는 알 수 있어도, 어둠과 인간의 교류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전쟁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계12:7) 혹은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16:14)는 등, 모두가 전쟁의 기사입니다.

성경 66권의 시작부터가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과 신끼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영적인 하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교회에 백만, 천만이 옳드려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지여, 자비하신 하나님이지여, 이걸 원합니다. 저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다 된다면 벌써 새 세상이 열렸을 겁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둘 중 하나가 몰락하기 전까지는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은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굴복하면 사단의 노예가 되게 마련입니다.

성서에 지옥이니, 천국이니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지옥은 마귀가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제가 자상하게 설명하여 처음으로 진상이 밝혀진 것입니다. 저도 영의 문제를 모르고 있을 때에는 일반 교회의 훌륭한 목회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귀가 지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멸망시키고, 고통을 주는 장소입니다. 마귀의 앞잡이 노릇한 것들을 집어넣는 불 구렁텅이가 지옥인데, 자기가 들어갈 지옥을 스스로 만들 리가 있습니까? 전에도 말씀했지만, 지옥은 하나님의 세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는 천국이라는 빛의 세계와, 지옥이라는 어둠의 세계가 함께 있게 됩니다. 어둠의 세계, 즉 지옥에 떨어질 자들과 빛의 세계, 곧 구원받을 자들을 갈라놓는 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기독교는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을 주관할 때에도 전지전능하고, 어둠의 신이 인간을 다스릴 경우에도 전지전능합니다. 왜냐하면, 신은 인간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약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빛의 신이 됐든, 어둠의 신이 됐든, 전지전능합니다. 즉, 인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므로 인간 측에서 볼 때에는 전지전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과 신끼리 싸울 경우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에서 받은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 못

지않은 힘을 가진 상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눅4:2) 이 경우에는 어느 한쪽도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빛이 없고 어둠이 주관하든가, 어둠이 없고 빛이 주관하면 인간에게 빛의 신이나 어둠의 신이 전지전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의 신과 어둠의 신이 겨룰 때에는 서로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어린애와 싸움을 한다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힘을 가진 자와 싸울 때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서로 적수가 된다 이겁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컨대 하나님에게 우군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존재가 많이 생길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게는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적대 세력의 힘이 커진다면 하나님에게도 좋을 게 없습니다. 전쟁에서 굴복하면 상대방에게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겨야 상대를 지배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발등상 시킨다고 합니다.(눅20:43, 행2:35, 히10:13) 짓밟아 버린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가서 여호와와의 우편에 앉아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주님의 적이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그럼 반대로 마귀의 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주님입니다. 인간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과 마귀는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런 와중에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드리는 여건을 조성하는 역사가 있는가 하면, 해를 끼치는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6:39)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러 오셨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 지혜를 이 세대의 관원이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2:8)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제가 얘기하면 안 믿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분명히 세력 다툼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좌에서 마귀가 발등상 시키기를 기다리십니다.(시 110:1, 히10:13) 주님이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도 마귀가 발등상 되기를 기다리시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시는 것은 무엇을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입니까?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세력을 까부수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를 흘리게 하는 비상수단을 동원하신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강력한 세력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지으셨나? 그 목적이 뭔가? 태초부터 존재한 어둠의 세력을 꺾기 위해 인간을 무기로 쓰시려고 하신 겁니다. 그 인간이 거꾸로 어둠의 편이 됐다면 하나님의 측에서는 그만큼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했습니다.(창6:6) 그렇다면 계획대로 된 겁니까? 안 되었기 때문에 한탄하신 겁니다.

사람이 사업에 투자하여 잘되면 “내가 투자하기를 잘했어.” 하고 말하겠지만, 그 사업이 망해 버리면 “내가 왜 투자를 했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정도라면, 하나님께 불리한 조건이 조성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리한 조건 같으면 “내가 사람을 참 잘 지었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득을 못 보셨다 이겁니다.

“내가 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고.” 하고 후회하신 경우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이 손해를 보셨다 그 소리입니다.

앞선 감람나무 역사에 대해서도 주께서, “내가 그에게 아낌없이 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망쳤어. 그래서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본 거야.” 얘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도 건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건지게 해 달라. 이득을 얻게 해 달라.” 주님이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대가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권세를 받아 하늘나라를 다스리게 되신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유리한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걸 마귀가 알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휘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유리해지는 것을 마귀가 보고만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

지 말라고 했습니다.(계10:4) 감추어 두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은 누가 알면 안 되는 겁니까? 마귀가 알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자 백전불패(知彼知己者 百戰不敗)’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패하지 않을 테니 조금도 두
려워할 것 없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전쟁에 대비하여 몰래
무기를 만듭니다. 그게 탄로가 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요즘 이북에서 핵무기를 만드는 조짐이 있다고 해서, 미국이 사실
인지 봐야겠다, 북한은 못 보여준다 하고 계속 겨룹니다. 이라크
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여 달라, 못 보여준다 해서 폭격을 하고 난
리를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웃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목이 하루
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란 그런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는 등,(계9:1) 쇠사슬로 천
사가 용을 묶어서 무저갱에 처넣는다는 등,(계20:1-3) 이런 말이 나
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백 번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왜냐?
그건 전쟁 얘기기 때문입니다. 전쟁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알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니엘에게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라.”(단9:26) 하고 말
씀하셨습니다. 그 전쟁은 대단한 겁니다. 빛과 어둠은 이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전쟁의 광경이 쓰여 있습니
다. 앞으로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 이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것으로 다
끝난 줄 알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 전쟁하러 나간다.’(계19:16) 전쟁이 또 있는 겁니다. 덮어놓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요한 계시록의 안타까운 호소가 뭐 필요하며,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2천 년이나 끌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마귀가 지배하는 역사를 끝내고 말았어야 합니다. 2천 년 동안이나 뭐하러 이 어둠의 세상을 유지시키느냐 이겁니다. 숙원인 어둠의 세력을 진작 몰아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하나님이 인간만 상대할 때에는 전지전능하지만,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마당에서는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가로막습니다. 이 어려움을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에는 부모의 도움으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라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제가 아버지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고 묻는 것이 도리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돕는다면 그 아들은 성숙한 어른인 겁니다. 애들은 모릅니다. 부모들이 주는 용돈으로 먹고 마시고 뛰놀면 만족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자식에게 아버지는 만사형통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의 마음이

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28년 동안 여러분께 안타깝게 부르짖는 얘기가 그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천만 기독교 신자들은 다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지만, 여호와와의 안타까운 사정은 전혀 모릅니다. 이 넓은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 뜻을 알았으니, 이렇게 해 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역사뿐입니다.

저마다 하나님에게서 세상살이에 필요한 어떤 이득을 보겠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큰 동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달라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만 알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면 하나님의 사정이 얼마나 절박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아들이 피를 흘리는 방법을 택해야만 마귀를 소탕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면, 신과 신의 전쟁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님의 진실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Chapter 13.

하나님께 왜 비밀이 있어야 하는가(1)



성경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였습니다.(고전2:10)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때의 사울과, 주님을 만난 연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띤 바울(사울의 나중 이름)은 신앙의 깊이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모르는 차이가 대단히 큼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기 시작하면서,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던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큰 범죄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울과 스테반의 경우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스테반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고,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적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은 죽이는 위치가 되고, 한 사람은 맞아 죽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너희는 부부끼리 싸우고, 부자지간에 싸우고, 고부간에 싸우게 된다.”(마10:35)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서로 길이 다르기 때문에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태초부터 길이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알기 전에는 모세의 율법대로 행하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그는 시대마다 펼쳐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고, 율법주의자로서 흠과 티가 없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달은 다음부터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은 이런 바울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바울은 ‘비밀’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비밀이 됩니까? 공개된 겁니까? 비공개입니다. 사도 바울은 비밀이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공개를 못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과 하나님의 신, 인간과 어둠의 신

사이에 교류할 때에는 신이 사람에게 전지전능할 수 있는데, 신끼리 겨룰 때에는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 경우에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해당됩니까?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기독교가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제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안타깝게 전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전지전능이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에는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뿔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12:3, 13:1, 17:3) 몇 개의 뿔이 있는데, 몇 개는 꺾어지고 몇 개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뿔 열 개 중에 다섯 개가 부러졌다면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그만큼 능력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놓은 것이 요한 계시록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당부한 과일을 마귀가 먹으라고 꼬였습니다. 그리하여 마귀는 하나님의 품에서 아담, 하와를 빼앗아 갔습니다. 이 경우에 마귀는 먼저 여건을 조성합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먹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 갔습니다. 이렇게 먹지 말라는 신과 먹으라는 신이 겨룰 때, 아담, 하와가 먹지 않으면 먹지 말라는 신이 이기고, 먹으면 먹으라는 신이 이기는 겁니다. 이때 진 신은 이긴 신의 요구대로 달라는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세상 관원이 알지 못했느니라.”(고전2:7-8) 그럼 하나

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감춰진 전략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 알았으면 사도 바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까? 안 죽입니다.

죽이면 이기는 줄 알았는데, 반대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것을 어둠의 세력이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귀를 멸망시키는 전략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이 마귀에게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를 상대로 한 전략입니까? 마귀를 상대로 하는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상대할 때는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무조건 복종하게 마련입니다. 이런 인간을 상대로 무슨 비밀이 필요합니까?

주님은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은 누구를 작살내기 위한 겁니까? 마귀를 작살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날에 마귀가 끝장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이 되어야 예수를 믿는 사람도, 주의 율법을 지킨 사람도 영원히 살릴 수 있다 그겁니다. 기독교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라고 누군가에게 지시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상대로 일하게 됩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귀에게 맥없이 항복하는 그런 존재라면 마귀를 상대하여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손을 못 대는 자라야 그 비밀을 이루라고 맡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인간을 상대로 하여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주의 피권 세로 지상에서 일을 하라고 맡기는 사람에게 “너는 명동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라.”, “미국에 가서 선교사 노릇을 하여라.” 하고 지시한다면, 그건 인간을 상대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마귀를 상대하여 싸우는 일을 맡긴다면 하나님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인간은 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마귀를 멸하는 일이라면 그 비밀을 이루도록 맡긴 사람에게는 마귀의 정체를 알려 주셔야 그 마귀를 상대로 해서 죽을 쏘든지, 밥을 짓든지 할 게 아닙니까?

그가 하는 일은 세상 사람을 상대하는 것 같아도, 세상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러니 마귀가 다른 사람은 우습게 보아도 그의 일거일동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왜? 자기 자신의 흥망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긴 장본인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나와 너만 알아야 해. 네가 입을 뻥긋 하는 날에는 네가 죽어.” 이 경우에 비밀이 탄로 난다든가, 새어 나간다든가 하면,

그 장본인뿐만 아니라 그 일을 맡겨 주셨던 분이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맡아 이루는 자를 지켜 주셔야 합니다. 그 장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백 번 연구해 봤자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가 갈 수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막을 어둠이 지배하는 이 세상 관원들이 알았다면, 바울의 말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나타나면 십자가로 싸웁니다.(계5:5)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하고 지시하시면 하나님의 종이 “알았습니다.” 하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이때 사단이 대적합니다.(단10:13 참조)

이긴자의 역사, 즉 감람나무 역사는 우리가 처음이 아닙니다. 먼저 한 번 있었습니다. 그 역사를 마귀가 꺾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이 주의 피권세로 움직일 당시에는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참히 꺾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에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도 여러분 중에 실제로 보고 들은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무너졌습니다. 그리하여 이 지구상

에는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꺼졌습니다.

그 빛이 어떻게 해서 꺼지게 되었는가 하는 연유를, 제가 여러분을 대하기 전에 주께서 저에게 먼저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어서 제가 해야 할 소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 역사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들고 나온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어두워져 갈 때 빛이 있으리라. …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르리라.”(슥14:7-8) 그래서 설교 1집에 보면 그 이야기가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28년 전에 성바오로 병원 옆에 있는 셋방 시절에 한 설교입니다.

빛이 다 사라질 무렵에 또 하나의 빛이 등장하게 되니, 어둠의 세력은 이미 있던 빛을 끄기에 급급한 나머지, 새로 등장한 빛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 켜다고 여겼는데, 어느새 새로 등장한 빛이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둠의 측에선 비상을 걸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20년 전입니다. 주의 종이 이상 중에 보니까, 마귀들이 모여서 총공세를 취합니다. 그래서 저도 얼마 안 되는 양떼들과 힘을 합쳐서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겨룰 때 촛불만 한 빛으로 칠흑 같은 어둠과 부딪쳐 봤자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둠을 이길 만큼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나오니다. “일어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이르렀음이니라.”(사 60:1) 빛을 밝히면 어둠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빛을 키울 동

안에는 나타내야 합니까, 감추어야 합니까? 감추어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2:9) 인간의 머리로는 모른다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2:10)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하느니라.” (고전2:14) 육적으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 하느니라.” (고전2:15) 영적으로 신령한 자를 다른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상에서 주님의 역사를 대행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는 전쟁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주의 종이 영적으로 더럽혀진 여러분을 씻어 주님 앞에 인도하느냐,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주님의 품에서 빼앗아 가느냐, 이것이 전쟁입니다.

마귀는 아담, 하와를 교묘히 꼬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습니다. 이때 따먹기가 아주 힘들었다면,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따먹기 쉬운 여건이라면 따먹지 말라는 측이 불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기 쉽게 여건을 마련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워낙 따먹기 좋은 여건이 조성되면 따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따먹기가 무척 힘든 곳에 있으면 따먹으라고 하는 세력이 꼬여도 따먹게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전쟁의 양상이 따먹지 말라는 측이 유리하고, 따먹으라는 측이 불리한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는 시초부터 따먹지 말라는 측보다는 따먹으라는 측이 유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쉽사리 따먹을 수 있도록 에덴동산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창2:9) 먹음직하며, 탐스럽다고 했습니다.(창3:6) 그걸 따먹은 인간들을 다시 빼앗으려면 뺏을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쉬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여건을 조성하느라고 2천 년의 긴 세월을 보내신 겁니다. 앞으로 제가 기독교의 원리를 다 드러냅니다. 저는 에덴성회의 교리를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판만 에덴성회지, 내용적으로는 기독교의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2천 년 동안 무척 불리한 여건 가운데서 십자가의 군병이 될 만한 생명체 하나하나를 하늘에서 건지시고자 노력하셨습니다. 왜냐? 유리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긴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긴자가 나타나면 하나님께 얼마나 유리해지고, 이긴자가 나타나지 않고 주께

서 하늘에서 직접 역사하시면 왜 불리한가를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날 얼마나 유리한 여건이 하나님의 역사에 조성되어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비밀을 이긴자에게 알려 주신 것은 마귀를 작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긴자는 일반교회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귀를 상대하여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이긴자라는 존재가 반가울 턱이 없습니다. 에덴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장난해도 하나님이 놓아두듯이, 어둠의 세상에 이긴자가 나타나도 마귀가 마음대로 못합니다. 신끼리 피차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과 어둠의 대결에도 룰(규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렇게 신의 룰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백 번 들여다봐도 모릅니다. 또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끼리의 전쟁은 사람을 중간에 놓고 첫째 전쟁, 둘째 전쟁, 셋째 전쟁을 거쳐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들을 귀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긴자가 나타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유리하게 전개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이 2천 년 동안 하신 역사를 단시일에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걸 되게 하는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두 감람나무 역사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앞선 역사가 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저한테 먼저 설명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는 극비리에 추진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흰 돌 위에 하나님의 깊은 사정과 어린 양의 깊은 뜻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계2:17)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도록 특권을 주시는 겁니다.

Chapter 14.

하나님께 왜 비밀이 있어야 하는가(2)



우리가 알고 있는 성서적인 내용은 일방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들이 성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이 마귀가 멸망을 받는 날이라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일방통행이 아니고, 마귀가 멸망을 받아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나만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그건 나의 비밀입니다.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24:36) 그럼 그건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주님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영생의 주인공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요6:53)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가 있다.”(계10:7)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내용을 기록하려고 했더니, 하늘에서 “기록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누구의 비밀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기록도 못하게 했겠습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무엇이 멸망당한다고 했습니까? 마귀가 멸망당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은 마귀입니다. 그런데 그 적을 멸망시키는 일은 결코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까지도 모르게 일곱 인으로 봉했던 겁니다.(계5:1) 그 정도면 얼마나 마귀를 멸하는 비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비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야 무슨 힘이 있습니까? 상대가 별것 아니면 감출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싸우는 비법이 알려지면 내가 당할 수도 있다, 할 때에는 극비에 붙입니다. 하나님이 개방을 시키지 않고 뭔가 감추신다면 상대가 약합니까? 강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적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감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알려지면 상대가 역습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철저하게 보안을 해야 합니다. 군대가 적을 어떻게 쳐부수고,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에 대해 대책을 세웁니다. 이걸 군사작전이라고 합니다. 이 군사작전을 알아내는 것이 스파이가 하는 일입니다. 작전 계획이 누설되면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막4:11)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에 대해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36) 그런데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계 10:7)고 요한 계시록에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를 멸망시키는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알면 안 됩니다.

요한 계시록에 왜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의 역할을 맡은 분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이 아닙니다. 온 하늘나라를 다스리는 주님이 되신 겁니다. 그 직분을 ‘멜기세덱의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히5:9-10) 여호와께서 당신의 아들이 그런 고난을 거쳐 승리한 대가로, 즉 ‘다윗의 뿌리가 이긴’ 대가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서는 여호와를 대신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하신 것입니다.(계5:5)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돋어나 …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사 11:10)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

늘나라에 가서, 약속대로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어 보니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뜻이 그 책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아셨던 비밀이 주님에게 공개된 겁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봅시다.

주님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던 네 생물들이 주님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계 5:8)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 넘어온 겁니다? 주님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생물들이 주님의 지시를 받아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서 안찰을 받아 성령이 임하거나, 저를 통해 생수가 내려지는 것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맡고, 그 권한을 맡긴 자가 이긴자 감람나무입니다.(계3:21)

마귀를 대적하는 장벽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측에서는 대적하기가 유리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영적으로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장벽, 곧 성(城)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주님이시고, (계21:22) 성은 14만 4천의 신부입니다.(계21:9-10)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에게 옮겨 오니, 마귀는 하나님을 상대하다가 주님을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를 받아 움직이는 역사가 지상에서 시작되면, 마귀는 그 자를 상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그게 무너지면 주님은 다시 피곤해지는 겁니다. 직접 역사하셔야 하니까. 주님을 대신해서 움직이는 세력이 강화될수록 하늘나라에서는 평안을 누리

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영이 싸우는 양상입니다.

저는 즉흥적으로 설교해도 오늘날까지 횡설수설한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언제나 성령의 은총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보혜사(성령)가 임하시면 인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16:13-14) 이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마지막 날이 언제라는 설명이 없습니다. 마귀를 멸망시키는 방법을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면 마귀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것을 마귀가 아는 날에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 정도입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미가제(神風) 특공대까지 조직하는 독종인 일본도 원자탄 두 방에 손들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 전략을 일본이 알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원자탄 훈련소를 박살내 버렸을 겁니다.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을 마귀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여호와의 계획을 제가 처음으로 밝혀 드리는 겁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신학 서적을 다 들춰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을 아는 자가 있나.

거듭 말하지만, 마지막 날은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마귀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못하면 주님을 믿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니까?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를 봅시다.

순교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언제 원수를 갚아 주시겠느냐고 주님에게 물었을 때, 주님은 “너희들과 같은 자격자의 그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계6:1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영광의 주님이 원수를 갚지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와 같은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고 했습니까? 순교자들과 같은 자들의 수가 차기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 수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계20:4)

그럼 이영수, 너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제 삼자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원수를 갚는 정치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알게 된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이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래함 같은 분들처럼 선교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저한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다. “너, 어디 가서 전도해.” 이런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할 일이 “너희와 같은 수가 차기를 기다려라.” 한 그 수를 채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일을 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알려 주셔야 합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너는 내 섭리를 알았으니, 내게 필요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 달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건 세마포를 입는 사람들입니다.(계19:8) 옛날에는 순교를 당해야

만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세마포 옷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역사하여 건져 내던 인물들을 지상에서 이긴자를 통해 채우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역사할 겁니까? 그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 만들어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안찰하면 죄가 무너져 나가고, 성령이 오고, 축복한 생수를 송장에 바르면 아름답게 변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 건지 일일이 따질 수도 없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 신의 섭리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만 해도 전국에 기독교 신자가 천만이 넘고, 전 세계적으로 약 20억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들은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을 전하고, 저는 하늘에 계신 현재의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교회의 목회자가 아는 얘기를 내가 한다면, 누구라도 금방 알아듣고, 그런가 보다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고 있는 얘기를 내가 하니까 이단이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 성서를 자주 인용합니다. 성경과 연결 짓지 않으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멸망시키는 역사와 일반 기독교의 역사가 같겠습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Part 03.

성령의 말씀을 따라



15. 성도가 누리는 자유 · 16. 언약과 축복 · 17.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1) · 18.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2) · 19.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 20. 기독교의 문제점

Chapter 15.

성도가 누리는 자유



이곳에 일찍이 오신 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 어느 정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은 모세 율법이 세례 요한 때까지 유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눅16:16)**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고 왔노라.” **(마5:17)**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푸는 획기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표징인 할례를 폐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가 폐지되지 않으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다수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영적인 차원에서 마귀와 대결하는 무기로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천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십자가의 군병을 편성하기 위해 순교자들을 배출시켜 오셨던 겁니다. 그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사서 기꺼이 처형 받게 하는 겁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처참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의 군병을 배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동안에 주님의 피권세가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구약 시대처럼 계속 처참하게 순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기독교는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신 주님의 역사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오는 동안에 주님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도록 감동시켜 그들을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게 했던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계20:4)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 베임을 받은 자의 영들은 구약 시대에 순교한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 베임을 받았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불과 같은 성령을 받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구약 시대는 주님의 피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 지은 겁니다. 이들은 모두 순교하여 하나님께 목숨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것은 생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순교하지 않고도 순교자들과 같은 반열에 설 수 있는 역

사가 뭐냐? 바로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세마포’(계19:8)를 입게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세마포는 멜기세덱의 반열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입는 깨끗한 옷, 즉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처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고도 순교자들의 대열에 설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값없이, 공로 없이,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길을 열어 놓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처참한 죽음을 당해야 순교자들의 반열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그동안 생수의 은혜를 주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계속 순교를 요구했던 겁니다.

스데반은 결국 모세의 율법사들에게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때려죽이는 위치에 있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스테반은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7:56)고 말했습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주께서 스테반에게 용기를 주어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스테반은 “주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웃으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

생'(갈3:24)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 몽학선생(율법) 아래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으나, 은혜는 인간의 모든 죄를 가리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은혜가 오기까지의 몽학선생과 같다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감람나무요, 이긴자라는 역할을 하는 주의 종을 만난 시대에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긴자 감람나무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라고 지칭하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는 겁니다.

그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권한을 행사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요16:8) 즉,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를 통하여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다른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이긴자의 인도를 받아,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아무도 모르게 범죄하였다 해도, 양심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은 마음의 법이기 때문입니다.(히10:16)

오늘날 여러분이 주의 종을 따라 생수를 얻고, 안찰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누가 죽으면, 시체에 생수를 발라 줍니다. 그가 설사 강도라도 시신이 아름답게 피어납니

다. 이것은 그가 무엇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까? 빛에 가까워진다는 뜻입니다. 즉, 주님에게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잘하고 못하는 기준은 그 지시받은 일에 얼마만큼 호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다른 보혜사 성령에 의해 법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여기 신호등이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신호등보다 교통순경이 우위에 있습니다. 신호등에는 파란 불이 들어와서 운전자가 차를 몰고 가려고 할 때, 교통순경이 신호봉을 들고 “서!” 하면 서야 합니다. “파란 불이 들어왔잖아. 원데 세워? 나는 파란 불을 보고 차를 몰 거야.” 이러면 안 됩니다. 왜? 교통순경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져 있어도 교통순경이 세우면 서야 합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반대로 빨간 불이 켜져서 멈춰 섰는데, 교통순경이 가도 된다고 하면 그 말을 듣고 가도 됩니다.

이긴자 감람나무는 법을 집행하는 영적인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람입니다.(계2, 3장)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이긴자가 따르는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인도합니다.

이때 주의 종은 하나님께 이득이 되는 것을 택합니다. 그 나머지 것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께 이득이 될 경우에는 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자는 복이 있느니라.” (시32:1, 롬4:7)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차원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죄를 인정치 않으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입니다. 무슨 역사냐?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긴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일정한 권한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권한을 주시는가? 하늘에서 요구하는 알곡, 곧 하늘 군병을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따르는 양떼가 그를 어떻게 보고 따르느냐를 하늘에서는 중요시합니다. 그것을 체계라고 합니다.

Chapter 16.

언약과 축복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요4:24) 혹은 “주는 영이시니” (고후3:17) 하고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과 주님이 지상에 보내십니다. (요15:26, 계5:6) 오늘날 이긴자 감람나무는 여러분에게 이 보혜사 성령을 연결시켜 주는 중보의 역할을 합니다. 가령 A라는 교인이 나한테 안찰을 받으러 오면 하늘에서는 벌써 아십니다. 그리하여 그에게 생수의 성령을 보내 주십니다.

알기 쉽게 비유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5리터의 휘발유가 필요하다면, 그 5리터의 재료가 저에게 오는 겁니다. 그럼 그 휘발유가 내 것은 아닐지라도 나는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됩니다. 재료 자체는 하늘에서 오지만 나를 통해서 나가니까, 그것이 5리터 왔다, 10리터 왔다, 얼마가 전달됐다,

안 됐다, 이걸 아는 겁니다.

주의 종과 주님 사이에 오고 가는 성령은 주의 종이냐 알지 여러분은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 나와 주님 사이에 오고 가는 것은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릅니다.

오늘날 주의 종이 주님과 교류하며 알게 된 기독교의 원리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은총도 받지만, 또 기독교의 원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깨달을수록 의심이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잘 압니다. 나하고 식사도 같이하고, 대화도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를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개성이 이렇다, 인간성이 어떻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주님과 나 사이에 오고 가는 내용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주님 사이에 직접 연결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주의 종이 쏙 빠져 버리면 여러분도 주님과 연결이 안 되고, 주님도 여러분과 연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일반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 돌아가셔도 시체가 썩어 가는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열심히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는데도 그 은총을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계11:6 참조)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어진다.”(마16:19)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슨 뜻인지 그 내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백부장 고넬료가 “나도 은총을 입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너를 통해서 매고 풀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베드로를 보내어 고넬료에게 성령의 은총을 베풀었습니다. 이때 그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는구나.”(행10:44)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언약의 효능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불과 같은 한 증거의 성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바울을 통해서도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교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더라.”(행19:6)고 했습니다.

우리 역사를 시작할 때, 주님이 저에게 소임을 주신 후에, “다시는 어둠이 너에게 깃들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약속은 줄곧 지켜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의 종이 일을 못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처럼 생각을 잘못하여 성령이 떠나고, 길가에 접어들어 은혜가 떠나 버리고..., 이러면 이긴자의 소임을 못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을 다 겪는데,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이긴자 노릇을 합니까? 어제까진 이긴자였는데, 오늘 사단에게 사로잡혀 이긴자가 아니라면, 어제까지 한 일은 오늘 망가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긴자는 특권을 갖게 됩니다. 쓰시는 분께서 그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계11:3) 그리하여 쓰시는 분만이 좌지우지하지, 그 밖의 어떠한 사람도 주와 저 사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고전2:15)

그러니까 주의 종이 여러분에게 은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성령이 항상 약속대로 움직여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옥중에 잡아넣어도 이긴자요, 한 사람이 따라도 이긴자요, 어느 곳에 가나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목사나 선교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성직자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단에 서면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중구난방으로 떠난 소리가 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 보지 마라.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영육 아울러 시달리는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준비 하나 없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말하여 28년에 걸쳐 설교집이 계속 나오게 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다.” 하고 말입니다. 이걸 목회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 여기 몇 백명 모였는데 성령을 주십시오.” 평생 이런 기도를 해 본 적이 없습니

다. 제가 움직이면 으레 성령이 알아서 함께해 주십니다.

이긴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과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이 된다면 일반교회에서도 안찰과 생수 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교회 신도들이 여러분보다 믿음이 적어서 그런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바로 중보 역할을 하는 이긴자가 없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 성령의 은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시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긴자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입니다.(계2:17, 21:6-7) 그래서 은혜의 주인공은 주님이지만, 은혜의 중보 역할은 주의 종이 합니다. 저의 존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저를 통해 은혜를 받고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주의 종도 육을 갖고 있으므로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너무 피곤하면 몸살도 나고, 걱정이 심하여 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 약속된 성령은 주의 종을 통해서만 연결됩니다. 왜? 이긴자로서 독특한 사명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힘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까? 보혜사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겁니다.(속4:6)

세계에 이런 역사가 어디 또 있습니까? 그 은총을 기성교회에서 베푼다면 대단할 겁니다. 철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몸부림쳐도 못

받던 은총을 쉽게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교회에서도 병을 고치고, 기적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주는 은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제가 들려주는 진리의 말씀은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제가 얼마나 비바람을 세게 맞습니까? 마스크를 얼마나 많이 댄습니까? 그러나 제가 언제 눈 하나 깜빡합니까? 왜 그러냐? 주께서 지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대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저 사이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하늘에서 지켜 주십니다. 이 언약의 아성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어느 날 “우리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마19:27)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열두 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마19:28)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대가를 받으려면 이런 언약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선 역사에 동참했던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보혜사 성령의 은총은 대단했습니다. 그건 인간 박 아무개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을 저는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저는 항상 천진난만하게 움직이지만, 혼자 있을 때에는 때때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 제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저는 28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참으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한번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노력한 대가가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주의 종은 전부 하나님의 역사에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랄 게 뭐 있습니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의면류관만 남았다.”(딤후4:8)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나 깨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때, “내가 그래도 이긴자와 함께 잘은 못했어도 주님께 열심히 순종하느라고 애써 왔습니다. 이 귀한 은혜 안에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아실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값진 생활입니다.

Chapter 17.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1)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거기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전쟁의 경우를 두고 생각해 봅시다. 싸워서 이기게 되면 이러저러한 이득이 있다는 판단이 설 때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다가 안 한 것만 못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면 전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전쟁은 공격이나 도전을 말합니다. 이것은 상대가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혼자서는 공격이나 도전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상대가 없을 때에는 조심하거나 경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상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상대를 두고 시작되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단, 곧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깊이 관찰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겨야 하고, 또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그 다음에 이루어

어집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자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사 43:7)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교류가 가장 중요하며, 그 교류가 전부라는 식으로 기독교는 우리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따라서 신도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인간 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보다 힘이 월등하여 마음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류가 된다면 세상에는 아마 불미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하나님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설명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것 자체를 한탄하여,(창6:6) 무엇인가를 복귀하시고자 하는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며 점차 하나님의 역사의 베일을 벗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잠깐 짚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걱정이 시작됩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걱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즉,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에덴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임의로 먹되, 동산 가운데 탐스럽게 생긴 이 나무의 과일만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게 된다.” 해서 먹을까 봐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창2:16-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창1:31) 그런데 모든 창조가 다 끝난 상태에서 하나님은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인간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문제입니다. 뭐냐? 경고의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먹는 날에는 죽는 과일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사람이 “왜 그 과일을 먹으면 죽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일방적으로 지시만 하십니다.

기독교는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지시뿐이고, 인간이 이유를 대어 “왜 그렇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이 성경 66권의 공통된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든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쪽 기록되어 왔으니까. 또 그걸 계속해 나오신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만사형통이다. 못하는 게 없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뒤집어지는 이야기가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이전까지, 즉 유다서까지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일방적으로 쪽 읽다가 요한 계시록에 와

서는 부딪치는 겁니다. 왜냐? 여태까지 읽던 그런 순조로운 이야기가 아닌, 엉뚱한 내용들이 쓰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 측이 타격도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는 이야기들이 쓰여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바로 요한 계시록에 와서 난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학자들이 이 요한 계시록에는 동화 같은 얘기가 들어 있으니 성경에서 빼 버리자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주의 주인공이 사람입니다. 이들이 거하는 장소를 에덴동산이라고 합니다. 아담, 하와를 지으신 후에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처소를 만드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먹지 말라는 과일이 있게 된 것은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기 전입니까? 후입니다. 아담, 하와가 지음을 받은 후에 에덴동산이 지어졌다면, 따먹지 말라는 과일도 아담, 하와가 지으심을 받은 후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처지를 알게 되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고 적은 수가 모인 이곳을 중요시하시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처지를 모르면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에덴동산의 많은 과일 중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과일이 섞여 있었다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훼방하는 상대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답을 얻지 못합니다. 근본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올바른 답이 나오니까?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내막을 우리 인간은 헤아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헤아립니까? 우리는 지으심을 받은 인간이므로, 그 이전의 일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어 에덴동산에 정착시켜서 뭔가를 하시고자 했으나, 그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게 됨으로써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이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창6:6)

혹시 이다음에라도 내 녹음을 듣거나 설교집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 이것을 미리 지적해 둡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따르는 여러분도 의심하는데, 일반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믿겠습니까? 그러나 아마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입증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시고자 했던 일을 훼방하는 세력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훼방꾼을 우리 인간이 대적할 수 있느냐? 못합니다. 워낙 강력한 영적인 존재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존재에게 대적하는데, 지음을 받은 우리가 그 세력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며,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창1:27, 2:7)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도록 지으심을 받고 살던 곳이 에덴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에덴동산은 하

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만 사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존재와 대적하려면 누구와 비슷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비슷해야 합니다. 새까만 죄인인 우리는 대적할 수 없습니다. 죄를 벗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신 의도는 뭔가? 하나님이 직접 나서지 않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대해 싸워 주기를 바라는 의도가 깔려 있음을 여기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들은 누구를 상대로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적수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적수를 상대하여 싸우라고 인간을 지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울 수 없습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대는 아담을 우습게보겠습니까? 적수로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지만, [\(사43:7\)](#) 적이 계속 도전하는데 어떻게 인간을 통해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적을 철저히 소탕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륜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인간들의 우매한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된 겁니다.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여 성경을 이해하기가 한결 쉬워졌지만, 당시의 사람들은 좀 깊은 얘기를 기록해 놓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해할 만한 정도로만 단순하게 기록

해 놓은 겁니다. 주님이 깊은 말씀을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미룬 것도(요16:13)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담은 따먹지 말라는 과일을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동산에서 쫓겨나 밭을 갈고 땀을 흘려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깊은 내용을 담은 말씀이 아닙니다. 알기 쉽게 표현한 겁니다.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과일을 마귀가 먹으라고 꾀었다고 했습니다. 이 세력이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에덴동산의 선악과는 하나님이 지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었다고 하면 아예 사이비라고 단정해 버립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하루아침에 여러분에게 모조리 말씀드린다고 여러분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네가 흠에서 취하였은즉 흠으로 돌아가라.”(창 3:19) 어디서 취했습니까? 흠에서 취했다고 했습니다. 흠에서 취했기 때문에 흠으로 돌아가라고 내쫓은 겁니다. ‘너를 내가 취한 곳으로 가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이 중앙에 침투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막지 못했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막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에 말한 룰(규례)을 지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의 대결에서도 지켜야 하는 룰이 있습니다. 그러

니까 침투한 연후에 싸워도 싸우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은 납득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입을 뽕긋하지 않으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안 봅니까? 다 봅니다. 그러나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창2:8) 아담이 먼저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에덴동산을 먼저 지었습니까? 아담을 먼저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오늘 알게 된 겁니다.

에덴동산 안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 하와를 짓기 전부터 선악과라는 과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훼방하기 위해 만든 겁니다.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담, 하와는 그 과일을 만든 세력권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Chapter 18.

만유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2)



에덴동산은 인간을 지은 후에 여호와께서 지으신 장소라는 것을 지난 주일에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에 살던 곳이 에덴동산이라면 그 에덴동산은 우리가 지금 사는 세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구분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은 따르는 양떼들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으나, 지금 얘기해 봤자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이 많으나 다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게 되면 그 다른 보혜사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내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들일 겁니다.” (요16:12-13) 하고 말씀

했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지만, 해 봤자 알아듣지 못할 테니까 다른 보혜사 성령에게 일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하신 말씀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하고 싶으나 하시지 못했던 말씀이 더욱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형상대로 인간을 지어야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만세 전에 정하신 뜻이라고 말합니다.(고전2:7) 하나님이 인간을 짓기 전부터 뜻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 뜻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우리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세 전에 하나님은 인간을 지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도를 갖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덮어놓고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지으면 어떻게 쓰겠다, 어떤 역할을 맡기겠다는 의도가 있으셨다 그 소리입니다.

노래를 잘하는 자식이 태어나면 누구나 성악가가 되기를 바랄 겁니다. 체격이 튼튼한, 삼손과 같은 자식이 태어나면 운동선수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바라는 것이 있을 때 부모들은 그 자식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계획을 세워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에는 옛날부터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서울로 보내고, 말을 훌륭하게 기르려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때 부모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

하여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종에게 지시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후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겠구나 해서 만든 것이 에덴동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른 세력이 스며들었다면, 그쪽도 어떤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복에서 핵무기를 만든다고 해서 세상이 떠들썩합니다.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그 나라와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은 유리합니까? 불리합니다. 그럼 그 핵무기를 만들게 놔둬야 합니까? 방해해야 합니다. 그 무기는 만든 나라에 유리하고, 그 나라를 적대시하고 있는 나라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우려가 많으니까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시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었으나, 이것을 인간들은 모릅니다.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애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굴다리 밑에서 만나든, 버드나무 밑에서 만나든, 우리는 부모가 한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어머니가 나한테 “내가 너를 낳기 전에 너의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놀러 다니기도 했어.” 하고 알려 준다면, 나는 그 시절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듣고 ‘아, 그러셨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영적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짓기 전에 하신 일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낳

기 전에 부모가 한 일을 자식에게 알려 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태어나기 전인데 어떻게 압니까? 인간이 지으심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계획을 스스로 알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인간의 생각으로는 몰라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드러낸다면 그는 성령을 못 받은 자입니까? 받은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아담,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원래 네가 있던 곳으로 가라.”고 내쫓았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너를 취한 곳으로 돌아가라.”(창3:19) 이겁니다.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동산은 여호와께서 거닐기도 하시고, 아담과 말씀도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장소가 에덴동산인데, 아담을 그곳에서 살게끔 두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후에 에덴동산을 지으셨다면, 에덴동산 안에 있는 생명과일과 선악과도 인간을 지은 후에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아담, 하와가 살도록 지은 동산 안에 아담이 영생할 수 있는 과일도 있고, 먹으면 죽는 과일도 섞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동시에 소유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빛만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생명과일과 선악과가 있었다면 태초부터, 다시 말해서 인간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고 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내로라하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상상도 못하는 얘기들입

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마무리 짓는, 두 번째 감람나무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면 하늘에서 알려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다면 그는 성품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가로막는 존재가 선악과를 에덴동산의 생명 과일 옆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도전이 약합니까? 강한 겁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세력이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동산에 살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있는 과일은 먹지 말라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에덴동산에는 평화만 있습니까? 경계도 있습니다. 적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옛 뱀이요, 사단”(계12:9)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대적이 멸망 받는 장면도 나와 있습니다.(계20:10)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시점에서,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리한 조건을 만드신다면 그 대적은 방해를 안 하겠습니까? 잠자코 있을 리가 없습니다. 계속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뭔가 불리한 일을 하시면 사단은 계속 방해합니다.

거듭 말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적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양대 세력 가운데서 우리는 빛을 택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대

단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조심스럽게 표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의 힘을 가졌다면 적대 세력은 여섯 개의 힘을 가졌다고 말입니다.(계13:18)

아담,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아담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이 숨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대답이 없습니다.

“아담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왜 숨었느냐? 조금 전까지도 거리낌 없이 만나던 너와 나 사이인데 네가 왜 나를 피하느냐? 혹시 따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네가 따먹은 게 아니냐?”

이때 아담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예, 제가 하와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그래? 여인아, 너는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이 뱀이 꺾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합니다.

“뱀아, 너는 저주를 받아야 해. 네 후손들이 여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들이 네 대가리를 밟을 날이 올 것이다.”(창3:15)

뱀의 후손은 사단의 세력을 가리키고, 여자의 후손은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과

적대 관계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여자의 후손은 뱀의 대가리를 작살내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하여 뱀의 대가리를 밟을 때가 되면 뱀은 잠자코 밟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적합니다. 이런 신의 섭리가 처음부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귀를 작살내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작살내는가? 성서에 예언된 이긴자가 주의 피권세로 작살내는 정지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27) 그 정지작업은 14만 4천 명의 영적 군병을 채우는 것입니다. 이때 이긴자와 함께 마귀를 발등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을 ‘어린 양의 아내’(계21:9)라고 하는 겁니다. 육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말씀입니다.

마귀를 발등상 시키려는 중책을 맡은 하나님의 종은 분명히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즉, 이긴자는 주님의 피권세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킵니다. 소위 안찰이 그것입니다. 위에서 재료를 주시고 땅에서 그것으로 만들어 냅니다. 여러분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생명체지만, 이긴자가 주의 피권세로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킵니다. 그건 하늘의 생명체입니다.

서대문 형무소가 지금은 없어졌지만, 갇혀 있는 사람들을 면회하러 가려면 사형장 앞을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의 눈에는 그곳이 그렇게 두려울 수 없습니다. 누구나 사형대에 오르게 되는 순간에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몇 해 더 살아 봤자 거기서 거

기지만,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입구에 포플러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닳아서 반질반질합니다. 그건 사형장에 끌려가는 죄수가 안 들어가려고 그 나무를 끌어안고 몸부림치는 바람에 그렇게 윤이 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그 죽음 앞에는 정말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고전15:31)고 말했습니다. 오늘 죽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날그날을 죽는 심정으로 살았던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부서인 상록회에 갔습니다. 회장이신 정환택 장로님과 다른 분들이 앉아 계실 때 제가 말했습니다. “벌써부터 돌아가신다던 분들이 아직도 살아 계시는군요. 둘째 감람나무 역사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런 연세들이 다 됐습니다.”

저는 뼈만 남은 회장님에게 “장로님도 주의 종과 헤어지는 순간에, 보시고 싶어 하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에 가서 주께서 ‘정환택, 너는 지상으로 다시 나가 살고 싶으냐?’고 물으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끔직한 지상에 제가 왜 나갑니까!’ 할 정도로 그곳은 정말 화려한 세계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 장로님 얘기가, 곧 죽을 것 같아서 날마다 죽음에 대비하여 주님 앞에 눈물겹게 회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늘에 똥똥 뜨는 듯한 기쁨이 자신에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사람은 죽음이 한없이 먼 장래에 있다고 생각하면 미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의 은총으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아왔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바울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나에게는 의(義)의 면류관만 남았다.” (딤후4:7-8)고 말했는데,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하기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이 눈앞에 다가오면 누구나 후회가 앞서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후회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도 솔로몬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는 “세상 만사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전1:2)고 말했습니다. 한 생애를 주의 종으로 살아오면서도 어떤 종은 희열이 만만하여 죽음을 맞이하고, 어떤 종은 허무를 느끼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나, 앞으로 오실 분들이 어떤 태도로 생애를 마칠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또 은혜 가운데 축축이 젖어서 사는 것처럼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겪어본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으로 편안한 것이 도리어 안 좋습니다. 육의 생활이 너무 편안하면 마음이 해이해지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교만이 싹트고, 또 허점이

많이 생깁니다. 언제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가 좋은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자기의 약점에서 옵니다. 자기에겐 약점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또 “나는 십자가 외에는 증거하지 않겠노라.”(갈6:14)고 말했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했지만, 학문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별로 공감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족한데, 하루아침에 확 달라지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가 죽음이 눈앞에 닥치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고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이제 의의 면류관만 남았다.”는 바울의 심정을 가지려면 지금부터라도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장로님, 권사님들과 이 역사에 들어온 분들에게, 겸허하게 잘못을 회개하라고 강조합니다. 정환택 장로님은 회개 하나까 그렇게 기쁘고 편안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부정의 연속이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죽음 앞에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겁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습니다.(롬5:20)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공합니

다.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했다.’고 자부하기보다는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충성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기울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인 저 자신부터가 오늘날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정신 무장을 튼튼히 하여, 안과 밖으로 구설수에 오르는 일이 없는지 유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매사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 역사를 보고, 주의 종에게 “대단하십니다.”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는 “뭐 아직 소꿉장난밖에 안 됩니다. 큰 종교 단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하고 수그립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할 일이 많습니다. 목에 힘주고 내로라하고 할 여유가 없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에 보탬이 되게 하나, 잠자리에 들 때에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겸손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권태를 느껴 생활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우리의 어깨에는 큰 멍에가 놓여 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아래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매장 당한 종교 단체입니다. 망가진 앞선 역사의 명예회복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

리가 이것을 어깨에 짊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까지 저를 따라 주신 것만 해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알곡성전을 짓기 전에 걱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첫째로, 헌금이 크게 줄어들 거다. 둘째로, 부담을 느껴 식구의 3분의 1은 떨어질 거다. 저는 이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빛나갔습니다. 오늘날까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에게 “제가 주의 종으로서 당신의 지시를 따르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여 죄송합니다.” 하고 기도드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를 무색케 하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꺾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군사 300명으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과 어부와 세리를 열두 제자로 삼고 어려움을 헤쳐 나가신 주님과 오늘날 앞선 역사에 몸담았던 그루터기에 불과한 양떼 몇 명을 데리고 이뤄 가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수없는 시련 속에서 오늘날까지 어려운 고비를 헤쳐 나왔습니다. 지금도 사나운 세파 속에서 시달리면서 목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여러분이 주의 종과 함께 무던히 고생했고, 앞으로도 고생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시작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겹게 기도하면서 매달리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살길입니다.

주의 종이 하는 일이 마무리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겁

니다. 방주를 짓기까지 노아가 필요한 거지, 방주를 다 지으면 노아는 할 일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을 때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죽으면 곧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요6:39, 11:24) 이것을 설명하자면 근본, 즉 뿌리를 파헤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에덴동산에 관한 얘기를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에덴동산이 먼저 있었는지, 에덴동산에 살던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는지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견 문제도 되지 않는 것으로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지닌 인간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온 본래의 장소, 즉 본래의 토지(창3:23)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에덴동산은 아담을 지은 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을 짓고서 그가 살도록 에덴동산을 창설하셨다 이겁니다. 이때 대적하는 신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를 알게 됩니다.

이처럼 신끼리 뭔가 서로가 서로를 침투해 들어갈 수 있었다면, 그 신들은 한쪽만 아주 강하고, 한쪽은 아주 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등합니다. 요한 계시록에는 그 차이를 7:6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수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하나님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와서 인간을 자기편으로 빼앗아갔습니다. 에덴동산은 누구의 세계입니까? 하나님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과일을 먹게 해서 데려가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되찾으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요소를 침투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세계에 태어난 분이 아닙니다. 다른 세계에 태어났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대적하는 세력이 침투하는 것이나, 그 대적이 지배하는 세계에 하나님의 세력이 침투하는 것은 원리적으로는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되, 세상은 어두운 고로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요1:5) 어둠은 하나님의 반대 세력입니다. 하나님은 이 적대 세계에 아들을 탄생시켰습니다. 무엇 때문에 탄생시켰는가? 마귀를 완전히 소탕하기 위해서입니다.(요일3:8)

마귀는 하나님의 세계에 자기의 세력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세계에 빛을 심고 계시는 겁니다.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의 대결 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들의 싸움이 여전히 계속되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이 싸움의 양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신에게 속하여 마귀를 대적한다든가, 마귀

의 신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 패가 갑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이 하나님의 편이고,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마귀의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가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다는 겁니다.(계20:8) 그래서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선두에 서서 십자가의 군병들을 거느리고 출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신들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할 자’니,(계17:8) ‘천사가 내려와서 쇠사슬로 용을 잡으니’(계20:1-2)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끼리의 전쟁입니까? 신끼리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신끼리의 전쟁을 할 때 여호와에게 필요한 수를 배출해내는 역사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전쟁할 때 신과 신이 대적하는 거지, 신과 인간은 전쟁이 안 됩니다. 힘에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신은 신이 부딪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발등상 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으로 화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날 주의 종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영의 생명체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의 피권세로 만드는데는 겁니다.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Chapter 19.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는 동안에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또 흠과 티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신앙으로 부족한 점을 채우려고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따르는 제자들이나 백성들에게 여러 모로 구분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당신이 독생자요 메시아라는 이미지를 심고자 하시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의 귀중성보다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는 병을 고치려고 하고, 환자는 의사에게서 고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때 치료받고자 하는 환자와 고치려는 의사 사이에 호흡이 맞지 않으면 병이 나을 성공률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들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환

자는 또 의사에게 “빨리 나를 좀 고쳐 주십시오.” 하고 요구합니다.

이때 가령 환자에게 “당신의 병을 고치려면 한 달은 걸립니다.” 하고 말하면, 그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의사는 엉터리구나’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때 의사는 그 환자의 심리를 들여다보고 “한 열흘이면 차도가 많을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그 환자는 ‘아, 이 의사는 내 병을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그 의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한 달 이상 걸려야 낫는데, 열흘 정도면 낫는다고 말했으니,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이 사람이 나를 불신하지 않게 될까?’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에서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신자가 기적을 바라거나 현실적인 어떤 이득을 원합니다. 이 경우에 목회자들은 이런 사람에게 영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가 기적을 요구합니다.

주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대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엄청난 기적을 행할 것이 아니냐 해서, 기적을 행하면 믿겠다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가 악하여 기적을 요구하나, 내가 보여줄 기적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만에 되살아난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마16:4)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믿으려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것을 보

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는 저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핵심을 잃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에 대한 요구 조건입니다. 어느 교회에 나가니 축복을 받아 부자도 되고, 병도 고침 받는다 하면 사람들이 떼를 지어 모여듭니다. 목회자는 이런 기대를 갖고 모여드는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때부터는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자리 잡게 됩니다.

주님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 기적을 보고자 모였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였지만, 로마 병정들이 붙들어 갈 때에는 뽀뽀이 흩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병정들을 쳐 죽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니 ‘그게 아니구나!’ 하고 다 등을 돌리는 겁니다. 주님이 힘없이 잡혀가니, 그렇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괜히 따랐구나!’ 하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마26:31) 즉 ‘너희가 다 나를 버린다.’ 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네.” 하고 목에 힘을 주면, 그 사람은 주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아무리 완벽한 사람이라도 허점이 있습니다. 그 허점을 깨달아서 채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만 제일이라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성공하지 못

합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계2:4) 자기가 주님을 가장 잘 믿었던 때를 상기하고, 그때의 자기로 되돌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 그런 한때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한 신앙생활을 했던 시절 말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것 같지만, 대단히 힘든 얘기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믿어야 세상을 이긴다는 겁니다.(요일5:5)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만 자꾸 행하게 되는 구나.”(롬7:19) 하고 한탄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전4:16)고 말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늦게 나와 버릇한 사람은 만날 늦게 나옵니다. 시간이 있어도 늦게 나옵니다. 습관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피곤해도 부지런을 떨게 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사람은 말만 많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시키기만 좋아합니다. 그것이 아주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남을 미워해 버릇하면 곧잘 미워하고, 남을 사랑해 버릇하면 곧잘 사랑하게 됩니다. 그 습관은 자기가 만들어 내는 겁니다. 개성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도, 후천적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금같이, 은같이 연단한다.”(말3:3)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기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계2:26)고 했습니다. 이긴자는 이긴자로서의 대우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주의 일을 지켜 이루어 놓으면 받는 대우가 따로 있습니다. 즉, 이긴자가 되어서 받게 되는 축복하고, 주의 뜻을 이룬 다음에 받는 축복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기고 나서 내 일을 맡아 끝까지 이루어 놓으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긴자가 자신의 역할을 한다고 만국을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긴자가 주의 일을 이루어 놓았을 때 받게 됩니다.

여기서 앞선 이긴자 감람나무의 역사(役事)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기 때문입니다.

앞선 역사는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그 역사가 주의 뜻을 이루어 놓았더라면 감람나무 역사가 오늘날처럼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주께서 나중 감람나무 역할을 해야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솟기도 없어서 감당키 어렵습니다.” 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네가 하는 일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이와 비슷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세

나 요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가 박 아무개를 가까이하듯이 너를 가까이할 터이니, 그렇게 알라.”고 다시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래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고 몇 차례 사양했으나, 결국 어쩔 수 없이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주의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은 감람나무의 가지로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안찰하여 여러분의 눈에 손을 대는 순간,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혜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걸 주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이긴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신 것처럼, 이긴자가 주님의 권세를 행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 이긴자를 통해서 주님이 실속을 거두고자 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역사하기보다, 땅에서 이긴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긴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은 네 번을 출마하여 대통령이 됐습니다. 지구력이 대단합니다. 저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이런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신앙을 꾸준히 지켜 나가려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김 대통령의 경우는

신앙인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역사를 도울 수 있는 일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교회에서 부지런히 일합니다. 총회장이자, 뭐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건 직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이 역사를 이끌어 가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진실하라는 겁니다. 진실은 모든 장애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두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면서 다짐합니다. ‘쓰러져 죽는 한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자.’ 내가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도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해 보기도 전에 못한다고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최대한의 힘을 기울여 도전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이끌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꾸준히 해 왔지만, 또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시작하는 심정으로 도전합니다. ‘내가 언제 가게 있어서 일했느냐? 40만 원 빚을 얻어 시작한 것이 에덴성회가 아니었더냐.’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강냉이밥 도시락을 싸

들고 전농동에서 창신동까지 걸어 다녔던 일, 군고구마 하나, 붕어빵 하나 사먹고 싶어도 사먹지 못하고 굶주리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하루에 밥 세끼 편히 먹는 것만도 어디냐,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총회장이자,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해서 귀히 받들어 주시는데, 그건 주님이 저한테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잘나서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존재가 못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늘날 주께서 저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이런 공로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빈손 들고 와서 빈손으로 가는 현실을 직시하고, 여러분이 저와 호흡을 함께하시면 우리 역사는 서서히 본 궤도에 올라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핍박과 멸시를 받아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Chapter 20.

기독교의 문제점



저는 오늘 기독교의 차원에서 영의 세계를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전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십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땅에 계셨던 주님만 알고, 그 이후의 주님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주님과 겨루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분들은 이 땅에 계셨던 주님만 알고 있기 때문에 악령이 그들을 쉽게 사로잡는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세 거두입니다. 족보의 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친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러 달라.”(출4:5)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람나무 역사를 한국에서 일으켰지만, 이 하나님이 옛날의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입니다. 민족은 바뀌어도 하나

님은 같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 중에서 당신의 종을 택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여, 레위 지파는 대대로 제사장의 집안이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창49:10) 그리고 그 후손 중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워낙 잘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하신 겁니다. “네 후손 중에 내 아들이 태어나리라.” 다시 말해서 “구세주가 태어나게 하겠다.”(사11:1) 이겁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유다 지파 중에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레위 지파로 태어난 사람은 주님의 길 예비자,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데, 나는 그의 신들메를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마3:11)하고 말하자, 듣는 사람들은 메시아를 모든 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욱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혼자서는 일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길 예비자를 태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엘리야 같은 인물입니다.(말4:5)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단계적으로

하나하나를 역사해 나가는 과정에서 파란곡절을 많이 겪으십니다. 그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세례 요한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해 줘야 하는데, 그가 주님과 부딪친 겁니다. 그것이 주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고비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비가 전화위복이 됩니다. 뭐냐?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 버리는 당시의 권력이면 예수를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여간해서는 죽일 수가 없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를 죽이는 선례를 남겼기 때문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가 한결 쉬웠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분입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사 53:6) 하신 겁니다. 그는 세상 죄를 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인이 우러러보는 위대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다면, 그런 길을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각본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 여건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천사보다도 못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히2:9) 그러므로 우리 눈에 위대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도록 예정하셨다면 하나

님은 십자가를 지는 여건을 조성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죽일 수 있느냐—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할 일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처참하게 고통을 당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져야 할 정도의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대접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지게 됩니다. 즉, 대역죄인의 길을 갈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된다.”(사53:3) 그 하나님의 각본대로 된 겁니다. 주님은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요19:30)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할 일을 끝냈다는 것입니다. 그 노선을 다 따라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영웅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죄인의 길을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그런 길을 가면서 하신 말씀이 복음의 전부인 줄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로 하여금 일부러 그런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게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거 하나 하도록 길이 정해진 겁니다.

그분이 그걸 다 끝내면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도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나와 함께 있던 영화

를 누리게 하소서.”(요17:5)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하실 일을 다했으니, 약속된 멜기세덱의 제사장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히5:10)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십일조를 받았습시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인용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은 아셨을 겁니다. ‘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길을 가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 주님이 3년 동안에 하셨던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초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독교는 그걸 진리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한계 안에서 하신 말씀을 따라 백역이 모여도 그 한계밖에 모릅니다. 아무도 그 선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열이 무엇인지 알아도 참여하기 힘든데,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십자가의 군병이 단시일에 배출되니까? 모인 수가 많으면 뭐 합니까? 그 수는 자랑스러울지 몰라도, 내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나를 두고 기록한 것이다.”(요5:39)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따르던 사람들이 다 도망갔습시다. 그래서 주님이 곧바로 하늘나라에 가지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가까이서 극진히 도와주던 마리아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시다.

“내가 죽으면 무덤으로 오지 말고, 갈릴리 앞바다로 오너라.”(마26:32) 하고 말씀했는데, 마리아도 주님의 시체에 기름을 발라 드리려고 무덤으로 찾아갔습시다. 주님이 평상시에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

까? 안 믿은 겁니다. 그래서 무덤으로 간 겁니다.

만일 갈릴리 앞바다에 백 명이 모이든, 천 명이 모이든, 주님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모였다면 일은 간단했습니다. 주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바로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40일 뒤에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누가 그들을 모아 놓았느냐? 주님이 모으신 겁니다.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만났다고 얘기해.”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달려갔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습니다.

열두 제자들끼리 모여 앉아서 “주님이 부활하신 걸 봤대.”, “나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아.” 열두 제자들이 로마 병정이라도 쳐들어와서 붙들어 갈까 봐 문을 꼭꼭 잠그고 모여 앉아서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난데없이 가운데 나타나신 겁니다. “평안들 하나!” 깜짝 놀라 벌벌 떨고 있는데, “도마야.” 주님의 못 자국을 만져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한 도마를 부르십니다. 주님이 도마의 말을 다 들으셨던 겁니다. “도마야, 나를 만져 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요20:27) 뭐 일일이 만져 봐야 아느냐, 의심이 앞선 거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40일 동안,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한 번이나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행1:4, 12 참조) 그냥 올라가셨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올라갈 때, 저 밑이 까맣게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갈 때 언제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면 항상 바깥창을 내려다봅니다. 제가 이상 중에 본 것이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이상 중에 체험한 일은 깐 다음에야 이상인 줄 알지,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상 중에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겁니다. 다른 것은 그 세계에 가서 알면 되고, 여기서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행적을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이상 중에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이 녹음테이프처럼 머릿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미더우면 실험해 보십시오.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매일 한 시간이나 30분 정도 기도를 해 보십시오. “이영수라는 사람이 진짜 이긴자인지 알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그래서 생수가 연결되면 “이거 진짜구나.” 하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 시험해 보시라 이겁니다.

안찰이 됩니까? 받는 사람에게 생수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비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생수가 강같이 흘러나온다. 그러나 당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생수가 없었다.”(요7:38) 그럼 그 생수는 뭐냐? 믿는 사람이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요7:39) 성령이 생수로서 연결될 수 있게 한다 이겁니다. 그

것이 당시에 안 됐으나, 지금 감람나무라는 역사 속에서 만들어져서, 따르는 가지들이 생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지금 성령이 저와 같이하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을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신호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주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고 싶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내가 자의로 말합니까? 자의로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것을 가지고 전하게 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16:13)** 이것이 다른 보혜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나, 여러분, 지금 훌륭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곳에 한번 가 보십시오. 저는 다른 목회자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아마 설교 준비를 반드시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설교를 한다고 주보에까지 나옵니다. 그분들은 준비 없이 단에서 설교하자면 무척 힘들 겁니다. 왜? 위에서 오는 게 없으니까.

그럼 이것만 봐도, 보혜사 성령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의 기름부음(성령)이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일2:27)** 그게 사실입니다. 설교하는 당사자가 예배를 인도할 때, 직접 성령이 와서 이상 중에 보여주셨던 것이 연결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이긴자 속에 임하여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신이 된다면 먹지도

말고 날아다녀야 합니다. 자가용이 뭐 필요합니까?

인간은 사실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들은 사람이 많이 따르면 곧잘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진실해야 역사에 남을 것 아닙니까? 거짓말은 전부 허공에 뜨고 맙니다.

이런 무리들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오늘날 주의 종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더합니다. 남들과 같은 줄 알고 어찌고저 찌고하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겁니다.

주님이 육을 입고 전하신 말씀이 4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 부활하여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과 같겠습니까?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독교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밤낮으로 참소하는 (계12:10) 마귀의 정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은 사단을 작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교회에서처럼 사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제 얘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지상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셨는가? 그 원인 분석이 정확히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당부하고, 마귀는 먹으라고 꾀었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먹지 말라고 하며, 사단은 왜 먹으라고 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과일은 먹으면 살고, 어떤 과일은 먹으면 죽습니다. 그럼 왜 죽으며, 왜 사는가? 이유가 있다 이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기 때문이고, 반대로 생명과일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먹는 쪽은 인간인데 먹어라, 말아라 하는 쪽은 신입니다. 이런 대립과 갈등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먹지 말라는 걸 먹으라고 핀 것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먹으라고 하는 측이 하나님이 이겁니다. 이렇게 양상이 다릅니다. 먹어야 한다는 것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그런데 신들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한쪽은 먹어라 하고, 다른 쪽은 먹지 말라 하는가? 왜 먹는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가? 서로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에게 인간의 육을 입혀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게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밖의 종을 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유리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과 신의 대결에도 작전상 후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든 기밀을 캐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야 모든 일이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단12:7)

용감하게 전쟁을 하다가, 상대를 어떤 구렁텅이에 유인해서 멸망시키기 위해, 후퇴하는 척하고 일제히 도망잡니다. 그러면 상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다가 포위되어 멸망하게 됩니다. 후퇴할 경우에는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는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합니다.(단12:7) 상대방이 갖고 있는 모든 비밀이 그때 드러납니다. 그리하여 전멸을 당합니다.

주님도 모르던 그날과 그때는 마귀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날이요, 때입니다. 마귀가 다시는 힘을 못 쓰게 결박하여 발등상 시키게 됩니다. 이것을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신과 신의 전쟁에서 감춰진 최고의 기밀입니다. 누가 그걸 정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면 이렇게 된다 하고 정하신 것입니다.

나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먹는 것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

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로 시작되어 오늘날 까지 죽 내려온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다시 먹어야 살고,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살과 피입니다. 어떤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에덴동산에서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는 것과,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하는 것에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가? 하나는 죄를 몰랐을 때에 영생하는 요건이고, 하나는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영생하는 요건입니다. 그 요건이 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럼 여기서 골자만 대강 알아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에덴동산의 생명과일은 먹으면 영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죄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영생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전에도 지적했지만,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레17:11) 그리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느니라.” (히9:22) 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제사를 지낼 때에 짐승의 피로 제물을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계5:9) 그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화목제물이 된 겁니다. (요일2:2)

그런데 주님은 이 제사를 2천 년 전에 드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럼 그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고 마시는가? 지상에서 주님의 권한을 대행하는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해서입니다. (계2:17, 26-27)

주님은 본래 인간이 아닙니다. 신입니다. 신으로 계시던 분이 인

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 분이 원상복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 가신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 주겠다.”(요14:16)고 약속했으면, 그분은 이 땅에 있던 나사렛 예수입니까, 본래의 신입니까? 본래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신께서 신(영)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이 보내 주리니,”(호14:5) 신을 이슬과 같이 느끼게 보내 주겠다 이겁니다. 느낌을 안 주면 신이 왔는지, 갔는지 모르니까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는가? 기독교는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로 대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리지 않던 트랜지스터도 사람이 안테나를 잡으면 한결 잘 들립니다. 왜 그런가? 전파가 우리 몸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손을 잡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기가 통합니다. 연결시켜 주는 전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부터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이 아닌, 생수의 성령은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통할 수 있고, 주님하고도 통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과 접하려면 저를 통해야 하고, 주님도 여러분과 접

하려면 저를 통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계 2:27, 21:6-7) 왜? 그것이 훨씬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시대에 너를 거치지 않으면 내게 올 수가 없다. 그것은 내 섭리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누차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만약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다면, 저 같은 것에게 섭리가 어떻게, 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냥 역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잖습니까? 그들을 통해 직접 역사하시면 됩니다. 구태여 이곳에서 따로 역사하실 게 뭐 있습니까? 그들을 통해 생수도 만들고, 이슬 같은 성령도 부어 주시고 하시면 되지, 구태여 몇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역사하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된다면, 주의 종에게 이래라저래라 하고 간섭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옛날에는 주님이 중보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나라에 갈 자가 없다.”(요10:9)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겁니다.

그러나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직접은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과 연결되어 전해 주는 자를 통해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계2:17) 거듭 강조하지만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만이 모여서 집회를 열어도 생수가 뭔지, 이슬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만 모릅니다. 만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불과 같은 성령만 달라고 합니다. 어디든지 다녀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나. 주께서 저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실 수 있다면, 뭐가 답답해서 저한테 “이렇게 해 다오. 저렇게 해 다오. 알곡을 만들어 다오.” 이런 말씀을 하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하는 얘기지만, 따르는 여러분은 알 것 아닙니까? 주의 종이 안찰을 안 해 주면 여러분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제가 생수 축복을 안 하면 시체를 피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번 해 보십시오.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며 매달리고, 애통해도 주님의 그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 생수의 성령이 금방 올 줄 아셨습니다. (마24:34) 부활하여 하늘에 올라가셔도 안 왔습니다. 120문도가 못 받았잖습니까? 생수도 못 받고, 불과 같은 성령만 받았습시다.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리라. 그는 이를 유업으로 얻으리라.” (계21:7)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약속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한 은총을 주님이 앞선 역사에서도 쏟아 부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수포로 돌아갔습시다. 그러니 하늘에서는 기가 막히는 겁니다. 사람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그 설명을 주의 종에게 하시고, 다시 세우라 하신 우리 역사가 오늘날까지 이어진 겁니다. 저까지 게 뭘니까? 저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을 이끌어 오면서 성서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면, 나를 따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설교 했지만, 다 정확한 진리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다른 보혜사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마귀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마귀가 가만히 둘 리가 없습니다. 못 만들게 가로막습니다.

Part 04.

생수의 은혜 안에서



21. 지상에서 주님이 가야 하는 노선(1) · 22. 지상에서 주님이 가야 하는 노선(2) · 23.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다 · 24.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쓰셨는가? · 25. 신과 신의 대결 구도 · 26.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Chapter 21.

지상에서 주님이 가야 하는 노선(1)



성경에 보면 주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요 8:58)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주로서 지당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하시고 하마터면 돌에 얻어맞을 뻔했습니다. 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요5:46)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한 대선지자입니다.

주님은 물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한테 갔습니다. 주님이 물세례를 받을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물세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물세례보다 더 귀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주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하기에 역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열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성령

이 충만하여 열두 지파에 대해 축복했습니다. 즉, 어느 지파는 어떻게 된다, 하고 야곱이 결정을 내려 버렸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3대 거두들의 줄기를 타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 혈통을 중요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종 모세를 어릴 적부터 길러 내셨습니다.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 모세를 강물에서 건져 내어, 궁궐에서 자라게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 되다 보니 모세의 형인 아론이 등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형인 아론을 대제사장의 첫머리로 삼으신 겁니다. 그리하여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에게 잘 보였던 겁니다. 다윗이 등용된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를 망쳐 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사단의 훼방으로 이처럼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대 땅에서 왕으로 등용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를 탄생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세레 요한의 경우는 어떠냐? 세레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

입니다. 제사장이 계속해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배출되다 보니까, 세레 요한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게 됩니다. 다른 지파는 십일조를 바치지만, 레위 지파는 십일조를 받습니다.

세레 요한은 레위 지파에서 태어나고, 메시아는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다 보니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메시아는 별 볼 일 없게 보이는 겁니다.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목수의 명목상의 아들인 예수님의 족보를 그대로 대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영광된 주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천사를 거느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지상에 오셨습니다.^(히2:9)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4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선(線)에서 끝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영광의 주님이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마3:17) 하고 비둘기같이 내린 성령은 여호와께서 주신 겁니다.

물세레는 세레 요한이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그럼 주님이 직접 나가서 내가 누구다 하고 증거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요한에게 일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메시아의 길 예비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 선지자는 죽지 않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의 분신이다.”^(말4:5)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럼 이제 우리가 엘리야라는 인물을 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어느 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셋을 데리고 산에 가서 변모하셨습니다.(마17:1-2) 이들 세 명이 잠깐 보니,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모세, 왼편에는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으므로 알아볼 수 있었고, 엘리야는 약대 털옷을 입었으므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표가 났던 겁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17:5) 이때 비로소 사랑하는 세 제자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주님은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마17:9) 하고 당부하셨습니다. 주님은 주님대로 생각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당신의 아성을 완벽하게 굳힌다면 주님을 감히 죽일 자가 있습니까? 죽일 자가 없습니다. 주님을 죽이기는 고사하고, 이 땅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주님은 대속의 제물이 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면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지 말라 이겁니다. 주님은 당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입을 봉하라 이겁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전략입니다.

전쟁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작전상의 후퇴도 있고 작전상의 비

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할 때까지는 바보가 되기도 합니다. 대원군은 아들이 왕으로 등극할 때까지는 방탕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살아남습니다. 우리 주님도 전략을 세워, 체를 안 한 겁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게 언제냐? “내가 부활한 다음에 사실대로 전하여라. 그때가 되기까지는 입을 봉하여라.” 이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증거했으나 나중에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옥중에서 불만이 싹튼 겁니다. ‘내가 메시아의 길 예비자인데, 나를 감옥에서 빼낼 생각은 하지 않고 세리나 기생들과 노닥거리다니’ 해서, 제자들을 주께 보내어 “오실 이가 정말 당신입니까?” 하고 묻게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의 큰 불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11:11)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 중의 하나는 자기에게 절하면, 즉 항복하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눅4:5-7) 그 권세는 마귀 왕초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는 마귀의 왕인 용으로부터 물려받은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에게 강력한 적이 없습니까?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주님이 간증하신 말씀입니다. 이것부터 일반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정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무조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면 오늘날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주님은 듣는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농사꾼을 대할 때와 어부를 대할 때와 상인을 대할 때가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나 하면,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하고 전제한 후에, 그 때부터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실상을 말하겠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요 16:7),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고,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너희에게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전하리라.” (요16:13) 이것을 기독교인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Chapter 22.

지상에서 주님이 가야 하는 노선(2)



기독교는 천국을 인간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천국에 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훗날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아버지께 가게 되면 지상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역사한다.”는 말씀이 그것입니다.(요16:13)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령사업은 다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이것이 지금까지 주장해 온 기독교의 고정관념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전부 비진리로 단정하는 것이 2천 년 동안 견지해 온 관례입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훌륭한 목자들이 그 고정된 틀 안에서 믿다가 세상

을 떠나곤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사11:1)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소위 말해서 육하원칙(六何原則)이 따릅니다. 주님을 당대에 만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따르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들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마13:17)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계시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다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서 만난다는 것은 대단한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이 땅에 보내려는 작업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대로 오셨으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계속됩니까? 끝나는 겁니다.

집을 설계대로 다 짓고 나면 준공식을 해야 합니다. 건축이 되었으니 이제 사용해도 된다, 이것이 준공입니다. 설계대로 끝났다이겁니다. 그러나 설계대로 짓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준공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배출시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을 했습니다. 그걸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섭리입니다.

주님은 “모든 율법과 강령은 세례 요한 때로 끝났느니라.”(마11:13)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인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은 요컨대 메시아를 탄생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이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에 세례 요한이 증거하기를 “나도 그분이 누군지 몰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네가 증거해야 할 인물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게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요1:33)

얼마 후에 세례 요한은, “이분이 내가 당신들에게 ‘저는 신들메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고 말한 그분입니다.” 하고 주님을 소개했습니다. 그게 언제나 하면,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네가 내일 물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네가 증거해야 할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알아라.” 해서 아침부터 요한은 긴장한 가운데 물세례를 준 날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날 것인가 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게 한 사람씩 세례를 받고 지나갔는데, 주님이 앞에 오신 겁니다. 주님이 세례를 받고 일어나려고 하자 머리 위에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

성이 요한의 귀에만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의 주님은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 나사렛의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주님을 하늘같이 받들지만, 그때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시가 간 겁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 출신으로, 따르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사람들이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아들이니,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사적인 생활에서 공적인 생활로 바뀌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생활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공인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즉,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여전히 “목수의 아들이다.”, “웃기는 놈이다.” 하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공인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됩니다.

요한이 증거를 한 대로, 주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움직여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들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 성령은 주님을 광야로 인도하여,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훈련을 시켰습

니다. 주님은 시험이 끝나자 갈릴리 앞바다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전도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앞두고 “내가 죽게 되면 무덤으로 오지 말고, 처음 너희들을 만난 갈릴리로 가라.”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공인으로 움직이기 전의 모든 발자취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만 공인으로서 활동하는 장면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할 일은 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의 한계가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해야 할 일이 각본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응하려 하심이라.”(요13:18)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음대로 말씀하고 행동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활동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러 왔노라.”(요4:34)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각본대로 움직이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각본이 가장 큰 것인가?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면 멜기세덱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권

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잘 아십니다. 전에도 말한 것처럼, 제자들이 주님에게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보좌에 앉게 되면, 나는 너희들에게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마19:28)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열두 제자들과 맺은 약속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지적한 대로, 천사가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계5:2) 할 때 사도 요한이 보니, 땅이나 하늘 위에도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펼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방성대곡을 했습니다. 주님의 존재 가치가 별것 아니라면 자기도 평생 고생한 대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할 겁니까? 언약한 주님에게 따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 “그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힘없는 어린 양과 같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사53:7)고 예언했습니다. 이런 존재로 오셨던 분이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이 하시는 행적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놓으셨는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 계셨던 주님은 영웅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게 하셨습니다.(사53:6) 그래서 사형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사형수입니다. 그래서 따르던 자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치라. ... 양이 흩어지리라.”는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슥13:7)

Chapter 23.

계시록은 성경의 결론이다



1) 계시록을 이루는 시대

시중에는 요한 계시록에 대해 해설한 책들이 많습니다. ‘요한 계시록의 영해’다, ‘요한 계시록의 특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여러 사람들이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 거기에서 거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은 대부분 지상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짚고 넘어갑니다. 상상을 많이 하게 된다 이겁니다.

요한 계시록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계13:18) 그것이 뭐냐? 마귀의 세력을 단적으로 나타낸 수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대충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들 논합니다. 저는 계시록을 강해할 때 단계적으로 얘기하면서 666의 숫자에 대해 알기 쉽게 조금 비추다 말았습니다. 그땐 얘기해 봤자 알아들을 사람도 없

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66은 하나님과 마귀의 대결이 3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세력을 표시한다고 제가 조금은 언급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내용을 모르면, 성경의 결론인 요한 계시록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가는 얘기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주로 하나님의 신(성령)과 마귀의 신(악령)이 대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신학자들이 자꾸 사람들에게 갖다 붙입니다만, 요한 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은 지구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내용은 모를지라도, 자기가 본 계시를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긴 세월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본 것을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성서와 동떨어진 얘기로 비춰질까 봐, 성서에 부합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성서와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하면 아무도 믿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까지 성서에 없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긴자도 두 감람나무도 성서에 있는 얘기입니다. 불교나 유교에서 따온 것도 아니고, 세상 학문을 인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제가 이긴자다, 감람나무다, 하면 무조건 이단 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비참하게 끝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교류되는 세상의 일들을 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등장한 두 감람나무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신과 마귀의 신이 대결하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여느 종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 계시록의 1장 1절이 그것입니다. 주님의 계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사도 요한이 메시아로 직접 섬겼던 나사렛 예수를 말합니다. 그 예수가 살아 있을 때 들려준 말씀이라면 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제로 움직인 행적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계시록은 글자 그대로 계시입니다. 신(주님)이 요한에게 지시한 내용입니다. 즉, 예수라는 나사렛 동네에 살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줘서 기록하게 한 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계시를 주셨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거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받으신 겁니다.(계5:7) 그 내용을 계시로 알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은 이 세상에 계시할 때 하셨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에 계셨던 주님에 대한 발자취를 전하는 분들이 전 세계 기독교의 목회자들입니다. 저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저는 현재 하늘에 계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주로 전합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왜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까? 덮어놓고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모세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신을 벗어라.” (출3:5)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모세와 함께한다는 언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하듯이 너와 함께하겠다.” (수1:5) 이렇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존재를 밝힙니다.

주님은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박 아무개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을 때 너는 나를 몰랐지만, 너한테도 기름을 부었다.” 덮어놓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말로 내가 이렇다 해서 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 계시록은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중에서 가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내용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요한 계시록보다 더 위대한 말씀이 이 세상에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을 능가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 2천 년 전부터 이렇게 성

경으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유언은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상식입니다. 당사자가 그대로 실천에 옮기면 그 유언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내게 대해 기록한 것이다.”(요5:39) 이 성경은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율법과 강령은 세례 요한 때로 끝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마11:13)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전한 모든 훌륭한 말씀의 주인공(메시아)이 나타났으므로 더 이상 이를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속을 누구에게 해 주겠다고 그 내용을 다 조목조목 적어 놓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몇 년 후가 됐든 그 장본인이 나타났습니다. 백 년 후에 나타났든, 천 년 후에 나타났든,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유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언을 실천할 사람이 나타나면, 그 유언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 당사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행하는 일만 남은 겁니다.

구약 성경은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님이 당신을 두고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 주님이 나타나시면 더 이상 그 말은 필요 없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부터 주인공 되는 사람의 말이 유효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요4:23) 사마리아 여인은 보잘것없는 아낙네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세계를 뒤덮은 겁니다. 왜냐? 그 말씀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전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는 시대가 아니오.” 제사를 드려야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면 하늘 아버지께서 받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주님의 시대가 펼쳐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운명하실 날을 앞두고 측근들만 모아 놓고 하는 기도가 그 유명한 마지막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를 기억하십시오.” (요17:5) 창세전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창세전이면 인간을 짓기 전입니다. 제자들이나 측근들을 앉혀 놓고 주께서 기도를 하신 겁니다.

주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니라.” (요8:58) 하고 말씀했을 때, “네 나이 50도 안 되는 놈이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하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주님이 피하신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먼저’가 육적인 얘기입니까? 영적인 얘기입니다. 공생활은 겨우 3년입니다. 이 3년 동안에 나사렛 목수의 일을 하던 사람의 행적이 오늘날 기독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런데 3년 동안의 행적은 주님에게 그야말로 새 밭의 풀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많으나 너희들은 지금 감당치 못한다. 땅의 얘기를 해도 모르는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늘의 얘기를 직접 하겠느냐? 그러나 다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면 너희를 진리 안에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16:12-13) 그러나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느냐?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계1:1)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섬겼던 제자 중에서 가장 젊은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해 죽었습니다. 그 후에 요한이 계시록을 쓴 겁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겁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상 중에 요한 계시록을 보여주시고 몇 장이다 하면 영화처럼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겁니다.

우리 역사 28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28년 동안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한두 가지 계시를 받아 가지고는 못합니다. 만날 똑같은 얘기를 써먹는다면 모르지만. 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누구나 양떼들에게 새로운 말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지루하지 않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합니까? 만날 비슷한 얘기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아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알기 힘든 것은 계시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면 내용을 알게 됩니다. 그냥 들여다보이는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본 사람은 세상을 넓게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나 외계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조그마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우물이 세계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세계에 비하면 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늘의 세계를 보지 않으면 성경은 깊이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세계가 어디냐?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세계를 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하늘의 세계는 신과 신이 겨루는 세계입니다. 요한 계시록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 내용이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입니까?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 계시의 내용을 알고 듣고 깨달아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강조하느냐?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물론 훌륭한 말씀이 많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뭐냐?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인 주님으로 말미암은 책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요한 계시록을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신학자

들이 내용을 압니까?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요한 계시록을 올바르게 설명하려면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 얘기라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은 세상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교회에 다니는 분들에게는 이상하게 들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는 겁니다. 많이 얘기해 봤자 나만 병신 되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주님하고 대화하는 장면을 여러분에게 전에도 설명했습니다. 니고데모가 창피해서 밤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학자로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 자존심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뭔가 특이한 존재라고 생각하기에 대화를 해 보려고 온 겁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성경에 기록됐지만, 결코 간단한 얘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습니다. 한 두 마디만 색다른 얘기를 하면 상대방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상대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못되지만, 그래도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 신이 같이하기 때문입니다. 속이 들여다보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상대가 됩니까? 니고데모는 주님께 자꾸 세상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보시오, 나는 주야로 하나님께 오르내리면서 보고들은 것을 전합니다.”(요3:11참조)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2) 계시록의 주인공, 이긴자

오늘날 여러분 중에는 주의 종이 하는 말을 정당한 얘기로 듣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제가 전하는 것뿐이지, 영의 세계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 사회도 대단한데, 신의 세계가 그렇게 간단하겠습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계1:3)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지상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걸 먼저 알아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말씀이 나올 때에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이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롬8:9)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신(보혜사 성령)을 주입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에는 모르지만, 마귀 앞에 가면 표가 납니다. 여러분이 신접해 있다는 표시 말입니다.

여러분이 은혜가 없는 것 같지만, 우상을 섬기는 장소에 가시면 대단한 존재라는 표가 납니다. 여러분을 마귀가 알아봅니다. 그래서 무당이 여러분을 보고 “고약한 자가 왔다.”는 등, “채수가 없다.”는 등, “점괘를 망쳤다.”는 등, 투덜거릴 겁니다.

주님이 계시로 알려 주신 내용을 깨닫고 또 알아서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요한이 말했으니, 제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이 땅에 계시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도 하늘에 오른 주님이 전하는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면, 요한이 그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을 때의 가르침에 따라, 전도하고 자선도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서 가르친 내용들보다는 하늘나라에서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신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계시로 지시하신 내용은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첫머리에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계1:3)

요한은 육을 입고 오신 주님과도 가장 가까웠던 제자이고, 하늘에 오르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기록한 인물이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진 바요, 피부로 느낀 바다.”(요일1:1) 하고 증거했던 겁니다.

이런 요한에게 주님은 본체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주님의 그 본체를 알아봤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절할 것처럼 쓰러졌습니다.(계1:17) 이상 중일지라도 사실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상 중이니까 죽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다가도 이상하게 사뿐히 내려앉게 됩니다. 하나의 영적인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국무총리였습니다. 그는 지금처럼 전등은 없어도 밤에 환하게 불을 밝혀 놓았는데, 이상을 보고 굉장히 무섭고 떨려

까무러쳤던 겁니다. 우리도 무서운 꿈을 꾸면 가위에 눌려 기운이 쭉 빠집니다. 이상 중에 마귀의 세상에 끌려갔다 온다든가, 마귀와 대결한다든가 하고 나서 눈을 뜨면 식은땀이 흘러서 이불이 젖기도 합니다. 그때 싸하고 성령이 옵니다. 그러면 성령이 보여주시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이 계시에 의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인천성회 건축을 할 무렵입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지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너를 따르는 양떼들의 손으로 하여라.” 하셨습니다. 또 알곡성전을 지을 때에도 성도들이 어울려서 작업복을 입고 길을 닦는 것을 보여주시고, “서둘러라.” 해서 급히 그 길을 내었다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알곡성전은 지붕만 덮어도 다행이다 하고 시작했는데, 오늘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규모가 큰 부속 건물들까지도 계속 올라가는지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위에서 보여주시면 그대로 뛰었을 뿐입니다.

뭘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우리 교인들의 숫자로 보아 필요도 없는 건물인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자꾸 보여주시니까 이렇게 해야겠구나, 저렇게 해야겠구나, 해서 하나에서 열까지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앞으로 제가 할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면 공사 현장에 올라갑니다. 주위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보여주셔도 지상에서는 제가 하는 겁니다. 제가 집을 지어 보길 했습니까? 가난하여 밥 먹기에 바쁜 놈이 어디 놀러 다녀 보길 했

습니까? 아내가 “총회장님, 스키나 한 번 타보시죠.” 해서 한 번 타봤습니다. 저는 스키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산 사람입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이상 중에 밤 따고, 포도 따는 얘기를 했습니다. 말한 그대로입니다. 빼고 더하는 거 없습니다. 저는 이상 중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전하지 않습니다. 전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저는 심부름하는 위치에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을 내세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하도 안 믿는 시대기 때문입니다. 하긴, 별 종교 단체가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등.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칭 예수가 2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저도 종교 단체를 이끌어 가는 사람이지만, 그런 신경화가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목회자들이 생기는 것은 양떼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양떼들이 종교 지도자가 특출한 무엇을 갖고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저들은 이런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양떼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인들을 감언이설로 속여 교세를 늘립니다. 나중에 지옥에 갈망정, 현재 숫자만 많아지면 최고니까.

여러분들,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장담할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을 뒤흔기 산 사람도 당신 암이야, 에이즈야, 이러면 그 말 한마디에 팍 갑니다. 이걸 사형 선고입니다. 암이나 에이즈 자체가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 아닙

니다. 자기에게도 곧 죽음이 닥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맞이할 수 있는 힘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목숨을 버리면서 영의 세계를 바라고 활동했던 기라성 같은 인물들 말입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주의 종은 숙연하여 가슴속 깊이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 양떼들만큼은 제대로 가르쳐 진리를 깨닫게 해 주어야겠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분명한 것은, 제대로 믿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여러분의 친척이라 해서, 저는 그의 영이 영의 세계에서 버림받지 않게 해 드렸습니다. 그들은 생수 축복으로 순교자들처럼 아름답게 변모되어 갔습니다. 여러분은 간단하게 볼지 몰라도, 앞선 역사와 우리 역사가 아니면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다른 건 여러분이 믿지 않더라도, 이건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이니 믿어야 합니다.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리라.”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말씀이 지금도 귀에 쟁쟁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서 하신 이 말씀을 이상 중에 듣고, 저는 깨어나서 그 자리에 가서 종각도 바라보면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했습니다. 누가 믿어줄 겁니까? 그래도 저는 희희낙락 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날 저의 인생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속을 뒤집어서 이렇다 하고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죄, 유전죄, 자범죄—이 세 가지 죄가 도말되어야 세 마포를 입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노력으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과 같은 성령을 받아도 순교를 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에 ‘한 돌에 일곱 눈이 박혀, 제할 것은 제하고 정할 것은 정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슥3:9, 계2:17) 이걸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이 다 매장시켜도 이걸 사실입니다. 성서적인 사건입니다.

내가 한 말이 성서에 맞지 않으면 날 얼마든지 비방해도 좋지만, 내 말이 성서와 맞으면 인정하라는 얘깁니다. 한편 내가 한 말에 성서적으로 틀린 것이 있으면 지적하라 이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밝혀야 하는 큰 과제입니다. 우리 역사는 조용히 이뤄 나갑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목에 힘을 주지 않습니다.

옛날 남들이 욕한다고 노아가 일일이 말대꾸를 했습니까? 묵묵히 할 일만 했습니다. 바보다, 미친놈이다 해도 노아는 배 짓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드디어 배가 다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고 짐승을 몰아줘서 문을 딱 닫았습니다. 이어서 엄청난 폭우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습니다.(창6:7) 그러나 인간은 신의 세계를 다는 모릅니다. 단지 신의 움직임을 엿보는 차원에 그치는 정도입니다. 우리가 그 이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있고, 구원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결이 없이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

다. 우리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하고 철야하면서 금식기도를 해도 주의 보배로운 피, 즉 생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고 다른 신이 오게 되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주의 이름을 불러도 보혈의 은총을 입지 못하고 다른 신이 장난하는 시대입니다. 전 그것을 우리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내 말을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왔습니다. 오늘날 감람나무 시대가 아니었다라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불의 성령이라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을 길이 막혀 버린 겁니다.(계11:6)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면서, 앞선 역사의 주인공처럼 아전인수(我田引水) 격으로 성경을 해석한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나 기도원에서 십자가를 우러러보고, 가시관을 쓰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하는 칭호를 갖고 움직이지만, 그런 분들에게 항상 동정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저의 그런 심정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영의 세계에서 버림을 받는 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그 진실한 믿음을 인정받아 건짐을 받을 수 없을까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선 섭리의 깊은 뜻을 주의 종에게 더욱 강조하셨고, 또 이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셨던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 믿지도 못하고, 심지어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제가 축복한 생수를 통해 그토록 애통하고 애써도 변할 수 없는 시체가 아름답게 변하여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축복할 때, 성령이 저를 통해서 나가는 것을 저는 실감합니다. 그것이 주의 보혈이요, 그리스도의 살, 곧 생수의 성령입니다. 이런 은총이 왜 오늘날 이긴자 감람나무라는 존재를 통해서만 있어야 하는가, 어디서나 진실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총이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저를 통하지 않으면 그런 은총이 나가지 않고, 누구도 새로운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이곳에 오셔서 의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납득이 가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한 발짝만 바깥에 나가면 훌륭한 교역자들이 몇 부제로 예배를 보는데,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조차도 과연 여기만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고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저 자신부터가 이런 섭리를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옳은 말을 하고도 사이비라는 소리를 듣는 것은 왜냐? 그들에게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다 보니, 우리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 안타깝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이 은총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왜? 사실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가장 괴로운 문제입니다.

내가 일반교회의 목회자들처럼 설교를 하면 아무도 거부반응 없이 믿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교인들은 여기 와서 설교를 듣다가 신발을 들고 돌아갑니다.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정이 우리가 오늘날 따르고 있는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강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부인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섭리입니다.

지금 현재도, 그리고 백 년, 혹은 천 년 전에도 지구상에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성서에 나타나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아직 채워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억조창생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주님을 믿고 지나갔는데도 그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그까짓 14만 4천이 아직 안 되다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한 애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어떻게 아시겠느냐 이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설교하거나 전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오면 오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합니다. 신앙은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누가 왔을 때도, 내 식구를 만들어 보려고 달라붙어서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올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갈 것이고, 한 사람이 믿어도 저는 같은 말을 할 겁니다. 저는 제 할 말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모인 숫자는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를 통해서 내 것이 나간다. 그런고로 너를 만나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 되느니라.”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들은 그대로 알려 드렸습니다. 남이 볼 때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대행한다는 말처럼 세상에 사이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걸 제가 전했다면, 저는 천하의 사기꾼 소리를 들어 마땅합니다.

오늘날 세상이 나를 매장시켜도, 따르는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가도, 주님은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생수는 썩은 시체를 아름답게 변하게 하고, 안찰로 죄를 소멸시켰습니다. 세상이 뭐라던, 성령은 저와 함께하셨습니다. 천하가 저를 짓밟아도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왔습니다. 천지는 없어질 지라도, 주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마 24:35)

저는 주의 심부름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배달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면서도 한 번도 얼굴을 사회에 내놓은 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주의 일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나머지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역대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작은 다 잘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개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용두사미(龍頭蛇尾)인 겁니다.

인간은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거기서 거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죄인입니다.(시51:5)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공경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남들이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하고 백 번 칭찬하면 뭐합니까? 주님과 연결이 없으면 헛것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롬8:9)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된다면 14만 4천은 벌써 차서, 사단이 작살나고 하나님의 숙원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보시다시피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송한 장을 불러도, 한 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한 번 주님을 불러도 진실하라는 겁니다.(계17:14) 진실 속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계2:26, 11:3) 그러나 나는 그 권세를 절반도 쓰지 않았습니다. 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지도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람나무다, 이긴자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러주지만, 이것은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달게 받고 있지만, 저는 주님을 일평생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주님이 이렇게 하라는 사명이 제게 와 있으니깐 제가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여러분들 못지않게 일을 합니다.

나는 새벽 네 시면 깽니다. 어떤 때는 세 시에 깽니다. 그래서 캄캄할 때 집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한테 본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평생 나는 주의 일만 하다가, 그 일이 끝나 주님이 칭찬하시든, 데려가시든, 그건 하늘에서 하실 일이고, 나는 섬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다고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에덴성회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구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탄 맘먹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백만 명이 와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나. 그동안 별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우리 제단에 왔다고 해서 그에게 헌금을 좀 해 주십시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손을 내민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 푼 한 푼 아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알려 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이

역사를 따르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문제이지, 저는 그것까지 참견하지 않습니다. 그건 월권입니다. 하나님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죄인이 사함을 받아서 옳은 사람이 되려면 주를 닮아야 합니다. 기도할 때만큼은 겸허하게, 무릎에 못이 박히도록 매달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믿은 지가 오래 됐는데도 마음이 냉랭합니다. 저는 믿노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자기 잘난 줄만 알고 살아 왔습니다.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이 많으니,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고 안타깝게 계속해서 매달려야 합니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감정대로 살면서 거듭난다면 오산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예비한 그 세계에 갈 준비를 착실히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괴로워도 저를 따르셔야 하고, 저는 괴로워도 여러분을 천국 곡간에 인도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따르는 양떼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해 드리고 싶지만, 마귀는 여러분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동안에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앓아왔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악령이 틈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요한 계시록의 주인공은 이긴자 감람나무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긴자 감람나무가 나타나야 요한 계시록의 수수께끼가 풀

리고,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긴자 감람나무 역사에 대하여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슥4:14\)](#) 주님이 확인하셨습니다. [\(계11:4\)](#) 스가랴는 감람나무 역사에 대해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한 것처럼, 감람나무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그런 감람나무 시대에 태어난다면 감람나무를 직접 볼 수 있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스가랴는 잘 압니다.

Chapter 24.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쓰셨는가?



1) 삼손을 통한 하나님의 뜻

오늘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진리를 깨달을 때 소망을 갖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소망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영으로 시작했는데 육으로 돌아가, 영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고 세상 것만 마음속에 짝차 있다면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나 그것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요한 계시록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계22:18-19) 인간의 두뇌로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김 서방의 해석, 박 서방의 해석이 각각이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들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빨간 줄을 쳐 가면서 이 구절, 저 구절을 연결하고, 구절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각도에서 논하여 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면서 옥신각신 해 봤자 그러다 죽고, 저러다 죽고, 하는 겁니다.

요즘 제가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창세기에 관해 조금씩 드러내고 있는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많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도 하고, 이게 진짜인가, 이영수의 말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자니 일리가 있고, 믿자니 배우지 못한 사람의 얘기라 난처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고간 얘기만 추려서 기록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여호와의 깊은 사정을 알 수 있느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천사가 작은 책을 들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계10:2)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에게 삼손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삼손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를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설명해 드린 겁니다.

‘삼손과 들릴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관람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비타 마초가 주연했습니다.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상연했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그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입장권을 살 돈이 없어서 몰래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봤는데도 오늘날까지 잊히지 않는 장면이 있습니다. 삼손이 다곤 신전에 끌려와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하고, 눈알을 뽑겼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그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신전 기둥을 밀어젖히는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도 어떻게 사람이 그 육중한 신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나는 삼손이 그 신전을 밀어젖힐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지진이 난 것도 아닙니다. 삼손의 힘에 의해 신전이 와르르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 포클레인 두 대가 양쪽에서 밀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건물일 겁니다. 그걸 사람이 쓰러뜨린 겁니다. 포클레인의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 정도의 힘을 삼손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삼손에게서 그런 힘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주님 앞에 끌고 왔을 때 주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요8:7) 하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무슨 글을 어떻게 쓰셨는지,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나중에 여인이 혼자 남은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타일러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모인 사람들이 그 여인보다 자기가 조금도 부족할 게 없다면 도망갑니까?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 여인보다 더 나쁜 놈

들이야.’ 하고 글로 쓰신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기쁨부음(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겁니다.(고전2:10) 그러자 사람들이 쾩기니까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에게는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브닌나는 먼저 자식을 낳고 큰소리 뽕뽕 쳤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갈 중에서 먼저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낳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내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낳은 자식이므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당시에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자식들이 아주 망나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의 자식들을 못마땅하게 보셨습니다. 엘리가 죽으면 이 자식들이 제사장의 뒤를 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여인의 자식을 후계자로 삼아야겠구나 하고 걱정하신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한나를 눈여겨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천사들이 보고해도 필요 없는 자에게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너는 아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통달합니다.(고전2:10)

한나는 그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보는 데서 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가 중얼중얼 뭐라고 하니까, 엘리는 이 여인이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좀 헬렐레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얼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느냐?”고 채근하니까 한나가 “제사장님,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간절한 소원을 말씀드린 겁니다.”(삼상1:15) 하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의 움직임을 못마땅하게 보실 때 한나가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되면 나한테 바치겠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내가 축복해 줘야겠다.’ 해서 사무엘이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한나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제사장 엘리의 아들 대신으로 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엘리의 아들들은 다 죽었습니다.(삼상4:11) 하나님이 치셨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무엘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하여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여겨 노여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식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다음에 삼손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손은 또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삼손은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자식을 얻은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리하여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녀에게 나타나 말하는 겁니다.

“아주머니는 아기를 못 낳으시는 분입니까?”

“그래요. 전 아기를 낳지 못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왔는데, 당신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삿 13:3)

생전 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아들을 낳는대요.”

“별 웃기는 놈을 다 보겠네. 당신이 아기를 낳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 사람의 말을 들어 보니 아무래도 심상치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마치 천사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 사자가 여인에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남편 마노아가 사자를 만나서 “당신이 집사람에게 아기를 낳는다고 말한 모양인데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사자가 대답했습니다.

“그 자식은 자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의 압박에서 구하기 위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그는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 같은 부정한 것을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마노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기묘(奇妙)라고 하오.”

“그렇다면 당신은 보통사람이 아니니, 당신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제사를 지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반석 위에 제물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기모라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하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삿13:20)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무엘의 부모나 마노아 부부가 자주 잠자리를 같이해도 자식이 없다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때 자식이 생겼다면, 그녀들에게 어떤 변화가 없습니까?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태어났지만, 삼손의 경우는 다릅니다. 이번에는 삼손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삼손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삼손이 태어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사나운 블레셋 손에서 건져 낼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블레셋의 압박에서 이스라엘을 건져 내기 위해 삼손이라는 인물을 들어 쓰시는 거요.”(삿13:5)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면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아기 때부터 무엇이 필요합니까? 힘이 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삼손을 험한 데서 자라게 합니다. 하늘에서 쓸 만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환경부터 마련해야 하니까. 그래서 삼손은 험한 산골짜기나 거친 벌판에서 자랐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삼손에게 과격하고 포악스러운 성격을 갖게 하십니다.

삼손은 자라면서 서서히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

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능력이 임합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해야 하는 인물이니깐. 그게 삼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반인과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삼손은 장성하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삼손의 머릿속에 블레셋을 까부쉬야 한다는 사명감이 깊이 박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입니다. ‘블레셋을 쳐부수려면 블레셋을 알아야 한다. 블레셋을 알려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으려고 했더니 부모들은, “아브라함 자손 중에도 여자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취하려고 하느냐?” (삿14:3) 하고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모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가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의 말은, 옳은 것 같아도 틀린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다른 겁니다.(사55:8) 삼손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블레셋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 블레셋에 대한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적을 알아야 이깁니다.

우리는 여기에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움직일 때 평상시의 삼손의 힘하고 전혀 다릅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열두 사사 중에서 마

지막 사사로 20여 년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일일이 지시한 경우는 별로 없었던 인물입니다. 전쟁할 때마다 힘만 주셨지, 지혜롭게 행동하도록 사전에 통고하여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2)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치리

삼손은 기드온처럼 특공대를 조직하여 적을 무찌른 것이 아니고, 혈혈단신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는 혼자서 전쟁을 한 하나님의 사사였던 겁니다. 그런 투쟁 생활이 약 20년 지나갔는데, 성서에 그 20년 동안에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육적으로만 전개됩니다.

이처럼 삼손은 혼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있던 블레셋 군에게 힘으로 대적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군림했던 겁니다. 그런 적과 싸우기 위해 하나님이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여자를 취하게 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들과는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주인공인 모세도 이방 여인을 취했다고 해서 말이 많았던 겁니다. (민12:1)

삼손이 장성하여 장가를 들기 위해 블레셋 여자를 택한다는 것부터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논란거리가 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의아하게 생각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에게 신

붓감으로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삼손의 부모들은 하나님의 그런 의도를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삼손은 자기 맘대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삼손 한 사람을 내세워 블레셋 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위해 키웠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을 고립시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을 취하게 하는 겁니다. 삼손이라는 총각이 느닷없이 신붓감으로 블레셋 여자에게 장가가겠다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삼손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민족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 삼손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깝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삼손은 노아처럼 배를 만들거나, 선지자들처럼 죄를 회개시키는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삼손은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억세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불과 같은 성격을 지녀야 합니다. 이런 성격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하여 이성을 알게 되는 나이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했습니다.

전에는 블레셋이 안중에도 없던 삼손입니다. 그러다가 나라를 위하는 나이가 되자 하나님의 신에게 감동되어, 자기 민족 가운데서 여자를 택하지 않고 블레셋 여자를 택합니다. 그러자 온 집안이 떠들썩한 겁니다. 게다가 결혼식도 자기 나라에서 하지 않고

이방의 신부 집에 가서 일주일씩 잔치를 베풀 겁니다.

어느 날 결혼식을 앞두고 신붓감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여 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그곳을 지나가다가 벌떼가 만든 꿀을 훔아먹기도 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블레셋 여자 집을 자주 내왕하다 보니 자기 민족보다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삼손은 시작부터 이해가 안 가는 일을 한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도 삼손을 따듯하게 맞아 주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 삼손은 자연스럽게 블레셋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원수는 가까운 사이에 생기게 됩니다. 가까운 사이가 잘못되면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삼손은 이들을 쳐부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애굽인이 자기 민족과 다투자 때려죽였습니다. 그래서 살인범이라 미디안으로 도망간 겁니다. 애굽에서는 모세를 천하의 나쁜 놈으로 보는 겁니다. 애굽의 궁궐에서 자란 놈이 애굽인을 쳐 죽이고 도망갔으니, 얼마나 화가 납니까? 잡히기만 하면 목숨이 날아갈 판입니다. 이 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되게 하고, 애굽 왕(바로)한테 가라는 겁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기의 적수가 애굽의 바로인데 그를 찾아가라고 하니, 모세가 갈 마음이 생깁니까?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지시를 받은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 시스로 간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나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보지 못한 사람은 그런 연유를 잘 모릅니다.

호세아 같은 선지자는 어떠냐? 하나님께서 집을 나가 창녀가 된 아내를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애깁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음탕함을 일깨워 주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을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모세의 경우를 다시 살펴봅시다. 애굽 왕(바로)이 모세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모세는 살인범이라 자기가 바로에게 가면 처형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간다고 물러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겨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자 능력으로 부딪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결국 바로가 모세를 놔주고 나서, 다시 쫓아오고, 홍해가 갈라지고 합니다.

주위가 조용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종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취하고 싶어서 데려온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신이 블레셋 여자를 데려오도록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건 여호와와의 의도에 따라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마음을 격동시켜 블레셋 사람들을 증오하게 합니다. 그래야 삼손이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삼손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건을 만드는 겁니다.

삼손이 블레셋 처가에 가서 결혼식을 끝내고 삼손과 친한 하객들 30여 명과 얘기를 나누다가 친구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여보게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테니, 이걸 맞추면 내가 겔옷 30벌을 주겠네. 그러나 맞추지 못하면 자네들이 나에게 옷을 내놔야 해.” 하고 블레셋 친구들과 내기를 한 겁니다.

그 수수께끼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 것이 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삿14:14) 삼손이 전에 잡아 죽인 사자의 몸에서 꿀을 훔아먹은 것을 본으로 한 수수께끼였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네들과 잔치를 베푸는 한 주일 동안에 그 수수께끼를 풀어야 해.”

블레셋의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 큰일 났습니다. 수수께끼를 맞히긴 해야겠는데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에게 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라도 삼손에게서 그 수수께끼의 내용을 알아내어 우리에게 알려 줘야 해.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네 친정집을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공갈하는 바람에 삼손의 아내는 만날 그 수수께끼의 의미가 뭔지 알려 달라고 조르는 겁니다. 그러나 삼손은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얘기를 부모한테도 한 적이 없다.”고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도 조르

니까 귀찮아서 삼손은 그 사자에 대한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그리하여 그 얘기가 삼손의 친구들에게 흘러들어간 겁니다.

한 주일이 지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알아왔나?” 하고 친구들에게 묻자, 한 친구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삼손은 아내 때문인 것을 알고 화가 났으나, 약속대로 그들에게 옷 30벌을 갖다 주었습니다. 그 옷은 블레셋 사람 삼십명을 죽이고 빼앗은 옷이었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화를 내고 집에 갔다가 처가에 돌아왔더니 장인이 사위가 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과 이미 결혼을 시켰습니다. 삼손은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 꼬리에 불을 붙여서 아직 수확하지 않은 블레셋 사람의 밀밭으로 몰아가 잣더미로 만들었습니다.(삿15:4-6)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이 삼손 때문인 것을 알고 그 처와 장인을 죽였습니다. 이에 삼손이 또 화가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유다로 쳐들어와 삼손을 내놓으라고 하였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단단히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하여 밧줄이 금방 풀렸습니다. 이와 같이 삼손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 움직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헤아릴 길이 없는 겁니다.

외톨이가 된 삼손 앞에 나타난 여자가 유명한 들릴라입니다. 그녀는 삼손을 꺾어서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정부에서 들릴라를 매수한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상대로 혼자 싸우는 엄청난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사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혼자 역사한 사람은 삼손 한 사람뿐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인 순간부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은 보복과 보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원수가 되면서 삼손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그중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서운 장면은, 바로 당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죽인 겁니다. **(삿15:15)** 당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죽일 정도라면 그 힘이 오늘날 고성능 포클레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클레인에 공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부딪치면 사람들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열 명, 스무 명은 한꺼번에 추풍낙엽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의 힘이 아니면 1,000명을 때려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공할 힘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귀를 다루는 방법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싸우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해 나가십니다.

원수는 멀리서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가까운데서 옵니다. 주의 종하고 원수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격동시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는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도 돈을
궤를 맡아 가장 가까워서 움직이던 가롯 유다가 팔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제가 이 역사를 맡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이 그겁니다. “너는 성서에 기록된 감람나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겁
니다. 1973년도 3월 18일 새벽, 이상 중에 “일을 시작해라. 저 안이
시급하다.” 하고 앞선 역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월
에 단에 섰다가 해고당하자 10월 2일에 “따로 해라.” 해서 따로 시
작한 것이 우리 역사입니다.

앞선 역사가 붕괴되어 일이 굉장히 어려워져도 밀고 나갑니다.
이건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그래서 일을 맡기
는 분은 종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업자에
게 힘든 일을 시키게 되면 돈을 많이 줘야 합니다. 어려운 공사를
맡길 때에는 청부업자를 이처럼 대우해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공사를 제대로 합니다.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탄에
빠져 심히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
으면 일을 못합니다.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계엄사
령관에게 특권을 줍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
관이 국사를 적절히 수행합니다. 그때는 평상시와 다릅니다. 그걸
비상시기라고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을 두 번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
령은 2차 세계대전 때 나라가 위급하니까 네 번을 했습니다. 그 대

통령이 하던 일을 마저 하여 나라를 일으켜야 한다고 국민들이 파격적으로 밀어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외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삼손이 하는 일이 일반 선지자나 사사가 하는 것과 같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삼손은 획기적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평범한 지시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상사태에 걸맞은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런 인물의 언동을 평범한 원리 원칙에 따라 백 번 떠들어 봤자 맞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자체에 맞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삼손에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손을 들어 쓰시는 의도에서 비춰 볼 때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블레셋 군대하고 싸우는데도 그런 비밀이 오고 가는데, 온 세상의 주를 모시고 선 앞선 감람나무 역사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일을 맡은 주의 종이라면 내용적으로 여러분이 이해 못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서 지식, 이것 가지고 백 번 얘기해 봐야 이긴자가 하는 일에는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주의 종을 따지고 의심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다 쫓아내는 겁니다. 제가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다 쳐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쳐 버리는 조건을 만듭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주의를 줍니다. “조심해라.”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안 믿습니다. 안 믿다가 결국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삼손이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내려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주님의 경우도 보십시오. 주님이 광야로 40주야를 굶으러 가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데려가는 겁니다.(마4:1)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할 때는 하늘에서 그런 지시를 안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서 하늘에서 하실 일을 시키기 위해 그를 광야로 보내어 40주야를 하나님과 교류하게 하면서 영적으로 해야 할 일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저는 감람나무가 해야 할 일에 대해 하나님과 주님으로부터 3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만큼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힘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블레셋 군사들과 싸울 겁니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Chapter 25.

신과 신의 대결 구도



우리는 여호와를 공경하고,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있는데, 이것을 흔히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인간과 신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이 인간과 교류했던 발자취를 볼 수 있고,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실제로 오고 갔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랬구나.’ 하고 어느 정도 아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과 다른 신, 막연하게나마 성서에 나타나 있는 어둠의 신, 즉 사단이라는 이름의 신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이 감히 상상하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 하나가 스가랴서에 나와 있습니다.(슌3:2-5) 사단과 천사가 보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그것입니다. 그것

은 신과 신끼리 오고 가는 문제를 선지자 스가랴가 이상 중에 보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윤곽이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요한 계시록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큼니다. 거듭 말하지만, 주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계2:7 등) 하고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특별히 당부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지난 2천 년 동안 이 중차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하지 못한 채 오로지 양적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굳어 버린 마당에 혁신적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옳은 얘기라고 인정받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귀가 없으면 요한 계시록을 알기 어려운 겁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할지라도 중구난방이지, 정확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귀를 갖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 답을 얻는 길은 미로와 같아서, 아무리 가 봤자 마냥 헤매다가 제자리로 돌아오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낯선 말씀을 서서히 깨달아 체계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에게 말씀을 터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과 신의 움직임을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신 것도 예수님과 인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주님이라는 존재와 마귀라는 존재 사이에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는 인간이 가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소위 마귀의 괴수인 용의 아들이 서로 대결하는 것입니다.(눅4:6 참조)

이것은 우리와는 동떨어진 문제입니다. 주님이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든가, 행하신 기적은 인간을 상대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도 가고, 또 그러한 은총을 받고자 하는 욕구도 생길 수 있지만, 신과 신끼리 일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속수무책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아닌 마귀의 신의 존재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 스가랴의 마음에 번거로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미처 몰랐던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없으면 항상 머릿속에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태초로 다시 한 번 거슬러 올라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약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왜 죽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하와는 죽는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왜 죽는지, 그 까닭을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죽는다는 것 자체도 실감이 안 나는 얘기입니다. 죽

지 않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과일을 먹고 나니, 못 보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몰랐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 자연히 마음이 달라집니다. 하나만 알다가 또 다른 존재를 알게 되면 사람은 시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인류에게 하나만 알게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겁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출20:3)는 것이 하나님의 첫째 계명입니다. 즉, 여호와 이외에는 다른 신을 모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르러 상대를 알아야 할 경우에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넌 알면 안 돼. 몰라야 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끌어 가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알고 대처해야 해.” 이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변합니다. 똑같은 방법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65권이 하나님을 위주로 하거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신도들에게 가르쳐 온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요한 계시록에 와서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신끼리 전쟁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측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마귀를 어떻게 완전히 멸하는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기독교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차원하고,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말씀을 존중하여 하나님을 믿는

차원은 전혀 다릅니다. 양상이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는 시대에 보수와 혁신은 어쩔 수 없이 부딪치게 됩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 바울과 베드로도 부딪쳤습니다. 베드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셨습니까? 천만에 말씀입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사단아!”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스가랴가 기록한 겁니다. “사단아, 네가 내 종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같이 만든 놈이 아니냐?”(슥3:2) ‘너는 더럽히는 존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을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고 나서 시커멓게 만든 것을 ‘내가 정결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 마귀의 대화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사람입니까? 신입니다. 신이 신을 상대하는 겁니다. 주님은 마귀를 상대로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발등상 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소임입니다. 누가 기다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시110:1) 주님이 직접 싸우신다면 기다리신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직접 싸우시는데, 뭘 기다립니까? 기다린다는 건 뭔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제삼자가 하는 것입니다. 주

님은 마귀가 발등상 되게 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육적으로 볼 때 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으로 존경받고 있는 여호수아를 마귀가 더럽혔다면,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납득이 가는 애깁니까?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눈에 거룩하게만 보이는 제사장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보여 추앙을 받아 마땅하지만, 신이 보실 때에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럼 시커멓게 된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게 아닙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여호와께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아끼고 천사가 지키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사단이 더럽힐 정도라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그렇게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여러분에게 깊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싶어도 자칫하면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서에 의해 설득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했지만,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세상일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 일을 얘기하면 어떻게 알아듣겠느냐.”(요3:12)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물며 요한 계시록에 쓰여 있는 영적인 말씀이 터지는 시대인데, 비밀의 말씀을 어떻게 쉽사리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

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핍박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사단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성경만 대충 소개하고 안찰해서 병이나 고치면 저를 핍박할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예수님이 기적이나 행하시는 분이라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당신을 누구라고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핍박받으신 겁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단이 더럽혔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천사가 여호수아를 지켜도 마귀가 더럽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입니까? 신의 섭리를 설명하는 일은 무척 힘듭니다. 자칫하면 일반교회에서 어찌고저찌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체계가 서신 여러분들까지도 머리가 멍할 정도의 말씀입니다.

천사가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새까맣게 만들어 버렸다면, 하나님을 믿는 일반 사람들을 더럽히기란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럼 백만 명, 천만 명이 하나님을 믿어도 누가 더럽힙니까? 마귀가 더럽히고 맙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마귀가 다 더럽히는데, 그거 소용 있습니까?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그 대책이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목회자가 유식하고 훌륭한 인격을 소유했다고 알 수 있는 일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성경 구절이 무슨 뜻인지 깊이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책이 뭐냐? 이새의 뿌리에서 연한 순이 나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사53:2)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마1:16)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 주인공이 주님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지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내 아버지께, 즉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요10:9)

옳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이 가로막기 때문에 못 갑니까? 어둠의 세력이 가로막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사단이 더럽혀도 순식간에 변화시키는 여건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는 겁니다.

에덴동산에서 평안히 살고 있는 아담, 하와를 빼앗아 가는 마귀의 역사가 있었다면, 하나님은 빼앗긴 사람을 하늘나라로 다시 빼앗아 오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생수의 성령은 이긴자 감람나무를 통해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을 거쳐서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피로 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꾸짖습니다. “네 이놈, 네가 이렇게 내 종을 더럽

혔지만 앞으로 내가 순식간에 깨끗하게 해서 세마포를 입히고 면류관을 씌울 때가 온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순식간에 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믿는 사람들에게도 안 되었는데, 여기서 무조건 혜택을 받게 되는 이치가 바로 그겁니다. 안찰을 뭐 하루 종일 합니까? 3초, 4초 걸립니다. 생수가 뭐 여러 시간 걸려서 됩니까? 금세 됩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Chapter 26.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는 하나님의 특명에 따라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적한 곳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또한 양떼들이 와서 거할 수 있는 별관과 이방 사람들이 우리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날이 갈수록 우리 역사에 대한 오해도 많이 풀리고, 남들이 눈여겨보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육적으로도 제삼자가 볼 때, 그 에덴성회라는 곳이 뭔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아름다운 동산을 배경으로 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한적한 곳에 내 성전을 지어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 성전에서 알곡으로 익어 바로 내 나라로 들어오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에 의존하여 우리는

오늘날까지 일해 왔습니다.

우리 역사가 28주년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보여주심 받은 것도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뜻깊게 느끼는 것은 바로, “너를 따르는 양떼들이 이 성전에서 알곡으로 익어 내 나라로 들어오게 된다.”는 여호와와의 말씀입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눈동자같이 보살핌을 받아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사실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또한 가정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옛날에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뜻깊게 보내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환자들까지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 주일씩, 혹은 열흘씩 걸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하나로 묶어 건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중에도 가장 어려웠던 것은 경춘가도에 세우는 육교였습니다. 우리가 조형물까지 해서 육교를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뜻깊은 일입니다.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완공하여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부흥도 시키고, 또 이방인들에게 여러 가지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제공하게 되겠지만, 이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헌금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내용 면에서 보면 하나에서 열까지가 전쟁입니다. 일정한 시간 안에 행정당국과 충돌을 피해 가면서 밀고 나가는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 가는 건축입니다. 안과 밖으로 닥치는 시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때로는 바보처럼 묵묵히 일을 해 왔습니다. 인공위성이 달나라에 날아가고,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오늘날, 영적인 사업을 해 나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알아줄 거며, 누가 믿어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개의치 않고 꾸준히 일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여호와께서 알아서 하실 일입니다.

오늘날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뭐냐? 수년 전에 돌들이 떠다니다가 목성에 끌려 들어가는 것을 아마추어 천문학자가 발견했습니다. 그는 일본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 매일 망원경으로 하늘을 쳐다보다가 목성이 끄는 힘에 의해 경상북도나 서울시만 한 돌덩이가 목성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랍니다. 현대 과학이 그 거리까지 측정해 냅니다. 그러니까 몇 분 후나 몇 시간 후면 그 거리에서 목성에 도달하여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 것을 알아맞히는 겁니다. 지구에서 계산한 그 시간이 일 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목성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 폭발력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수억만 배라고 합니다. 그 폭발력이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

우주에는 끊임없이 돌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달은 수십만 개의 곰보로 되어 있습니다. 태초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달은 위성에 의해서 곰보가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도 수없이 유성들이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걸 우리는 별뚱이라고 부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는 잘 보입니다. 그리하여 엄청나게 큰 불덩어리들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 많은 위성들이 떨어져도 끄떡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 사람들이 철저히 보호를 받고 있는 겁니다.

조금 큰 별뚱이 지구에 몇 개만 떨어져도 지구는 그 폭발력에 의해 먼지가 가로막아 햇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지구상의 생물들이 다 얼어 죽습니다. 만일 목성에 떨어진 경상북도나 서울시만 한 돌덩어리가 지구에 떨어진다면 그 피해는 상상이 안 가는 겁

니다. 해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대륙이 물바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사는 지구는 자연의 힘에 약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여 기계가 인간을 지배할 정도가 되었지만, 자연의 위력에 대하여는 손쓸 길이 없는 겁니다. 노아 때는 물로 인류를 멸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창9:15)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은 징계하실 때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재앙을 내립니다. 지구의 공기가 외부로부터 오는 재앙을 차단하고 있지만, 그 대기권에 변화가 오는 날에는 수시로 떨어지는 별뿔뚝들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지구는 인류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에 변화를 주시면 인류는 당장 사라집니다.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인간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도망가야 어디로 갈 겁니까? 땅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데, 가 봤자 입니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수해를 피해 산에 가면 뭐합니까? 최고로 높은 산도 잠기는 판인데.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천 년 동안 지구의 일부분에서 역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온 세상의 주를 모신 감람나무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조그맣게 보여도, '작은 일의 날'(슌4:10)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사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일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수만 명이 함께 일한 것이 아닙니다. 여덟 식구가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한 일이 세상을 멸해 버렸습니다.

“인자의 임하는 날은 노아의 때와 같느니라.”(마24:37)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남 보기에 엄청난 규모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 때도 여덟 식구가 한 겁니다. 그러므로 남들이 다 알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대 과학이 자연의 재해 앞에 맥을 못 추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하는 것뿐입니다. 다 해 놓고 나면 다음은 여호와께서 하실 차례입니다. 실제로 주의 뜻을 이루어 놓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알곡성전을 지을 때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 지었더니, 이상 중에 성전 앞에 있는 연못에 안개가 자욱한데, 하늘에서 광채가 내려와 비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여러분한테 누차 전했습니다.

제가 어깨를 으쓱거리는 걸 보셨습니까? 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시니 감사하고, 또 힘을 모아 주신 여러분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목에 힘주고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누가 뭐라도 전 제 생애에 그 일을 해 봐야 합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신 대로 다 되었는데, 왜 이걸 안 되나, 해서 아쉬워했던 것이 이 성전 앞의 잔디밭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전 옆 동산을 깎아서, 보여주신 것보다는 작지만 잔디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도 ‘이게 아닌데, 보여주신 건 정면이었는데 왜 옆에 할 수밖에 없는가?’ 하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길이 나게 되어, 행정당국에 흙을 여기다 버리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그 잔디밭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알곡성전의 삼 단계 작업이 보여주신 대로 다 됩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 하나가 안 됐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게 결국은 되더라 이겁니다. 보여주시면 빠르고 늦은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하긴 뭐,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오락처럼, 운동 삼아, 새벽마다 집을 나서 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알곡성전이 지어지면 주위에 살던 사람들이 땅을 팔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시겠다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결국 그 대로 다 밀려나갔습니다.

2, 3년 후에는 누가 봐도 ‘마치 에덴동산 같구나.’ 하게 됩니다. 유실수에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처럼, 알곡성전에서 알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뭐 힘이 있습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해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핏박 속에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 온 겁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실 한 민족을 만드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끝나고, 유대교는 새 언약과 복음을 기반으로 한 기독교로 발전하였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생명수 샘물을 이루셨다. 그 생수를 유업으로 받아 역사할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 감람나무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뒤 하나님께 책을 받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으며, 이를 제자들에게 알리고자 사도 요한을 불러 계시를 주셨다. 그 계시 가운데, 이기는 자가 나오면 생명수 샘물을 유업으로 맡기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